

케이시 베일 - 10세 소년이 말한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천 개의 삶

THOUSAND LIVES

천 번의 윤회. 수만 가지 인연. 하나의
목적지.

 THE LIVES
MEDIA®

천 개의 삶

(THOUSAND LIVES)

천 번의 윤회. 수만 가지 인연. 하나의 목적
지.

저자: 저널리스트 **케이시 베일** (Casey Vale)이 한 열 살
소년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함.

Copyright © 2025 THE LIVES MEDIA. 모든 권리 보유.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자 주

이 책은 실제 이야기,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집필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신상 정보는 문학적 형식에 맞춰 변경, 축약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책의 일부 단락은 당사자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었으며, 이는 당시 그들 각자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THE LIVES MEDIA 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체에 있어서 편집팀이 필요한 수정을 가했지만, 원작 인물을 존중하고 이야기의 정신과 생동감을 보존하기 위해, 저희는 원작 인물의 소박하고 생생한 정신과 어조를 최대한 보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편집팀



머리말

기자의 삶, 특히 먼 타지를 떠돌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의 삶에는 종종 많은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다정하게 **리버** (River)라고 부르고자 하는 소년과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 세상이 품고 있을 법한 경이로움에 대한 저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아시아에서의 긴 출장을 마치고 잠시 휴가를 보내고 있던 미국 서부의 한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리버**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막 열 살이 된, 영어를 쓰는 미국 소년이었고, 빛나는 눈과 그 나이에 보기 드문 깊은 사색에 잠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그의 가족은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고, 저는 곧 그들이 깊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동양에서 유래한 고대 수련법인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의 대화는 그저 평범한 일상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함께 먼 산등성이 너머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리버**가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학교나 친구, 혹은 어린아이들의 놀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했던 선사

시대 문명에서부터 익숙한 역사 속 왕조들, 심지어 지구를 넘어선 세계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삶에 대한 생생하고 놀랍도록 상세한 기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리버는 특별한 인연과 어릴 적부터의 수련 덕분에 그의 천목(天目, 제 3 의 눈)이 열리면서 지혜의 일부가 함께 열렸고, 그로 인해 다른 차원의 공간을 보고 자신의 많은 전생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차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러한 능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로 전생의 기억을 언급할 때 **리버**의 말투 또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말은 마치 인생의 깊이를 통찰한 경험 많은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나누는 것처럼 어른스럽고 심오해졌습니다. 그는 그 전생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저’라고 칭하며, 마치 그 순간들을 다시 사는 듯했습니다. 그가 이야기할 때의 목소리는 여전히 열 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이야기의 내용과 깊이는 비범한 박식함과 놀라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고대 언어를 구사했고, 어떤 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가며 풍습과 역사적 사건들을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인인 저는 불법(佛法)과 동양의 가르침에 대해 약간의 지식은 있었지만, 처음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심지어 약간의 회의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 보이는 진실함,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친 이야기들의 놀랍도록 명료하고 일관된 흐름을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과장도,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기억'하는 것, 명상하거나 조용히 사색에 잠긴 순간에 '보는' 것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리버**는 항상 각 생애 속 자신의 인물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장군이었을 때는 장군처럼 생각했고, 수행인이었을 때는 수행인의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외교 고문이었을 때는, 그 인물이 수행자가 아니었던 배경 속에서 영적인 해석이나 인과응보의 논리를 전혀 섞지 않고 순수하게 정치가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구분은 이야기들을 한층 더 신뢰감 있고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의 놀라운 대화들이 오간 후, 아들의 특별함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이야기들이 인연 있는 영혼들에게 닿기를 바라는 **리버**의 부모님의 진심 어린 동의를 얻어, 저는 약 2주간 집중적으로 그의 기억의 흐름을 주의 깊게 듣고 기록

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이한 일들에 대한 귀중한 자료로서 저 자신만을 위해 기록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 이야기들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역사와 인과응보, 선과 악 사이의 선택, 그리고 무엇보다 근원을 찾아 윤회의 끝없는 여정을 떠나는 한 생명의 이야기에 대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책, "천 번의 삶(Thousand Lives)"은 그 기간 동안 **리버**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가장 충실하게 기록하여 모은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내내 저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듣고 기록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야기의 흐름이 거의 주인공의 독백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공과 함께 선사 시대 전쟁의 장군부터, 삼국시대의 도사, 예수를 따르던 신도, 신성한 산을 관장하던 산신(山神), 고대 화성의 예술가, 20 세기 중반의 미국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역할을 거쳐, 마침내 그의 진정한 근원인, 따파(大法)를 기다리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로 서약했던 휘황찬란한 천국(天國)의 한 왕(王)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여정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첫 장은 일부 독자들에게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먼 전생에 진법(眞法)을 반대하며 저지른 죄악

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업보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부디 인내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것은 진실의 일부이자, 엄격하면서도 자비로운 인과의 법
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 2 장부
터 **리버**는 자신의 기억을 통해 역사를 '관찰'하는 자의 역
할로 더 많이 등장하며, 수행인의 초월적인 시각으로 사건
과 인물을 해석하고, 천의(天意)와 사건들 뒤에 숨겨진 교
훈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부원신(副元神)'과 같은 낯선
단어가 나올 때, 저는 소년의 설명이나 참고 자료를 통해
제가 이해한 바에 따라 괄호 안에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려
노력했습니다.

바라건대, "천 번의 삶"을 통해 우리 각자가 삶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여정에 대
한 작은 공감과 성찰의 조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케이시 베일 (Casey Vale)

THE LIVES MEDIA

제 1 장: 선사 시대의 달

...

가끔 제가 명상을 할 때, 혹은 그저 아주 조용히 창밖을 내다볼 때,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어제 무엇을 했는지, 지난주에 어디서 놀았는지 하는 그런 종류의 기억이 아닙니다. 이 기억들은 아주 이상해서, 아주, 아주 먼 옛날의 어딘가에서 온 것들입니다. 이 지구가 더 이상 그 흔적을 기

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만큼 아득히 먼 곳에서 말이죠. (나중에 부모님께서 설명해주셔서야 비로소 제가 천목(天目)을 통해 그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천목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가 겨우 다섯 살 무렵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저를 약 1 억 년 전의 한 시대로 데려갔습니다. 지극히 휘황찬란했던 한 문명 주기의 마지막 세기들, 그러나 동시에 쇠락의 벼랑 끝에 서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남겨진 가장 오래된 역사서 두루마리에는, 그 문명이 한때 눈부신 황금시대를 누렸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때의 지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들은 잿빛 벽돌과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빛으로 짜인 듯 반짝였고, 우아한 탑들은 하늘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절정기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고, 지혜와 도덕 모두 매우 높은 경지에 있었습니다.

역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오천 년간의 존재 끝에 그 문명 주기가 막을 내리려던 결정적인 시점에, 위대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존경하며 창세주(創世主)라 부르게 된 한 지고하신 분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주의 진리인 따파(大

法)를 가지고 오셔서 널리 전하고 중생을 구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수억의 사람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들은 수련의 길로 들어섰고, 심성(心性)이 제고되고 지혜가 열렸습니다. 그 덕분에 그 문명은 멸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없었던 휘황찬란함 속에서 만 년이라는 세월을 더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만 년 동안, 따파를 따라 진정으로 수련한 사람들은 비범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은, 전해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바로 그들이 만들거나 조정한 위대한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에너지의 중심이자 신성한 장소였으며, 마음을 닦고 선을 향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초월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있는 사원들과 장엄하고 화려한 거대 건축물들은 모두 인간과 신(神)이 가까웠던 시대, 따파가 길을 비추는 등대였던 시대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시간은 멈추지 않는 흐름입니다. 제가 한 전생에서 태어났을 때, 그 만 년의 휘황찬란했던 시대는 이미 마지막 해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에서의 제 이름은, 지금 여러분의 언어로 음역해본다면, 아리온 (Arion)과 비슷하게 들릴 겁니다. 그 시대의 언어

와 문자는 우리가 아는 것과 매우 달라서, 여러분이 상상하기 쉽도록 일단 이 아리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아리온이 태어났을 때, 달은 여전히 밤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고, 오래된 사원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창세주와 따파, 그리고 광대한 신통(神通)으로 달을 만들었다는 수련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전래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달에 사는 항아(姮娥)나 나무꾼 아저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름답고 장대하지만, 아득하고 더 이상 누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저 아리온의 시대, 사회는 깊이 분화되어 있었습니다. 한 쪽에는 여전히 신앙을 지키려 애쓰고, 조상들이 남긴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쪽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을 믿고, 물질적인 힘, 자신이 붙잡고 통제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점점 더 실용주의가 짙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저희 세대에게, 옛사람들의 ‘초자연 과학’이나 ‘정신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모호하고 믿기 어렵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측정할 수 있고,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제조하고 조종할 수 있는 기술만이 진정한 과학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저희도 어렵פות이, 옛사람들의 이른바 ‘따파’를 따른다고 자처하는 소수의 ‘수련’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기이한 ‘신통’과 ‘공능(功能)’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 개인을 포함한 제 세대의 대다수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직접 목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에게 그것은 대부분 아득한 과거로부터 꾸며진 뜬소문이나 전설에 불과했고, 어쩌면 그저 어떤 정교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 군대, 그리고 우리 진영이 밤낮으로 연구하고 제조하는 최첨단 무기를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 문명 주기의 마지막 500 년 동안의 도덕적 쇠퇴는 거의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신불(神佛)을 믿지 않고, 우주의 보이지 않는 법칙을 경

외하지 않게 되자, 도덕적 구속력도 점차 느슨해졌습니다. 탐욕, 이기심, 권력과 물질적 향락에 대한 갈망이 날로 격렬해졌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닦지 않거나, 혹은 수련했지만 의지가 굳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명(名), 리(利), 정(情)의 유혹에 쉽게 이끌려 전통적인 가치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가져다줄 수 있는 물질 과학이 있는데, 왜 고행을 해야 하고,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쇠퇴의 기반 위에서, 유물론 사상은 제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으로도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뜻을 같이하는 국가와 세력의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은 점차 연합하여 강력한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물질의 힘을 믿는 자들의 동맹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 부상하는 운동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유물론 동맹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환상적인 영적 세계’라고 여기는 것의 영향을 사회생활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것도 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 더 넓은 차원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운명의 주인이며, 모든 성취는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들은 따파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수련자

들을 배척하며, 그들을 사회 ‘진보’의 방해 세력이자 자신들이 세우려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시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숨 막히게 변해갔습니다. 한때 지침으로 여겨졌던 따파의 가르침은 이제 많은 곳에서 조롱과 왜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지상낙원’을 약속하는 유물론 동맹은 수많은 사람, 특히 동맹국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이었습니다. 동맹의 공통된 노선은 매우 단호하고 심지어 독단적이었으며, 동맹의 지도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사회 내부의 사상 전쟁이 아니라, 점차 더 큰 규모의 대립으로, 한 문명 전체의 영혼을 놓고 벌이는 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저 아리온은, 바로 그 강력하게 부상하던 유물론 동맹의 핵심 국가 중 하나에 속한 중추적인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 아리온은 그 만 년 문명 주기의 마지막 세기에, 유물주의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던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계층이었고, 부모님은 유물론 동맹의 핵심 정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중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들었던 첫 수업들은 신불이나 자비심, 신앙에 대한 동화가 아니라, 과학 기술의 힘, 인간의 우월성,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무신론 사상이 매일 제 머릿속에 주입되었습니다. 영적인 것, 옛사람들의 따파와 관련된 모든 것은 미신이자 진보의 장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수련자들에 대해 경멸, 심지어 증오를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자들’, ‘헛된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배운 것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신적 가치를 경시했고, 오직 물질적인 힘과 군사력만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수련자들이 지었다고 말하는 고대 유적과 사원들을 경외심이 아닌 약간의 과학적 호기심으로 바라보았고, 그 영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마도 저는 군사적인 재능을 타고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전술 게임을 좋아했고, 역사상 위대한 전투에 대한 기록을

읽는 것을 즐겼습니다(비록 그것들이 종종 유물론적 관점에서 해석되었지만 말입니다). 제 신체 능력도 꽤 좋았고, 곧 지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성향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며 제가 군인의 길을 걷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들에게 군대는 힘의 상징이자 유물론 동맹의 영향력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도구였습니다.

동맹군에서의 제 승진 길은 꽤 순탄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저는 현대 전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우리 진영에서 제작한 최신 무기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결단력, 그리고 가족의 후원에 힘입어 저는 꽤 빠르게 계급을 올렸습니다. 대규모 훈련이나 (유물론 동맹에 여전히 저항하는 세력과의) 소규모 국경 분쟁에서의 승리는 제 명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에, 저는 주력 군단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군단은 약 오만 명에 달하는 막강한 부대였습니다. 그것은 동맹에서 가장 정예한 군단 중 하나였고, 우리 동맹 전체에는 비슷한 규모, 심지어 더 큰 규모의 군단들이 대규모 작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정연한 대오를 이룬 군대, 화승총과 빛나는 총검으로 무장한 뻑뻑한 보병 부대, 손에 검과 창을 든 위풍당당한 기병대, 그리고 건장한 명마들이 끄는 중포병 부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군복은 세심하게 재단되었고, 색상은 화려하고 위엄이 넘쳤으며, 각 군단과 병과는 광대한 전장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고유한 표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것은 명예의 정점이자, 제 노력과 신념에 대한 확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위를, 규율이 엄격하게 조직된 제 군단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제가 ‘숭고한’ 이상, 즉 인간이 주인이 되는 세계, 영적인 ‘환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건설하는 이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긴장된 분위기는 마침내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유물론 동맹 최고사령부로부터 마침내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총력전이 개시될 것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구호는 매우 명확했고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미신의 족쇄에서 ‘해방’하고, 여전히 영성의 어둠에 잠겨 있는 땅을 ‘계몽’하며, 인간과 물질 과학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맹 지도부의 초기 계획은 ‘속전속결’로, 최대 6 개월 안에 모든 저항을 쓸어버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와 제 오만 군단에게 그것은 우리가 기다려왔고, 훈련받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한 치의 망설임도, 의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래를 가져오고, 낡고 뒤떨어진 것들을 타파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군단은 동맹의 다른 강력한 군단들과 함께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중첩된 보병 대형, 위풍당당한 기병 부대, 요란하게 움직이는 포병 부대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유심론자 진영의 핵심 지역으로 여겨지는, 그들이 ‘빛의 도시’라고 부르는 곳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수련자들의 중심지이자 따파의 많은 경전과 유산을 보관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초기 계획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파 신앙을 따르는 국가와 공동체들은, 비록 그들의 군대가 처음에는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지 않았지만, 매우 용감한 전투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규모 상비군이 없었지만, 모든 백성이 마치 군인처럼 자신의 신앙과 고향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지형에 의지하여 매우 영리하게 싸웠고, 유연한 유격 전술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습니다.

게다가, 유심론자 진영의 소수 ‘공능’을 가진 수련자들의 은밀한 도움 또한 우리의 진격을 상당히 늦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우리가 행군하려던 길들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중요한 다리들은 정교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짙은 안개와 때아닌 소나기가 갑자기 나타나 이동과 보급을 방해했습니다. 제 군단 역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상황에 여러 번 부딪혔습니다. 한번은 짹짹한 대낮에 행군하던 중, 갑자기 선봉 부대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병사들이 심한 일사병과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혹독하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또 다른 때는, 이상한 전염병이 군단의 상당 부분에 갑자기 발생하여 매우 빠르게 퍼졌고, 우리 군의관들이 간신히 통제 방법을 찾아내기 전까지 몇 주 만에 약 10%의 병력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눈에 보이는 적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살상 행위는 아니었고, 주로 우리를 저지하고 지치게 하려는 목적이었지만, 그것들은 실제로 많은 어려움과 은밀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끈질긴 저항과 예기치 못한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몇 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쟁은 지루하게 길어졌습니다. 거의 3 년 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고, 양측 모두 적지 않은 손실을 입은 후에야 우리 유

물론 동맹은 점차 모든 전선에서 우세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진전의 매 걸음은 피와 피로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3 년간의 정복 전쟁 끝에, 저 아리온의 군단은 많은 시련과 손실을 겪었지만, 마침내 ‘빛의 도시’ 외곽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시를 점령하고, 남아있는 모든 저항을 소탕하며, 유심론자들의 상징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한다"는 구호는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내심으로는 모두가 이 승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빛의 도시’를 향한 공격은 제 군단이 겪었던 가장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비록 유심론자 진영이 거의 3 년간의 전쟁으로 쇠약해졌지만, 이곳, 이 마지막 보루에서의 그들의 저항은 극도로 맹렬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것이 운명의 전투라는 것을 아는 듯, 절망적인 결의로 싸웠습니다. 여러 날의 피비린내 나는 교전 끝에, 이제 처음 병력의 약 5분의 3 만 남은 제 군단은 마침내 도시 외곽에 있던 적병의 마지막 저항 거점들을 진압했습니다.

이제 도시 중심으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광대한 종교 건축물 단지, 사람들이 가장 신성한 곳이자 따파의 정수가 보존된 곳이라고 말하는 웅장한 사원이었습니다. 첩보에 따르면, 그곳은 또한 수련자들

과 여전히 완고하게 신앙을 지키는 백성들의 마지막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사원의 거대한 문들이 포병의 위력 아래 무너졌을 때, 한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넓은 경내, 거대하고 위엄 있으며 자비로운 주불(主佛)의 동상 앞에, 수련자의 법복을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 기도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와 뒤에는 수천 명의 일반 백성들 – 노인, 젊은이, 여성, 아이들 – 이 모두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고 의탁하는 표정으로 동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도, 저항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앙의 정적과 속삭이는 기도 소리뿐이었습니다.

3 년 동안 싸우고,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고, ‘미신을 믿는 적’에 대한 증오 사상에 물든 제 병사들에게 그 광경은 전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무지’의 마지막 소굴이자,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제거되어야 할 자들로 여겼습니다.

상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라. 그리고 저 아리온의 군단이 췌도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학살이었습니다.

저는 높은 계단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제 병사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맨손의 군중 속으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명 소리, 울부짖는 소리, 무기가 뼈와 살에 부딪히는 소리, 쓰러지는 몸들의 소리. 피가 사원의 하얀 돌바닥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자들은 죽음에 직면해서도 많은 이들이 평온한 표정을 잃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경을 계속 외웠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공황에 빠져 허망하게 도망치려 애썼습니다.

저는 직접 손을 써서 수련자를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지휘하고, '임무'가 완수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처절한 비명 소리를 들었을 때, 차가운 감정이 문득 제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한순간, 아주 짧은 순간, 연민의 정,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고 싶고, 이 무의미한 학살을 끝내고 싶은 생각이 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년간의 유물론적 교리에 가려져 있던 인간의 양심이 희미한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단련해온 그 강철 같은 의지, 그 유물론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그 희미한 빛을 재빨리 꺼버렸습니다. "그들은 적이다." 차가운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들은 진보의 장애물이다. 그들의 파멸은 더

나는 새로운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해졌습니다. 저는 학살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고, 마침내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이제 피로 물든 사원의 텅 빈 복도를 스치는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저 아리온의 지휘 아래 있던 군단은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무고한 생명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성지를 파괴하고 신불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은, 비록 직접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최악에 대한 용인과 묵인, 찰나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인해,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업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아리온이 그 생에서 저지른 가장 크고 깊은 죄업이었습니다. 그 빛은 이후 무수한 윤회의 삶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갚아야만 했습니다.

‘빛의 도시’가 점령되고 그토록 잔혹한 방식으로 ‘정화’된 후, 거의 3 년에 걸친 전쟁은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유물론 동맹은 전역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심론자 진영의 남은 자들은, 제거되지 않았다면, 숨어 살

거나 두려움 속에 살거나, 혹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저 아리온은 ‘빛의 도시’를 정복한 군단을 지휘한 ‘공적’으로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저는 영예를 얻고, 후한 상을 받았으며, 오늘날 여러분의 군대에서 대장 계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군 계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제 명성은 동맹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한 공적과 가족 및 여러 권력 파벌의 후원에 힘입어, 저는 다가오는 임기 동안 동맹 전체 군사력의 최고 지도자 자리, 즉 ‘국방부 장관’과 유사한 직책의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눈앞에 활짝 열려 있는 듯했고, 권력과 영광의 정점에 이르는 미래가 보였습니다.

저는 거의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준비와 로비 활동은 거의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공식적인 임명 결정이 발표되기 직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는 다른 도시에서 열린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니다. 제 마차는 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마차가 험하고 미끄러운 산길을 지날 때, 웬지 모르게 말들이 갑자기 겁에 질려 맹렬하게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마

차는 통제력을 잃고 비틀거리다 깊고 어두운 절벽 아래로
똑바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리온으로서의 제 마지막 감각은 몸이 자유낙하할 때의
극도의 공포, 그리고 하늘과 땅이 뒤흔들리는 듯한 충격과
함께 덮쳐온 어둠이었습니다.

훨씬 나중에, 지금 이 생에서 따파를 수련하여 천목이 열
린 후에야, 저는 그 ‘사고’의 진실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
다. 그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물론
동맹 내의 다른 정치적 경쟁자, 즉 제가 곧 차지하게 될
‘국방부 장관’ 자리를 노리던 자에 의해 정교하게 꾸며진
암살 음모였습니다. 그는 마부를 매수했고, 아마도 제 여
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까지도 매수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유물론적 ‘이상’의 이름
으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제가, 결국 같은 뜻을 가진 동
지들의 손에, 그것도 권력과 물질적 이익을 다투다가 죽게
되다니 말입니다. 그 죽음은 비록 고통스럽고 분했지만,
아마도 저의 끝없는 업보 갚기의 시작에 불과했을 것입니
다.

절벽 아래에서의 제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리온의 야망과
죄로 가득 찬 한 생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

고'가 일어나기 약 일주일 전, 먼 전선에서 마지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물론 동맹이 완전히 승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심론자 진영의 남은 모든 국가와 영토는 평정되었습니다. 따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던 수련자들은 거의 대부분 제거되거나 체포, 감금되어 자신의 길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거의 3 년에 걸친 전쟁은 마침내 유물론자 진영의 절대적인 지배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온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신앙을 말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들, 전쟁이 막 잠잠해졌을 때, 기이한 사건,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은 맑았고 달은 둥글고 밝게 빛났습니다. 갑자기 저와 수도의 많은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련자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준 그 거대한 구체, 달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며 익숙한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점점 더 빠르고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떨어지지 않고, 무언가에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구로부터 멀리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서서, 망연자실하고 겁에 질린 채, 그 은빛 구체가 점점 작아져 희미한 빛 점이 되었다가 마침내 깊은 우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물론을 따르는 우리 중 누구도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중력과 궤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려 애썼지만, 달이 떠나버렸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훨씬 나중에 천목이 열린 후에야, 저는 그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탈출이었습니다. 극도로 높은 도행(道行)을 가진 한 무리의 따파 수련자들이, 문명의 피할 수 없는 쇠망과 인심의 부패를 예견하고, 신통을 사용하여 남아있는 진정한 수련자 일부 – 약 수만 명으로 추정됨 – 를 문화의 정수와 생명의 씨앗과 함께 달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천목으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 달은 밖에서 보면 단단한 돌 구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층과 다양한 구역을 가진 작은 세계처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귀한 식량 작물과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비옥한 땅도 있었고, 데려온 동물들을 사육하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인공적인 역장(力場)을 만들어 내부의 중력과 대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비밀스러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분이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내부 구조 전체는 수만 명이 별들 사이의 긴 여정 동안 살

고 생존하기에 충분한 완전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자들은 자신들의 광대한 신통을 사용하여 달을 조종했고, 그것을 거대한 우주선, 즉 한 문명 전체의 ‘방주’로 만들어 태양계를 떠나 혈통과 희망을 보존할 다른 안전한 곳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저 아리온이 마차 ‘사고’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마도 불과 며칠 후에, 더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나중에 제가 천목으로 다시 관찰한 것입니다. 난민들을 태운 달이 태양계를 멀리 떠나자, 더 이상 행성의 균형을 지탱할 것이 없는 듯했습니다. 그 문명의 모든 중생이 만들어낸 거대한 압력, 특히 따파를 반대하고 수련자를 탄압한 유물론자 진영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이 마침내 청산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들, 이 우주의 수호신들, 즉 우리 유물론자 진영이 한때 비웃고 그 존재를 부정했던 분들이 손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신통을 사용하여 끔찍한 지각 변동, 대홍수, 무서운 화산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정화하기 위

해, 그들은 이전 문명 주기의 지구 자체를 폭파시켰습니다. 모든 물질 과학적 성취와 죄악, 그리고 야망을 가진 그 문명 전체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적적인 것은, 그 부득이한 구원의 방주였던 달이 수년, 아마도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는 수십 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많은 먼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신들이 낳은 우주의 남은 것들로 새로운 지구를 재창조하고 새로운 문명 주기가 시작될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이 끌려 돌아와 이 행성의 위성이 되어 조용한 사명을 계속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

아리온이었던 제 영혼은 그 참혹한 죽음 이후, 검고 무거운 업력 덩어리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경계에서 무수한 생을 거쳐 윤회하며 죄를 갚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돼지와 개로 사는 삶을 시작했던 때입니다.

...

아리온의 죽음 이후, 제 영혼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한 거대한 업력 덩어리를 짊어진 채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얼마나 떠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차가움과 고독,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강력한 흡인력이 저를 끌어당겼고, 의식이 점차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형상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돼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 연속으로 말입니다.

그 생애들에 대한 기억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여전히 저를 소름 돋게 합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수만 명의 군사를 지휘하던 대장군, 곧 최고 권력을 손에 쥔 뻔했던 사람이, 이제는 더럽고 악취 나는 돼지우리에서 사는 네 발 달린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아리온의 모든 생각과 야망은 깨끗이 지워진 듯했고, 오직 가장 기본적인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굶주림, 갈증, 그리고 항상 존재하는 막연한 두려움.

축축하고 비좁은 우리 안에 갇혔던 느낌, 바닥이 항상 분뇨로 질척이던 느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먹이는 인간들이 버린 찌꺼기나 남은 음식물이었고, 더러운 나무 여물통에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조각의 먹이라도 더 먹으려고 서로 다투고, 서로를 밀치며, 비참하게 꿀꿀거렸습니다.

품위도,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할 수 없는 결말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단지 더러움이나 굶주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력감과 무지였습니다. 때때로, 짧은 순간에, 아리온 시절의 희미한 기억의 빛이 제 머릿속에서 번쩍었습니다. 화려한 군복의 모습, 위엄 있는 전장의 모습, 환호성의 소리. 하지만 그것은 이내 빠르게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과 고통만을 남겼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무겁고 굵든 육체와 짐승의 무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저는 거칠게 우리 밖으로 끌려 나갔던 느낌을 기억합니다. 동족들의 꿀꿀거리는 비명 소리, 극도의 공포. 그리고 차가운 칼날과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한 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돼지의 형상으로, 역시 더러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역시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일곱 번,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돼지로서의 한 생이 있었습니다. 비록 죽기 직전의 짧은 인식의 순간이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생이었습니다.

그 생에서도, 다른 돼지로서의 생애들처럼, 저는 허름한 우리에서 사육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 주인이 저를 끌어내 네 다리를 단단히 묶고 도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죽음이 임박하고 도살업자의 날카롭고 차가운 칼이 막 내려오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순간에, 어떻게 된 일인지, 아리온 장군으로서의 생애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정복 전쟁들, 잔혹한 명령들, 그리고 옛날 그 사원에서 제가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수련자들의 얼굴까지도.

그리고 저는 제 앞에서 있는 도살업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저를 휩쌌습니다. 나는 그를 알아봤다! 그 얼굴, 그 눈빛, 비록 세월의 흔적과 한평생의 고난으로 물들었지만, 저는 결코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빛의 도시’ 학살 때 제 병사들에게 살해당했던 수련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돼지의 육체 속에서 저는 말할 수도,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은 후회,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며, 애원하기 위해 무언가 해보려 애썼습니다. 비범한 노력으로 저는 몸을 일으켜 앞다리로 무릎을 꿇으려 애썼고, 두 앞발을 마

치 애원하듯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살업자가 알아듣고 저를 용서해주기를 바라며 처절하게 꿀꿀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도살업자는, 아마도 죽기 직전에 겁에 질린 돼지 한 마리를 보았을 뿐일 겁니다. 그는 그 더러운 육체 안에, 전생에 자신의 죽음을 초래했던 자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칼날은 여전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극도의 절망 속에서, 극도의 공포와 후회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 도살업자를 알아본 순간, 그리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은 제 영혼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은 인과법칙, 우주의 절대적인 공정함에 대한 가혹한 교훈이었습니다. 바람을 심으면, 반드시 폭풍을 거두게 됩니다. 모든 죄악은, 조만간, 이런 방식으로든 저런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일곱 번의 돼지로서의 삶, 매 생은 고통과 치욕 속에서 죄를 씻어내는 형벌의 시간이었습니다...

...

일곱 번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돼지로서의 삶을 마친 후, 저는 형벌의 밑바닥에 닿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온의 업보를 갚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열다섯 번의 생을 개로 살아야 했습니다.

열다섯 번, 저는 다시 다른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전히 네 발 달린 짐승이었지만, 아마도 조금 더 민첩했고, 인간과 더 복잡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개로서의 삶은 다른 종류의 고통, 다른 교훈을 가져다주었지만, 결국에는 여전히 무력감, 의존, 그리고 짐승의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한 생에서는, 저는 주인 없는 개가 되어 봄비는 도시의 더러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매일이 남은 음식을 찾고, 악한 자들의 매질을 피하며, 얼어붙지 않고 밤을 보낼 구석을 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할 정도의 굶주림, 쫓겨날 때의 두려움, 그리고 극도의 고독을 맛보았습니다.

또 다른 생에서는, 외딴 시골의 가난한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들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진 것을 저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아마도 너무 힘든 삶 때문에 자주 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 없이 맞았던 매질,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사소한 실수 때문에 굶어야 했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눈 내리는 추운 겨울밤, 처마 밑에서 자야 했을 때, 살을 에는 추위에 떨며 문틈으로 집 안의 따뜻한 등불과 그들의 웃음소리를 보며 느꼈던 형언할 수 없는 서러움을 기억합니다. 비록 박대를 당했지만, 개의 본능은 여전히 저를 충성스럽게 만들었고, 여전히 그들 곁을 맴돌며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로서의 삶이 고통으로만 가득 찼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에서는 사랑을 맛보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더 큰 고통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생에서는, 저는 아주 똑똑한 개였고, 시골의 한 가족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놀고, 집을 지키며, 그들에게서 따뜻함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축생의 삶 속에서 드물게 찾아온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가족은 도시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도시 생활이 저처럼 큰 개를 데리고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나, 제가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어느 날 아침 그들이 짐을 꾸려 마차에 올

랐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저를 쓰다듬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차는 멀리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늘 그랬듯이 잠시 어디 갔다가 돌아올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고박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남겨준 먹이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속에서 사무쳤습니다. 그때도 저는 제가 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그들이 길에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무한한 충성심으로, 저는 그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익숙한 집을 떠나 정처 없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에 따라, 공기 중에 남아있는 익숙한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극심한 굶주림을 겪었고, 낯선 사람들에게 쫓겨났으며, 다른 개들에게 공격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주인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에게 힘을 더해주었습니다.

수색은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많은 들판과 마을을 지났습니다. 제 몸은 점점 더 야위고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마침내, 깊은 숲속을 헤매던 중, 저는 더

이상 한 점의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고목 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호랑이로 보이는 한 맹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냥꾼의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저항할 힘도, 도망칠 의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덮치기 직전, 가슴속에서 고통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곧 겪게 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주인을 찾지 못한 고통, 그리고 어쩌면, 어쩌면 내가 정말로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하고 쓰라린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숲에서, 배신당한 충성심으로 산산조각 난 마음과, 제가 한때 가졌던 사랑에 대한 답 없는 질문을 안고 죽었습니다.

열다섯 번의 개로서의 삶, 매 생은 고통과 무력감, 애정과 충성심, 그리고 배신에 대한 각기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은, 비록 짐승의 것이었지만, 아리온이 뿌린 죄와, 비록 뒤늦었지만 축생의 몸에서도 싹트기 시작한 회개의 씨앗에 대해 결코 빛바래지 않는 상기(想起)로서 제 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 * *

제 2 장: 푸른 바다의 왕자

...

돼지와 개의 몸으로 보낸 기나긴 세월,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어림잡아 거의 백 년이 흐른 뒤, 제 영혼은 마침내 축생의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리온 시절의 업력이 여전히 너무나 무거웠기에, 그 초기 인간으로서의 삶들에서 저는 여전

히 빈곤과 역경 속에서 살아야 했고, 온갖 결핍과 수모를 겪었습니다. 생이 거듭될수록, 아마도 백 번 이상은 가난, 질병, 또는 요절하는 운명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점차 시간이 흐르고 끊임없이 업보를 갚아가면서, 제 업력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나기 시작했고, 교육을 받고, 약간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무수한 생애들 가운데, 어떤 생은 덧없는 꿈처럼 희미했지만, 또 어떤 생은 매우 특별한 경험과 함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생애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아주, 아주 오래전, 대략 2 백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육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다의 생명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대양 밑바닥에 사는 인어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매우 기억에 남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아마도 전설 속 이야기에만 존재할 법한 법칙과 생물들이 있는 경이로운 세계였지요.

코랄리아 왕국 – 해저의 인어 세계

당시 우리 왕국의 이름은 **코칼리아 (Coralia)**, 혹은 인어의 언어로 그와 비슷하게 들리는 어떤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은 광대한 심해 계곡, 혹은 드넓은 산호 평원에 숨겨져 있었고, 웅장한 해저 산맥에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상처럼 눈부신 햇빛이 없었습니다. 왕국 전체는 수많은 산호, 해조류, 그리고 생물 발광 능력을 가진 기이한 해양 생물들이 내뿜는 영롱하고 환상적인 빛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빛은 때로는 보름달처럼 부드럽고, 때로는 온갖 색채로 눈부시게 빛나며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왕국의 수면과 가까운 얕은 지역에서는, 때때로 푸른 물결을 뚫고 들어오는 희미하고 따스한 햇살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지 사람들처럼 돌이나 금속으로 도시나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어들의 거처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이 조각한 거대한 산호 군락이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여러 세대에 걸쳐 원하는 대로 ‘배양’하고 다듬어 독특한 형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저 절벽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연 동굴에 살기도 했는데, 그곳은 반짝이는 조개껍데기, 귀한 진주, 그리고形形色색의 바다 돌로 장식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부왕(父王)의 왕궁은 코칼리아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산호 군락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부드러운 청록색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 해저의 인어 세계에는 단 하나의 종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코랄리아 왕국은 여러 공동체 중 하나였을 뿐이며, 왕국 내에도 여러 다른 혈통의 인어들이 섞여 살거나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제 부왕께 복종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각 주요 인어 종족마다 고유 의 방언, 즉 그들이 소통하는 방식에 특징적인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의 우리 소통 방식은 육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도 매우 달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처럼 단어를 명확하게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인어의 언어는 유려한 소리, 휘파람 소리, 높낮이가 있는 꺾임 소리의 연속이었는데, 아마 오늘날 여러분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돌고래나 흰긴수염고래의 소통 방식과 어느 정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 소리들은 물속에서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가며 메시지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몸짓 언어와 얼굴 표정 또한 우리 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가볍게 꼬리를 흔드는 것, 눈빛의 미세한 변화, 또는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매우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인어들은 매우 순박하게 살며 자연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후대의 육지 사람들처럼 말로 소통할 필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이해는 대부분 직접적인 감지, 영혼의 공명, 그리고 그러한 섬세한 표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 종족인 코랄리아 왕족은 가장 고귀한 혈통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해저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반짝이는 청록색 비늘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헤엄칠 때, 그 비늘들은 영롱한 빛을 반사하여 환상적인 빛의 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은 길고 바다 비단처럼 부드러웠으며, 보통 짙은 남색이나 녹색 이끼 색이었습니다. 코랄리아 혈통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몸에서 부드러운 생체 에너지를 발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너지는 큰 적을 공격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작은 생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더 중요하게는 자신과 다른 이들의 작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코랄리아 혈통 외에도, 고유한 특징과 역할을 가진 다른 인어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흑린(黑鱗) 인어가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들의 비늘은 철흑같이 검고 윤이 났습니다. 그들은 보통 빛이 닿기 어려운 더 깊은 물속에 살았습니다. 흑린 인어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매우 잘 볼 수 있었고, 해저 바위틈이나 뾰족한 해초 숲에 위장하는 데 매우 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먼 바다의 정세를 정찰하거나, 왕국의 국경 지역을 경비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은 과묵하고 조용했지만, 매우 용감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산호(珊瑚) 인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가장 화려한 색상을 가진 인어 종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늘은 그들이 주로 서식하며 숨어 지내는 산호초와 똑같이 온갖 화려한 색깔을 띠었습니다. 산호 인어는 우리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매우 민첩하고 재주가 좋았습니다. 그들은 위장의 대가여서, 산호초 속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누구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식량이나 약재로 쓰이는 해양 식물과 희귀한 해조류를 채집하는 데에도 매우 능했습니다.

그 외에도 전사(戰士)라고 불리는 인어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코랄리아의 특별한 분파일 수도 있고, 혹은 코랄리아와 흑린의 혼혈일 수도 있는데, 저는 더 이상 명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징은 다른 종족보다 월등히 건장한 신체를 가졌고, 그들의 비늘도 더 단단하여 마치 천연 갑옷과 같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데 보냈으며, 상어 이빨, 날카로운 조개껍데기, 또는 큰 물고기 뼈로 만든 긴 창 같은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왕국을 보호하는 주력군이었습니다.

규모 면에서, 당시 우리 코랄리아 왕국의 인구는 대략 백만 명 안팎이었습니다. 코랄리아 영토 주변에는 더 작은

몇몇 인어 소국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평화롭게 교류하며 산물을 교환했지만, 때로는 영토나 자원을 두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인어 사회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육지 인류의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아마도 초기 봉건 사회와 비슷했지만 매우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부왕과 왕후로, 함께 왕국을 다스리며 대양의 현명함과 축복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 인어 사회에는 고대 중국과 같은 많은 육지 봉건 사회처럼 심각한 성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녀는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평등했고, 왕위 계승 또한 전적으로 성별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재능, 덕망, 그리고 강력한 법력(法力)을 가진 사람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계승자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누나는 뛰어난 법력과 지혜로 부왕과 왕족 원로들로부터 미래의 왕위 계승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와 같은 다른 왕자, 공주들이 있었고, 각자 고유한 역할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왕국에 공을 세운 대가문들이 있었는데, 부왕으로부터 영지와 특정 특권을 하사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흑린, 산호 인어, 그리고 귀족 혈통이 아닌 코랄리아인들로 이루어진 대다수의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지처럼 복잡한 관료 체계나 큰 학교, 도서관이 없었습니다. 민족의 지식, 법규, 그리고 역사 이야기는 주로 세대 간에 입에서 입으로, 바다의 정취를 담은 노래와 선율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이 인어의 고대 문자인 물결처럼 굽이치는 글씨로 큰 산호 판에 간단하게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방식의 뚜렷한 철학이나 종교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어들은 ‘대양의 어머니’를 숭배하며, 그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것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균형,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대양의 축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인과 법칙을 믿었습니다. 우리 인어들의 믿음 속에서, 왕족, 특히 코랄리아 혈통은 바로 신들, 즉 대양의 어머니가 왕국을 이끌고 보호하도록 선택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법력’이라 불리는 순수한 생체 에너지의 형태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 건강, 그리고 수명도 일반인보다 월등했습니다. 당시 인어의 평균 수명은 꽤 높아서, 대략 이백 년 정도였습니다. 특히 부왕과 같은 왕족이나 강력한 법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살 수 있었고, 삼백 살을 넘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자 대양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의 표현이기도 한 것은, 바다의 신들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때때로, 특히 부왕, 왕족의 원로들, 또는 민간인 중 특별한 인연이 있는 소수의 인어들은 신들로부터 메시지나 지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언적인 꿈을 통해 일어나거나, 대양의 어머니께 바치는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는 깊은 정적의 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주로 왕국의 중대사, 천재지변의 징조, 또는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수명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어들의 생식 능력은 자연스럽게 육지의 많은 종들만큼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긴 생애 동안, 인어 여성은 보통 최대 두 번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종족에게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 같았으며, 왕국의 인구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대양의 어머니의 자원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왕족의 법령, 즉 신들로부터 받은 선물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고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령은 각자에게 완전히 똑같이 나타나지 않고, 마치 고유한 각인과 같았습니

다. 예를 들어, 제 부왕께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거나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자신 주위에 약하지만 효과적인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것으로 여겨졌던 제 큰누나는 매우 특별한 눈을 가졌는데, 원할 때면 그 눈에서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이 뿜어져 나와 환영을 꿰뚫어 보거나 숨겨진 작은 물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삼촌은, 그의 법력으로 몸 안에 전기를 축적하고 방출할 수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전기뱀장어와 유사했습니다. 그 전류는 작은 해양 생물을 마비시키거나 더 큰 적을 잠시 기절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에서 이름이 **라이라** (Lyra)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음역했습니다. 저는 코랄리아 왕국을 다스리는 부왕의 둘째 아들, 왕자였습니다.

라이라 왕자 – 재능과 덕망

어릴 때부터 저는 왕족의 자질을 드러냈습니다. 대양의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법력은 비범한 신체적 힘으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동년배의 어떤 어린 인어보다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었고, 제 지구력 또한 상당했습니다. 놀

거나 훈련 중에 생긴 작은 상처나 충격은 제 몸에서 아주 빠르게 아물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달 없는 밤의 바다 색깔처럼 짙은 남색이었고, 사람들은 제 눈이 해저에서 발견되는 가장 귀한 진주처럼 빛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부왕과 왕후께서는 저희에게 법력 사용법을 ‘가르쳐’ 주실 수는 없었지만 – 그것은 신께서 각자에게 내려주신 고유한 은혜이고 그 발현 방식 또한 매우 개인적이었기 때문입니다 – 그분들께서는 저희에게 선량한 심성과 맑은 덕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치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법력이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좋은 작용을 발휘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이 제가 제 힘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식의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분들께서 제 마음에 자애심, 공정함, 그리고 백성과 왕국에 대한 깊은 책임 의식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진정한 힘이란 남보다 뛰어난 전투 능력이 아니라, 약자를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아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법력은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코랄리아의 보호 아래 사는 모든 생명에게 봉사하고,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어들의 혼인 생활 또한 매우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왕족이든 평민이든, 우리는 모두 일편단심, 일부일처의 정조를 중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왕족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 상대가 평민 출신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대양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여겨지는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데, 만약 평민이 왕족과 결혼하여 몇 년간 함께 살면서도 선량한 심성과 덕성을 잃지 않으면, 그 사람 역시 점차 신으로부터 법력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왕족 배우자만큼 강력하지는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이는 사회 계층 간의 화합과 사랑을 더욱 장려했습니다.

저 자신, 라이라 왕자 역시 당시 가슴속에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국 남쪽 산호초 지대의 작은 마을에 사는 산호 인어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법력도 없었고 귀족 혈통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 부드러움, 그리고 자비로운 영혼이 제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밀리에 만나 신비한 동굴을 함께 탐험하거나, 그저形形色색의 물고기 떼 사이를 조용히 헤엄치곤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매우 순수하고 강렬했습니다. 저는 곧 부왕과 왕후께 말씀을 드려 그녀와 정식으로 혼인

할 허락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곧 닥쳐올 큰 변고들로 인해 모든 계획을 잠시 미뤄야 했습니다.

조금 더 자란 후, 저는 왕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종 왕국의 여러 영토를 헤엄쳐 다녔습니다. 산호 인어들이 사는 화려한 산호초 지대부터, 흑린 인어들이 거주하는 어두운 해저 협곡까지 말입니다. 저는 평민들과 (우리 인어들의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들의 생각과 바람, 그리고 어려움을 귀담아들었습니다. 제 능력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결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비록 둘째 왕자이고 누나처럼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여전히 많은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잠재적인 전사의 힘뿐만 아니라, 항상 그들의 편에서 줄 사람의 친근함과 덕망을 보았습니다.

국경의 위협:

코랄리아에서의 평화로운 삶, 제가 법력을 열심히 연마하고 산호 인어 소녀와의 사랑을 남몰래 키워가던 나날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국 북쪽 국경 지대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져 오기 시작했고, 그 소식은

공포와 혼란을 몰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거대한 해사왕(海蛇王) 무리가, 수십 마리에 달하는 수가 그 바다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를 이끄는 것은 한 마리의 해사왕 여왕이었는데, 그 크기가 다른 것들을 월등히 능가했고, 비늘은 평범한 회색 돌색깔이 아니라 무서운 핏빛이었으며,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이 해사왕 무리는 매우 흉포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처럼 단독으로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국경 지대의 작은 산호 및 흑린 인어 마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집인 산호 군락을 파괴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많은 인어들을 살해하며, 광범위한 지역에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울부짖음과 절망적인 구원 요청이 왕궁까지 들려오기 시작했고, 일상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제 부왕께서는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즉시 왕족 원로들과 전사 부대의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셨습니다. 코랄리아의 인어 군대는 주로 전사 혈통의 전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비록 용맹하고 전투에 능했지만, 주로 영토 방어나 다른 인어 소국들 또는 단독으로 나타나는 해사왕과의 소규모 교전에 익숙했습니다. 교활

한 여왕이 이끄는 거대한 해사왕 무리와 맞서야 하는 것은 왕국의 역사상 전례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변고를 겪었던 원로들 역시 매우 우려를 표했습니다. 코랄리아 왕국 전체가 긴장과 두려움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일상적인 놀이와 노래는 모두 멈춘 듯했습니다.

왕자의 출정:

운 좋게 탈출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왕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근심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불타는 듯했습니다. 저는 동포들이 위험과 죽음에 직면해 있는 동안, 호화로운 궁전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양의 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법력, 제가 오랫동안 단련해 온 힘은 향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긴급하게 소집된 어전회의에서, 장군들이 위급한 상황과 대처의 어려움을 보고한 후, 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 부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제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자, 선봉장이 되어 왕국의 가장 정예한 군대를 이끌고 북쪽 국경

으로 나아가 저 해사왕 무리를 소탕하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주고자 하나이다!"

조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왕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약간의 자랑스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성격과 용맹함, 그리고 제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또한 이 임무의 위험성도 알고 계셨습니다.

"라이라, 내 아들이," 부왕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용기는 참으로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해사왕 무리는 매우 이례적이며, 흥포하기 짝이 없고 여왕이 이끌고 있다. 이것은 평범한 사냥이 아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아바마마,"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자는 보고만 있을 수 없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소탕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파괴를 일삼을 것이고, 두려움은 왕국 전체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소자는 대양의 어머니로부터 힘을 받았사오니, 그 힘을 코칼리아를 지키는 데 쓰고자 합니다. 부디 소자를 믿어주시옵소서!"

왕위를 계승할 제 누나도 나서서 지지했습니다. 훈련 중에 제 능력을 목격했던 많은 장군들 또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마침내, 한참을 고심하신 부왕께서는 제 눈 속의 굳은 의지와 조정 신하들의 지지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일어나시어 위엄 있게 다가와, 왕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해검(海劍)을 제게 직접 건네주셨습니다. 칼날은 오래전에 멸종된 고대 상어의 거대한 이빨로 만들어져 날카롭고 매우 단단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가볍지만 튼튼한 갑옷 한 벌을 하사하셨는데, 그것은 해저에서 수천 년 동안 화석화된 거대한 바다거북의 등껍질로 제작되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그것을 제게 주기 전에 부왕께서 직접 자신의 강력한 법력으로 가피(加持)하여, 갑옷의 모든 섬유에 에너지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갑옷은 가벼움을 유지하면서도 몇 배나 더 견고해져 강력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거라, 내 아들이야," 부왕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장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코랄리아의 힘과 대양의 어머니의 축복을 가지고 가거라. 조심하고, 무사히 돌아오너라."

저는 고개를 숙여 중책을 받아들였고, 가슴속에서는 자부심과 강철 같은 결의가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 라이라 왕

자는 제 왕국을 지키기 위한 생사의 전쟁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치열한 전투:

부왕의 명을 받은 후, 저는 지체 없이 즉시 왕국의 가장 정예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용맹한 인어 전사들로, 대부분 전사 혈통에 속했으며, 정찰에 능한 민첩한 흑린 인어들도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모두가 많은 시련을 겪고 전투 경험이 풍부하며 코랄리아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수는 그리 많지 않아 불과 수천 명이었지만, 그들은 실로 가장 뛰어난 정예였습니다.

우리는 해사왕 무리가 공포를 퍼뜨리고 있는 북쪽 국경을 향해 신속히 출발했습니다. 행군은 긴급하게 이루어졌지만 규율을 유지했습니다. 파괴된 해역에 가까워졌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주민들의 집이었던 산호 군락들이 곳곳에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잔혹한 공격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공기는 죽음의 냄새와 두려움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저와 병사들의 전투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사왕 무리와의 전쟁은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져, 아마도 달이 몇 번 바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치열하고, 고되고, 힘든 시련으로 가득찬 일련의 전투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규모 교전은 물론이고, 대략 여섯, 일곱 차례의 큰 전투에서 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이 해사왕들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핏빛 비늘을 가진 여왕의 지휘 아래 매우 교활했습니다. 그들은 해저의 복잡한 지형, 깊은 해저 협곡이나 거대하고 뾰족한 해초 숲을 이용하여 매복하거나, 불리할 때 후퇴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두껍고 단단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창으로는 눈이나 더 부드러운 복부 같은 약점을 찌르지 않는 한 그 비늘을 뚫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전사들의 용맹함, 흑린 정찰병들의 민첩함, 그리고 특히 제 법력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비범한 속도로 그들의 진형 한가운데로 돌진하여, 손에 든 해검으로 계속해서 베어 내려 몇 마리의 큰 뱀을 중상 입히고 그들을 일시적으로 후퇴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면 병사들의 환호성이 바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신념과 사기는 강하게

고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투들에서 몇 마리의 해사왕을 제거하여, 뱀 무리의 힘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 적지 않은 병사를 잃었던 전투들도 있었습니다. 뱀들은 너무 많았고,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꼬리가 물속에서 세차게 휘둘러지며 위험한 소용돌이를 만들었고, 그들의 이빨에서 나오는 독은 실로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많은 용감한 전사들이 희생되거나 중상을 입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계속 지휘하고 싸우기 위해 그 고통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비록 힘과 용기를 가진 뛰어난 전사일지라도, 이처럼 교활하고 수가 많은 적을 상대하기 위한 책략, 복잡한 계책 면에서는 정말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종종 힘과 용맹함에 의지하여 정면으로 맞서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병사들에게 영감을 줄 수는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를 불리한 상황에 빠뜨리거나, 더 적은 손실로 적을 섬멸할 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 누나가

여기 있었다면, 아마 훨씬 더 지능적이고 효과적인 작전 방안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뱀 무리를 밀어낼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전진하며, 한 뱀 한 뱀의 바다를 왕국을 위해 되찾았습니다. 전쟁은 팽팽하고 치열했으며, 점점 더 힘겨워졌습니다.

함정과 비장한 죽음:

부왕의 명을 받은 후, 저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흑린 정찰병들이 수집한 초기 첩보에 따르면, 북쪽 국경에 나타난 해사왕 무리는 비록 그중에 유난히 크고 교활해 보이는 우두머리가 한 마리 있었지만, 스무 마리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보에, 저는 정예 부대만으로도, 심지어 그들이 독을 가지고 있더라도, 깔끔하게 소탕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국의 가장 용맹하고 전투에 능한 오백여 명의 전사들만 이끌고 가기로 결정했고, 이 병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기세등등하게 신속히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심각하게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

습니다. 실제로는 그 해사왕 무리는 이백 마리가 넘었습니다. 핏빛 비늘을 가진 여왕은 매우 교활하여, 자신의 무리를 여러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이 스무 마리 미만으로 단독으로 활동하고 사냥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경찰병들을 속여, 위협의 실제 규모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제 군대가 국경 지역에 접근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보고된 대로 스무 마리 남짓한 해사왕 무리 하나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대를 보고는 꽤 ‘주저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백여 명의 병사에게 전진하여 교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전투는 꽤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뚜렷한 우세를 점했습니다. 그 뱀 무리는 몇 차례의 약한 공격 후에, 싸우면서 험준한 해저 산맥 쪽으로 매우 빠르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해사왕들이 진심으로 도망치려 할 때의 속도는 매우 무서웠다는 점입니다. 제 병사들 대부분은 비록 용맹했지만, 복잡한 해저 지형에서 그들을 따라잡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저와, 법력이 강하거나 수영 실력이 뛰어난 서른 명 남짓의 가장 정예한 전사들만이 그들과 속도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빨랐습니다.

도망치려는 뱀 무리를 보며, 그들을 섬멸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급함이 제 안에서 싹틔었습니다. 비록 소규모 그룹을 분리하여 추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도망쳐서 다시 집결하는 것을 막을 다른 뾰족한 계책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속도가 가장 빠른 서른 명을 이끌고 그 뱀 무리를 추격하고, 군단의 나머지는 뒤따르며 지원하기로 말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 스무 마리 남짓한 해사왕 무리는 사실 미끼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 소규모 그룹을 해저 산맥 사이의 어둡고 좁은 협곡으로 점점 더 깊이 유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무수한 동굴과 구석진 곳이 있어 매복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협곡 한가운데에 막 들어섰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굴 속에서, 절벽의 어둠 속에서, 수백 마리의 다른 해사왕들이 일제히 뛰쳐나와 모든 탈출로를 막았습니다. 그들의 수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나 많았습니다. 이백 마리는 족히 되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멀리서 어렴풋이 보았던 핏빛 비늘의 여왕이 마침내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어떤 해사왕보다도 컸고, 핏빛으로 충혈된 눈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소름 끼치는 피에 굶주린 흥포함을 드러냈습니다.

제 서른 명의 용감한 전사들은, 사지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제 주위로 대형을 좁히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전력 차이가 너무나 컸습니다.

여왕은 오직 저만을 노리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물속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지르더니, 화살처럼 제게 똑바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제 모든 힘과 법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손에 든 해검을 휘둘러 그것의 돌처럼 단단한 비늘을 베자, 희미한 물속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부왕께서 하사하시고 법력으로 가피하신 갑옷은 그것의 많은 꼬리치기와 독이 가득한 공격을 막아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에게 여러 곳에 상처를 입혔고, 그것의 검은 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강하고, 너무 끈질겼으며, 무리의 지원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가 한순간 방심했을 때, 뒤에서 다른 뱀에게 공격당하는 충성스러운 전사를 위해

공격을 막아주려던 찰나, 여왕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극도로 강력한 꼬리치기를 날려 저를 멀리 날려 보냈고, 저는 날카로운 절벽에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갑옷은 깨지지 않았지만, 충격으로 인해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가득한 그것의 거대한 턱이 저를 물었습니다.

라이라 왕자로서의 제 마지막 감각은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의식을 덮쳐오는 어둠이었습니다. 제 영혼은 빠져나와, 제 육체가 그 괴물에게 삼켜지는 것을 보는 듯했습니다… 아니, 바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저는 여전히 주위의 혼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왕의 일격과 물림으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서른 명이 넘는 용감한 전사들 중 몇몇, 아마도 열 명도 채 남지 않았을 그들도, 절망적으로 싸우며 저를 중심으로 작은 마지막 원진을 만들려 애썼습니다. 비록 그들 자신도 상처투성이였지만 말입니다. 해사왕 무리의 포효 소리, 희미하게 부딪히는 무기 소리, 남은 자들의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 모든 것이 귀청을 찢는 혼돈의 소리로 뒤섞였습니다.

바로 그 위급한 순간, 우리가 거의 완전히 기진맥진했을 때, 군단의 나머지, 사백여 명의 병사들이 마침내 협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격렬한 교전 소리를 들었거나, 무언가 이상한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그들의 왕자인 제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직 숨이 붙어 수백 마리의 괴물에게 포위된 것을 보고, 그들은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주저 없이 돌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로 절망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육에 미친 해사왕 무리의 뿔뿔한 포위망을 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승산 없는 전투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싸우다 쓰러지는 것을 간신히 볼 수 있었을 뿐이고, 이내 여왕은 마지막 일격으로 제 생명을 완전히 끊어 놓았습니다.

결국, 구원군 전체에서 쉰 명이 조금 넘는, 기진맥진하고 상처투성이인 전사들만이 운 좋게 그 죽음의 포위망에서 벗어나, 저와 거의 모든 정예 부대의 희생이라는 비극적인 소식을 왕국에 전하기 위해 돌아갔습니다.

훨씬 나중에, 현세에서 천목이 열렸을 때, 저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산호 인어 소녀는, 제가 그 전투에서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도의
절망 속에서, 그녀는 다음 생에서는 저와 함께 인연을 맺
기를 간절히 바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 *

제 3 장: 장백산의 산신

...

깊은 바닷속 라이라 왕자로서의 삶, 그 비장한 전투와 못다 이룬 사랑을 뒤로하고, 제 영혼은 다시 윤회의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여러 번 사람으로 태어나 온갖 영고성쇠와

희로애락을 겪었고, 때로는 관리가 되기도, 때로는 백성이 되기도, 또 때로는 사방을 떠도는 상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생애들에 대한 기억은 다소 희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이 아니었던 한 생은 아주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생에서 저는 산신(山神)이 되어, 웅장하고 신령스러운 장백산을 다스리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장백산은 오늘날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위치한 산이다)

이 일은 아주, 아주 오래전, 우리 시간 계산법으로 약 칠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가 아는 고대 문명들보다도 이전에 존재했던 한 문명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자는 비록 달랐지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고대 중국어와 유사하고 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장백(長白)’과 같은 일부 개념과 명칭이, 비록 그 의미는 다소 변했을지라도, 여전히 그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산을 다스리는 신으로서의 제 임기는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백 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의 장백산은 평범한 산들과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실로 옛사람들이 ‘영기(靈氣)가 모여 하늘과 땅으로 통하는 곳’이라 부르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에너지 기둥과 같았고, 수련자들과 그곳에 사는 다른 모든 생명들에게는 성지였습니다.

장백산 – 신성한 세계:

칠만 년 전 장백산의 아름다움과 신성함은 오늘날 우리의 어떤 언어로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수령이 수천 년에 달하는 고목들이 뻗뻗한 원시림, 그 거대한 줄기는 여러 사람이 팔을 벌려도 다 안지 못할 정도였고, 무성한 잎사귀는 하늘을 온통 가렸습니니다. 그곳의 공기는 항상 맑고 서늘했으며, 특별한 신성한 기운이 감돌아 숨을 들이마시면 온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장백산 정상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높아서, 제 기억으로는 해발 사천오백 미터를 넘었습니다. 정상은 일 년 내내 희고 짙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햇빛 아래 반짝이거나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아는 천지(天池)와 같은 큰 호수는 정상에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정상은 웅장한 화강암 덩어리였고, 그곳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쳐 위엄 있고 혹독하면서도 지극히 맑고 신성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이 하늘에 가장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곳이자, 신들께서 세상을 관찰하기 위해 자주 내려오시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장백산은 또한 수많은 희귀한 영물, 화려한 깃털을 가진 새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꽃과 풀들의 서식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천 년 묵은 인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귀한 약재가 아니라, 실로 매우 높은 영성(靈性)을 지니고 있어, 감응하고 심지어는 마음이 선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몸을 숨기거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성함과 풍부한 에너지 때문에, 장백산은 사방에서 수많은 수도(修道)인들을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동굴이나 숲 속에 자리 잡은 소박한 초막을 선택하여 은거하며 수행했고, 영혼의 평온을 찾고 천지의 영기를 흡수하여 수련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산에서 희귀한 약초를 캐어 단(丹)을 연마하거나, 병을 고치고 사람을 구하는 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산신)의 역할과 권능:

하늘로부터 장백산 전체를 총괄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신으로서, 제 책임은 매우 막중했습니다. 저는 제 영토 범위 내에서 풀 한 포기, 나뭇가지 하나, 짐승들로부터 지령(地靈) 에너지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조화로운 운

행을 돌봐야 했습니다. 제 사명은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선량한 생명들을 보호하며, 신성한 산과 인연이 있는 진정한 수련자들을 돕고, 때로는 악을 행하거나 산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모든 행동은 천의(天意)에 따라야 했고, 제멋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산신의 권능 또한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장백산 범위 내에서, 저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가벼운 바람을 일으키거나, 연약한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 열린 안개를 드리우거나, 때로는 산에 처음 발을 들인 자들의 심지(心志)를 시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초목을 적시는 작은 비를 부르거나, 자연에 너무 큰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에서 작은 바위들을 움직여 경관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몸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제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제 영토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선악을 꿰뚫어 보아, 누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경계해야 할 사람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불어오는 폭풍우나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가뭄과 같은 큰 기상 현상은 보통 더 높은 차원의 신들,

즉 훨씬 더 큰 규모의 지리적 영역이나 자연 요소를 관장하는 분들의 안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그것을 바꿀 권능이 없었고, 만약 하늘이 허락한다면 제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의 총괄 아래, 장백산의 각 생물 종과 특정 구역에는 마치 계층 구조처럼 더 작고 전문적인 다른 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의 모든 호랑이를 관장하는 호신(虎神)이 있었는데, 그들은 호랑이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냥하고 다른 생명들에게 까닭 없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장했습니다. 원숭이 떼를 돌보는 원신(猿神)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한 나무들의 성장을 돌보는 목신(木神), 큰 바위와 험준한 절벽의 안정을 지키는 석신(石神), 그리고 각자 고유한 책임을 가진 다른 많은 신들이 더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과 법칙과 천의에 기반하여 매우 엄격한 규칙에 따라 작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호신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자신의 호랑이가 까닭 없이—인간이 먼저 침범하거나 도발하지 않았거나, 전생의 인과가 없는 경우—사람을 공격하여 잡아먹게 둔다면, 그 호신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정(天庭)의 질책을 받거나 심지어 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일에는, 신들의 세계에서조차도, 공정함과 질서가 있습니다. 장백산에서의 제 백여 년의 임기는 그러한 책임들을 수행하며, 신성한 산이 항상 평화롭고 조화롭도록 지키는 긴 나날들이었습니다.

수도인의 흐름과 인삼의 기적을 목격하다:

장백산을 다스린 백여 년 동안, 제가 가장 자주 했던 일 중 하나는 이곳을 찾아오는 수도(修道)인들의 흐름을 조용히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방에서 왔고, 각기 다른 인연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명상을 위한 고요함을 찾으러, 어떤 이는 깨달음을 구하러, 또 어떤 이는 그저 속세를 떠나 은둔 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언어를 사용했는데, 이 땅의 신으로서 저는 그들의 기도와 마음속 깊은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신안(神眼)을 통해, 저는 많은 이들의 경건한 마음, 그리고 험난한 수련의 길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끈기와 인내를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그들이 외부로부터, 그리고 자기 내면으로부터 마주해야 했던 시련과 마난(魔難)도 보았습니다. 이 수련자들 대부분은 비록 초자연적인 세계와

어느 정도 감응할 수는 있었지만, 제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의 신성함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한 산신이 조용히 지켜보며 때로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긴 임기 동안, 저는 도행(道行)이 매우 높은 도사들과 몇 차례 만나 교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수련하여 천목(天目)이 열리고 일정한神通(神通)을 소유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과는, 우리는 대화하기 위해 평범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천목을 통해, 생각의 전달을 통해, 후세 사람들이 아마도 ‘타심통(他心通)’이라 부를 법한 능력으로 소통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말의 한계를 초월한 특별한 담론이었습니다. 우리는 도(道)—그들의 문화에 아주 일찍부터 존재했던 개념—에 대해, 하늘과 땅의 미묘한 운행에 대해, 우주의 신비에 대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만약 천의가 허락한다면, 저 역시 그들의 수행 길에 작은 조언이나 미묘한 경고를 주어, 그들이 함정을 피하거나 돌파해야 할 지점을 깨닫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남은 많지 않았지만, 매번 진정한 수행자들의 지혜와 굳건함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자주 목격했던 또 다른 일은, 장백산의 천 년 묵은 인삼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인삼들은 평범한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수백, 수천 년에 걸쳐 하늘과 땅의 영기를 흡수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영성을 지니고 있었고, 심지어 어느 정도 지혜를 가진 생명체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태는 보통 사람 모양의 뿌리를 가진 매우 특별한 모습이었고,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영기를 발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움직이고, 교묘하게 몸을 숨기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것처럼 귀한 인삼들에는 하위의 목신(木神)들이나 산림의 정령들이 있어 그들을 돌보고 보호했습니다.

저는 종종 제 신력(神力)을 사용하거나 목신들에게 신호를 보내, 이 귀한 인삼들을 보호했습니다. 마음이 선하지 않은 자, 탐욕스러운 자, 또는 인연이 아직 닿지 않은 자들이 그것들을 찾으려 할 때, 저는 그 인삼들이 마치 그들 눈 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거나,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잘못 이끌었습니다. 오직 제가 인연이 있어 교감했던 도사들과 같이 도행이 높은 수련자들이나, 혹은 마음씨가 진정으로 순결하고 산림과 큰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이 인삼을 ‘보고’ ‘얻을’ 기원이 있었습니다. 천 년 묵은 인삼을 ‘찾는’ 것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저의 허락, 돌보는 신들의 동의, 그리고 때로는 영삼(靈蔘) 자체의 ‘수용’이 모두 있

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덕망이 높은 어떤 도사들은 귀한 인삼을 발견하고도 바로 캐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인삼이 아직 가장 ‘무르익은’ 시기가 아니라고 느꼈거나, 혹은 더 인연 있는 사람을 위해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럴 때면, 그들은 종종 자신의 약간의 법술을 사용하여 그 인삼을 더 교묘하게 숨겨두고, 나중에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한 산신의 삶의 단편들이었고, 제가 신성한 장백산에서 목격하고 경험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장백산을 다스리는 긴 세월 동안, 저는 항상 천의의 틀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 노력했고, 인간이나 다른 생명들의 운명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인연과 업보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오직 단 한 번, 제 안의 측은지심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 제가 그 원칙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번이 제 산신으로서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세계를 유람하며 온 산림을 관찰하고 있을 때, 가파른 산비탈을 힘겹게 오르는 한 젊은 여인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수도의 근기가 있어 보였고, 초기 도심(道心)도 꽤 진실해 보였지만, 저는 그녀의 근기가 아직 얇고 수련 공부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 현대 언어로 번역하면 명심(明心)과 비슷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명심은 은거 수련이나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장백산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중병을 앓고 있는 늙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천 년 묵은 인삼을 찾는다는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숨을 가쁘게 쉬며, 생명이 바람 앞의 등불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명심이 어머니에게 바치는 효심, 걱정, 그리고 끝없는 사랑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산에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매일같이, 이른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명심은 온 숲을 헤매고, 수많은 비탈을 넘으며, 바위틈과 덩굴 속을 살살이 뒤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지쳤고, 얇은 옷은 군데군데 해졌으며, 작은 발은 아마도 날카로운 돌에 부딪혀 피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굳건함과 희미한 희망이 빛

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험한 인삼만 찾으면 어머니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밍신을 관찰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효심 어린 마음속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천기(天機)도 보았습니다. 정해진 운명에 따라, 밍신의 어머니는 양수(陽壽)가 거의 다했고, 그것은 그녀가 전생들에서 갇아야 할 업보였습니다. 그리고 밍신 자신도, 현재의 근기와 덕성으로는 하늘과 땅의 영물인 천 년 묵은 인삼을 소유할 만한 인연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금 인삼을 찾는 것은, 비록 어머니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미 안배된 인과를 교란시킬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복분은 당시 밍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 컸기에, 나중에 그녀에게 재앙으로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헛된 수색 끝에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한 고목나무 아래 주저앉아 흐느껴 우는 밍신을 보았을 때, 외딴 산속에서 우는 한 연약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어찌나 가슴을 찢던지요. 그녀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과 땀을 뒤섞은 채 신령님께, 장백산 산신님께 자비를 베풀어 길을 하나 열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발 제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소의나 말이 되어서

라도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 처절한 간청과 절망의 눈물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한계를 넘은 자비심:

그 광경, 밍신의 고통과 절망을 목격했을 때, 제 마음은 실로 흔들렸습니다. 무한한 연민이 솟아올라, 천기(天機)에 대한 고려와 저와 같은 신이 지켜야 할 계율마저 압도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산신이고, 약간의 권능이 있는데, 어찌 이처럼 곤경에 처한 효성스러운 여인을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주 작은 도움만으로도, 아마 큰 혼란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곧 세상을 떠날 생명이,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때, 제 안의 자비심이 이성을 가려버렸습니다. 저는 신의 자비는 천리(天理)를 따라야 하고, 우주의 조화 속에 놓여야 하며, 일시적인 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이미 정해진 인과의 안배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단지 밍신을 돕고 싶고,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고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신력을 사용하여, 공간의 미세한 에너지 흐름에 살짝 영향을 주어 보이지 않는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밍신 앞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지친 발걸음을 교묘하게 외딴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아는 귀한 인삼 한 뿌리가 있었는데, 약 수백 년 된 것으로, 천 년 묵은 희귀종은 아니었지만 기적을 일으킬 만큼의 영기는 충분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 염력(念力)으로 그 인삼을 돌보는 목신과 인삼 자체의 영적 의식에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들이 경계심을 풀고 밍신이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수백 년 된 인삼이라면, 아마 천 년 묵은 것만큼 큰 업과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와 하늘의 경고:

과연, 잠시 후, 거의 절망에 빠져 있던 밍신은 갑자기 근처 뿔뿔한 덩불에서 나오는 희미한 후광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간신히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앞, 나뭇잎 아래로, 아주 아름다운 모양의 인삼 뿌리가 보였고, 맑은 향

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천 년 묵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것에서 풍부한 영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삼을 캐어, 보물처럼 손에 들고, 하늘과 땅, 그리고 산림에 끊임없이 머리를 숙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희망에 가득 차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밍신이 제가 ‘도와준’ 인삼을 가지고 나무들 뒤로 막 사라졌을 때, 저는 갑자기 제 주위 공간에서 강력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맑던 장백산 정상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위엄 있고 다소 엄격한 황금빛 광선이 구름 위에서 제가 서 있는 곳으로 똑바로 비취 내렸습니다. 공기는 응결되었고, 산림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의식 속에서,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직접적이고 위력적인 전달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백산 산신아! 네가 사사로운 정으로 천리를 어지럽히고 인과에 간섭하였구나! 네가 방금 한 행동이, 비록 동정심에서 비롯되었으나, 운명의 자연스러운 운행을 거스른 것임을 아느냐? 신의 자비는 천리를 따라야 하고, 지혜에 기반해야 하며, 우주의 계율을 벗어날 수 없다. 네가 멋대로 정해진 것을 바꾸었으니, 너는 이 행동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저는 경악했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이때서야 저는 진정으로 깨달았고, 제 심각한 잘못을 인식했습니다. 자비심이 지혜와 천의에 대한 절대적인 준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커녕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신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요. 후회와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차올랐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늘의 경고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심판과 자비로운 결정:

하늘로부터 엄격한 경고를 받은 후, 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보이지 않는 흡인력을 느꼈고, 제 영체는 장백산을 떠나 더 높은 차원의 신들이 모이는 장엄한 세계로 인도되었습니다.

천정(天庭) 앞에 서서, 저는 제 행동에 대해 결코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측은지심 때문에 천기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인과에 간섭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모든 형벌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천정의 신들께서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제 행동이 비록 잘못되고 계율을 위반했지만, 그 출발점은 곤경에 처한 중생을 돕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되었지, 사리사욕이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개입한 정도도 어느 정도 절제가 있었고, 불과 수백 년 된 인삼이었기에, 운명에 너무 큰 혼란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늘이 제게 내린 형벌은, 비록 엄격함이 있었지만, 자비와 인연으로 가득 찬 안배 또한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의 신력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었고, 더 중요하게는, 장백산을 다스리는 산신으로서의 제 임기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야 했습니다. 저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사람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 강림의 목적은 단순히 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제가 직접 제가 개입했던 인과의 흐름, 특히 효성스러운 여인 명신과의 인연의 일부가 됨으로써,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체험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제가 제 수양을 더욱 완벽하게 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제 자비심이 앞으로는 더 이상 일시적인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항

상 지혜와 천의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함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산림과의 작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제 영혼이 공식적으로 신의 세계를 떠나 환생을 준비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장백산을 다시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높은 곳에 서서, 제가 백 년 넘게 함께하며 보호했던 웅장한 산맥 전체를 내려다보았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애뜻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풀과 나무, 짐승들, 줄줄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제가 한때 보호했던 영삼(靈蔘)들로부터의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들도 자신들의 산신이 곧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아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에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고하며, 만약 인연이 닿는다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은 한 신의 인도를 받아 다른 차원의 공간들을 지나, 인간 세상의 윤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안배, 기묘한 인연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낯선 가정이 아니라, 바로 제가 옛날 장백산에

서 측은지심을 느껴 손을 내밀어 도와주었던 그 효성스러운 여인, 밍신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밍신의 아들로서의 삶 – 체험과 성장:

그 생에서 제 어머니였던 밍신은 지극히 인자하고 현숙하며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전생의 밍신의 어머니)에서 비롯된 약간의 복덕과, 제가 옛날에 ‘도와서’ 찾게 해준 인삼의 영기 덕분에, 그녀의 어머니는 위중한 병을 이겨내고 외손자가 태어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여러 해를 더 사셨습니다.

그 생의 제 아버지는 (밍신의 남편) 또한 순박하고 선량하며, 아내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고, 생활은 다소 힘들었지만 항상 웃음과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막연한 느낌, 광대한 산림과 매우 신성하고 웅장한 무언가에 대한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자연과 특별한 유대감을 가졌고, 언덕을 거닐며 새소리를 듣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전생이 위엄 있는 산신이었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제 의식 속에는 항상 수련인과 높은 산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 그리고 신불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자라서는 저 또한 효심 깊고 학업에 부지런한 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지방의 작은 관리, 아마도 오늘날의 군수급에 해당하는 관직에 올랐습니다. 관리로 지낸 세월 동안, 저는 항상 올곧고 청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 제 능력 안에서 백성을 힘껏 도왔으며, 제가 다스리는 지역의 백성들에게 공정과 풍요를 가져다주려 애썼습니다. 아마도, 잠재의식 속 어딘가에서, 저는 제가 산신이었을 때의 경솔한 개입이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보상하려는 듯, 여전히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 생에서, 당신의 아들이로서, 저는 진정으로 한 인간의 삶의 모든 영고성쇠를 맛보았습니다. 가족 상봉의 기쁨, 이별의 슬픔, 의식주에 대한 걱정, 일과 사회에 대한 책임. 저는 모든 생명체, 누구든 간에, 각자의 운명과 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부모님의 사랑, 그

들의 조용한 희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부의 개입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이미 복잡한 인과의 수레바퀴에 가져올 수 있는 모든 파장과 혼란을 결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밍신의 아들로서의 삶은 비록 평범했지만, 제게 삶과 인정(人情), 그리고 천리의 운행에 대한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제 영혼의 다음 여정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였습니다.

* * *

제 4 장: 삼국의 천기

...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삼국시대에 대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영웅적인 전투와 경이로운 책략,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칭송받는 형제애의 시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극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늘을 뒤덮은 깃발과 부딪히는 병장기 소리 뒤에는, 또 다른 세계, 즉 은거도사들과 술수(術數), 그리고 운명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의(天意)와 인과가 유난히 뚜렷하게 드러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한 생에서,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조용한 관찰자로서 말입니다.

당시 제 영혼은 매우 도가(道家)적인 이름, **청허자**(淸虛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일 년 내내 안개가 자욱한 신령스러운 산, 무당산(武當山)에서 도(道)를 닦았습니다. 제 스승님은 진정한 수행자이셨는데, 그분께서는 제게 의술과 술수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세상 사람들이 천의라고 부르는 천지의 운행을 느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좋은 근기와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제 천목은 일찍이 열렸고,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도를 얻어 원만히 오르신 후, 저는 산을 떠나 속세에서 유람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천하가 대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漢)나라는 그저 희미한 그림자만 남았고, 제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저마다 패왕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흔이 넘었던 저는 여러 땅을 지나며 많은 비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방랑의 세월 동안, 저는 인간 세상에 숨어 지내는 수많은 수도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명산에서 수련했고, 어떤 이들은 시끄러운 저잣거리 한가운데에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빛만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세상사와 도에 대해 몇 마디 담론을 나눈 뒤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몇몇 특별한 만남, 즉 도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대 전체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이한 만남들을 통해, 저는 점차 천하를 뒤덮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수경(水鏡) 선생 사마휘(司馬徽)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저를 수경의 장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수경 선생을 만나다:

사마휘의 장원은 그리 외진 곳에 있지는 않았지만, 기묘하게 고립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성긴 대나무 울타리가 둘러싸고 있었고, 몇 그루의 고송(古松)이 그림자를 드리웠으며, 작은 시냇물 소리가 졸졸 들려왔습니다. 높은 문이나 큰 담도, 분주한 하인들도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매화나무 아래에서 마른 잎을 쓸고 있는 한 동자만이 보였습니다. 손님이 온 것을 보고, 동자는 이름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호수가 내다보이는 소박한 나무 처마 밑에서,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고 거친 벼룩을 입은 한 노인이 바둑판 옆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흑백의 바둑돌들은 복잡하게 얽힌 형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하며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우(道友)께서 무당산의 서리 기운을 품고 오셨구려. 제 바둑판에 어려운 형세가 하나 있으니, 도우께서 함께 보시지요.”

저는 그가 수경 선생임을 알았고, 그 또한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인들 사이에서는, 영적인 교감이 때로는 말보다 더 빨랐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했습니다. “이 바둑은 백(白)이 비록 약세에 몰려 포위되었으나, 구석에 아직 생로(生路)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생로가 너무 작아, 포위를 뚫으려면 신기(神奇)한 한 수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평범한 사람은 보기 어렵고, 보더라도 감히 둘 용기가 없을 것입니다.”

수경 선생은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가을 호수처럼 맑은 눈으로 저를 보고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매를 휘저어 바둑판 위의 돌들을 쓸어버렸습니다.

“보아하니, 도우와 저는 더 이상 바둑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군요. 차나 드시지요.”

동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주전자를 가져왔습니다. 찻잎 향기가 은은하고 맑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오직 바람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도우께서는 사방을 다니시면서,” 수경 선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천하라는 큰 바둑판에서 무엇을 보셨소?”

“용과 뱀이 뒤섞이고, 사슴과 노루가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니다. 한나라의 용은 기력이 이미 쇠했고, 용맥은 끊어져, 그저 어른거리는 그림자만 남았을 뿐입니다.”

수경 선생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에는 마치 사백년의 슬픔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렇소. 용맥은 끊어졌소. 제후들이 다투는 것은, 실은 영혼 없는 용의 시체에 불과하오. 하북의 원소는 가문이 4 대째 삼공(三公)을 지냈으니, 보기에는 맹호 같으나 그의 기운은 혼잡하여 겉은 강하나 속은 약하오. 그것은 종이호랑이라, 큰 비 한 번이면 허물어질 것이오.”

“허도의 조조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보니 그 사람의 기운은 깊고 헤아리기 어려워, 왕의 기운이 있으면서도 간웅의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도우께서 틀리지 않게 보셨소.” 수경 선생이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조조는 교룡(蛟龍)이오. 교룡은 강과 바다를 휘젓고 비바람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진정한 용은 아니오. 그는 한동안 하늘을 대신해 일을 처리할 수는 있으나, 하늘이 될 수는 없소. 그의 운명은 낡은 시대를 끝내는 것이지, 오래 지속될 새로운 왕조를 여는 것이 아니오. 그는 하늘의 채찍으로, 죽은 용의 시체를 후려쳐 다른 배역들을 위한 무대를 정리하는 데 쓰일 뿐이오.”

그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늘의 채찍’. 이 표현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동의 손씨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곳은 큰 강을 방어선으로 삼고, 땅은 비옥하며, 민심이 따르니, 마치 별개의 세계와 같습니다.”

“강동에는 제왕의 기운이 있으나, 그것은 분수를 지키는 왕의 기운이오.” 수경 선생이 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업(基業)을 굳건히 지킬 수는 있으나, 천하를 통일할 운명은 없소. 그들은 산 하나를 차지한 호랑이와 같아, 한 지방의 패주는 될 수 있으나, 결코 평야로 내려와 사자 무리와 다투지는 않을 것이오.”

우리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만약 평범한 사람이 들었다면, 아마 헛된 담론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로 ‘본’ 것이며, 기운의 수, 즉 천명의 운행이었습니다.

저는 잔잔한 호수 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황족의 혈통을 이었으나 사방을 떠돌며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유비를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수경 선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소. 한나라의 진정한 기운을 조금 품고 있으나 너무 약하오. 이 사람은 인의(仁義)는 넘치나 시운(時運)이 부족하오. 그는 마치 좋은 씨앗과 같으나, 혹독한 겨울에 떨어져 거목으로 싹트기 매우 어렵소.”

“선생님,”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하는, 설마 계속 혼란 속에 잠겨 있어야 합니까?”

수경 선생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뒷짐을 지고 처마 끝으로 걸어가, 호수 면의 잔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오. 어떤 무대든 막은 내려야 하오. 대혼란이 지나면 먼지가 가라앉을 때가 올 것이오. 세상에 인재들이 나타나, 바둑판이 잠시나마 결말을 맺도록 도울 것이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결말일 뿐이오. 도우께서는 용중에 한 젊은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오?”

“와룡(臥龍) 선생 말씀이십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그렇소.” 수경 선생이 돌아섰는데, 그의 눈에는 찬사와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빛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재능은 강자아(姜子牙), 장자방(張子房)에 비견될 만하오. 하

지만 애석하게도, 때를 잘못 만났소. 강자야는 상나라가 망해갈 무렵 문왕(文王)을 만났기에 주나라가 팔백 년 기업을 세우도록 도울 수 있었고, 장자방은 진나라가 극도로 잔혹해졌을 때 한고조(漢高祖)를 만났기에 한나라가 사백 년 태평을 누리도록 도울 수 있었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제가 나중에도 계속 기억하게 될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지만 와룡은, 주인을 만났으나 왕조의 천명이 이미 다한 때를 만났소. 그는 마치 천하제일의 명의(名醫)와 같으나, 육부오장이 이미 다 망가진 환자를 치료하러 초빙된 것과 같소.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마지막 날들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 수는 있겠으나, 결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오. 그것이 그의 비극이자, 이 시대의 비극이오.”

그의 말은 제 마음속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했고, 제 모호했던 생각들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깊이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청허자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떠날 때, 저는 여전히 그의 한숨 소리를 귓가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유비가 이곳을 찾아올 것이고, 수경 선생이 그에게 와룡과 봉추(鳳雛)에 대해 알려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기의 핵심, 그 ‘때를 만나지 못함’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는 그저 한숨 속에 담아둘 뿐일 것입니다.

제갈량을 만나다:

수경의 장원을 떠나자, 시국에 대한 제 마음속의 안개는 어느 정도 걷힌 듯했습니다. ‘명의’와 ‘육부오장이 다 망가진 환자’에 대한 선생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저를 용중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 ‘와룡’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선 한 사람의 영혼을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갈량의 초가집은 용중의 한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광활한 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맑고 고고한 수경의 장원과 달리, 이곳은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여전히 은둔자의 소박함이 있었지만,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지런히 경작된 밭,

푸릇푸릇한 채소 이랑, 그리고 뜰에 흙과 자갈로 꼼꼼하게 배치된 몇 개의 군사 사반(沙盤) 모형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세상을 완전히 등지려는 사람의 거처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거처였습니다.

저는 저와 제갈량의 공동 친구인 최주평과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가 들어섰을 때, 저는 스무 살 남짓한 한 젊은이가 창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고서를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책이 아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키가 크고 선비 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유난히 빛나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듯했습니다. 그가 바로 제갈공명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내려놓고 일어나 저희에게 손을 모아 인사했는데, 그 풍채가 조용하고 우아했습니다. 최주평은 저를 무당산에서 온 도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갈량은 저를 보더니, 눈을 살짝 가늘게 떴습니다. 탐색하는 듯한 시선이었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또한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농사 이야기 등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잡담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화는 천하의 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최주평은 솔직한 사람이어서, 제갈량에게 물었습니다. “공명, 자네는 재주가 남다른데, 어찌하여 이 산골에서 계속 밭이나 갈고 있는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돕고 공명을 세우지 않고서?”

제갈량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깃털 부채를 살랑거렸습니다. “주평 형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서둘러 무엇 하겠습니까? 현명한 새는 나뭇가지를 가려 앉고, 뛰어난 신하는 주인을 가려 섬기는 법입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시기가 오지 않았는데, 나선다는 것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 한평생을 헛되이 보낼 뿐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저는 그가 평범한 공명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에 걸맞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선생께서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겠습니까? 아니면, 선생께서 직접 ‘시기’를 만드시려는 것입니까?”

제 질문은 그의 마음속을 정확히 짚은 듯했습니다. 제갈량의 시선이 저를 더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도장(道長)께서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대답했는데, 목소리에는 더 이상 농담조가 없었습니다. “시기(時)는 하늘이 정하고, 형세(勢)는 사람이 만듭니다. 사람은 ‘형세’를 만들 수는 있으나, ‘시기’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 사백 년의 기운이 다했으니, 이것이 ‘시기’입니다. 제후들이 다투고 백성이 도탄에 빠졌으니, 이것이 ‘형세’입니다. 이 시대의 뛰어난 인물이라도, 기껏해야 ‘형세’에 의지하여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어찌 이미 지나간 ‘시기’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담론은 점점 더 주역(周易)의 도리와 별을 보는 술수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별들의 운행, 천상(天象)과 시국(時局)의 상응 관계에 대해 책에서 배운 서생처럼 아니라, 마치 스스로 관찰하고 증험한 사람처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가 또한 도를 닦는 사람이며, 매우 높은 차원에서 지혜를 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화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 저는 그에게 집중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이한 광경이 제 천목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아한 서생의 모습이 점차 희미해지더니, 그 위로 더 먼 과거로부터 온 다른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연기가 자욱한 전쟁터를 보았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서, 한 장군이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는 흉터와 죄인의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그대로 있는 듯 보였지만, 무릎뼈가 이미 도려내져 힘없이 늘어져, 그는 영원히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슬 퍼렇고, 손으로는 끊임없이 호령하며, 삼군(三軍)을 완벽한 기계처럼 지휘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르며, 변화무쌍한 진법을 이루어 적군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천재적인 군사였으나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던 손빈(孫臏)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잠시 스쳐 지나갔다가 사라지고, 제 앞에는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의 제갈량이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방연(龐涓)의 잔혹한 배신을 겪은 후, 손빈의 불행한 영혼이 이제 더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육체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전장에 나설 때 네 바퀴 수레를 타는 습관은, 과시가 아니라 전생의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 군사를 지휘해야 했던 세월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갈량을 바라보았고, 제 눈빛은 아마도 무언가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도 저를 보더니,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느낀 듯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손을 들어 제게 차를 더 따라주었습니다.

“도장께서는 무당산에서 오셨으니, 필시 많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가 나지막이, 마치 독백처럼 말했습니다. “저 제갈량은 그저 평안한 나날을 바라는 농부일 뿐입니다. 다만,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가 겸손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생께서는 나무가 아닙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선생께서는 큰 바람입니다. 다만 이 바람이 기다리고 있을 뿐, 동쪽으로 불어야 할지 서쪽으로 불어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 머지않아 또 다른 바람, 비록 미약하나 한나라의 진정한 기운을 품은 바람이 이곳을 찾아와 선생의 바람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유비의 출현을 예견했습니다.

제갈량은 듣고 나서 기뻐하거나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여전히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여 거의 들리지 않는 한숨이었지만, 그 안에는 광대한 수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망설임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임을 미리 알고, 그 결말이 비극일 것임을 미리 알면서도, 그것을 사명의 일부, 자신의 영혼이 완수해야 할 운명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한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책략가 공명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극과 조용히 마주하고 있는 위대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신의 화타를 만나다:

와룡과의 만남 후, 저는 양양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한 약초가 많기로 유명한 산들이 있는 동쪽으로 유람하는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정말 조용한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 위에서, 저는 또 다른 기이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외딴 산비탈에서,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았을 때, 저는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고 등에 약초 바구니를 멘 한 노인이 기이한 나뭇가지를 꺾기 위해 위태로운 절벽을 조심스럽게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민첩하고 굳건하여, 일흔 살 노인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보았는데, 명성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순수하고 평화로운 기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신의(神醫) 화타(華佗)였습니다.

저는 방해하지 않으려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근처 바위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필요한 것을 다 꺾은 그는 돌아섰다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고,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욕심을 부려 천지의 영기를 좀 얻으려다, 뜻밖에 이곳에서 도우를 만나게 되었구려.” 그가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께서 천지의 영기를 취하여 생령을 구하시는 것은 도(道)를 따르는 것이니, 어찌 탐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바위 위에 함께 앉았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이, 저는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명철함을 구하기 위해 도를 닦고, 그 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저는 그의 약초 바구니를 보았는데, 그 안에는 지기(地氣)가 모이는 곳에서만 자라는 극히 귀한 약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의술이 단지 책이나 축적된 경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의술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신통(神通)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집중하여 바라보았을 때, 제 천목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진맥할 때마다, 그의 인당(印堂)에서 열린 빛이 나와 환자의 살갓을 꿰뚫고, 내부의 각 부위를 선명하게 보고, 경맥의 운행을 보며, 기혈이 막힌 곳과 숨겨진 병의 씨앗, 종양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세상 사람들이 신기(神技)로 여기는 수술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또한 그가 평범한 의술로는 할 수 없는, 조조의 뇌 속 종양을 볼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선생의 의술은 이미 출신입화(出神入化)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약이나 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타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조조가 웅거하고 있는 먼 북쪽을 향했습니다. “그렇소, 도우. 육체의 병은 고칠 수 있소. 하지만 마음의 병, 운명의 병은, 이 늙은이의 의술로도 어쩔 수 없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의심 많은 마음이 뇌 속 종양보다 더 큰 종양이 되어버렸소. 그들을 고치려면, 먼저 그 마음을 갈라내야 하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오.”

잠깐의 침묵 속에서, 저와 그는 마치 같은 광경을 본 듯했습니다. 저는 그가 분노와 의심에 찬 조조에게 체포 명령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어두운 감옥에 앉아,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자신의 마지막 의학 서적들을 차분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타는, 자신의 능력으로, 분명 자신의 그 운수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한 점의 두려움이나 원한도 없이, 그저 평온한 수용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올 때 각자의 빛을 가지고 오는 법이오, 도우.”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평생 병을 고치고 사람을 구했지만, 이 목숨으로 갚아야 할 빛도 있는 법이오. 그것이 하늘과 땅의 공정한 이치요.”

저는 그에게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의술을 존경했지만, 천명을 따르는 그의 마음을 더욱 존경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갔지만, 저는 우리의 영혼이 더 높은 곳에서 다시 만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타와의 만남, 그리고 수경 선생과 제갈량에게서 본 것들은, 저로 하여금 이 시대 전체의 비극에 대한 마지막 해답, 궁극적인 해답을 찾도록 재촉했습니다. 저는 산속 조용한 동굴을 찾아, 정좌(定坐)에 들어갔고, 그 근원을 꿰뚫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이 가라앉고, 세상의 모든 잡념이 사라졌을 때, 제 천목은 더 깊은 공간을 열었습니다. 제 의식은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로 날아갔습니다. 사백 년, 한 사람의 인생에게는 긴 세월이지만, 우주의 흐름 속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위풍당당한 한고조 유방을 보았으나, 그의 눈에는 자신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공신들에 대한 의심과 질투가 번뜩였습니다. 저는 백전백승의 대장군 한신이 궁으로 유인되어 참수당하고,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내가 괴철의 말을 듣지 않아, 한날 여인에게 속게 되었구나.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원기(怨氣)는 사라지지 않고, 응축되어, 사백 년의 역사를 꿰뚫고, 나중에 조조라는 이름을 갖게 될 한 아이의 육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 충성스러운 왕이었던 팽월이 모반의 누명을 쓰고 극형에 처해지고, 온 가문이 멸족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가문의 원한 또한 검은 기운이 되어 날아가, 나중에 유비로 환생할 한 영혼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맹장 영포가 막다른 길에 몰려 자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원기 또한 사라지지 않고, 강동 땅으로 돌아가, 손권으로 태어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광경이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고조 유방의 영혼이, 죽은 후에 여러 번의 윤회를 거쳐 업보를 갚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 이르러, 그는 바로

자신의 황족으로 환생하여,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한헌제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르러, 모든 것이 소름 끼치도록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안배된 업보의 청산이었습니다. 옛날의 빛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온 강산을 다 바쳐 갚아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세 명의 공신이 이제 돌아와, 가장 강력한 세 세력이 되어, 자신의 조상이 세운 기업을 바로 그 조상을 해친 자들의 후손이 나누고 찢어발겼습니다. 유방의 현신인 한헌제는, 자신이 죽인 자들의 후예의 손에 꼭두각시가 되어, 왕업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수’, 즉 거대하고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인과의 그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삼국을 영웅들의 쟁패로 보지 않고, 피비린내 나고 비장한 빛 갇기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모든 인물들, 조조, 유비, 손권에서부터 제갈량, 주유, 사마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저 사백 년 전에 이미 차려진 인과의 바둑판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장기짝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사는 한 편의 연극과 같으니:

이 시대 전체가 업보를 청산하기 위한 큰 연극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저는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간의 계책, 전장에서의 승패만을 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안배하고 있는 하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기이하고, 행운이며, 신기(神技)라고 여겼던 것들이, 수도인의 눈에는 지극히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유비의 적로(的盧)마에 대한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주인을 해치는 말이라, 타는 자는 반드시 화를 입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유비가 경주에 있을 때, 채모가 그를 해치려 하자, 그는 홀로 말을 타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앞에는 폭이 몇 장이나 되는 단계(檀溪)가 세차게 흐르고, 등 뒤에는 추격군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천근만근의 위기 상황에서, 적로마가 갑자기 비범한 도약을 하여 강 건너편으로 날아올라, 유비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희귀한 행운이라거나, 유비가 복이 커서 재앙을 면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定)에 들어 그 사건을 관찰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유비가 절망 속에서 말을 몰아 시냇가에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생사의 순간, 그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하게 타올랐을 때, 하늘 높은 곳에서 황금빛 광선이 똑바로 내려와 사람과 말을 모두 감쌌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위력이 넘쳤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를 호위하는 천신들의 신력(神力)이 가피(加持)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유비는 이 인과의 연극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의 역할은 아직 길게 남았는데, 어찌 여기서 끝낼 수 있겠습니까?

신력의 가피 아래, 겁에 질렸던 적로마는 갑자기 지극히 평온해졌습니다. 그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기이한 용맹함이 솟아났습니다. 그 온 근육에는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도약은 단순히 한 짐승의 힘이 아니라, 천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뭇잎처럼 가볍게 시내를 날아 건너, 반대편 기슭에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진정한 천명을 지닌 자, 역할이 아직 막을 내릴 때가 아닌 자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그는 한나라의 운이 다했음을 분명히 알고, 천명을 거스를 수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여전히 초려를 떠나 유비를 보좌하고, 결국에는 결과가 없음을 미리 아는 길에 몸을 던지기로 결심했을까요?

후세 사람들은 그의 충의,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행하는’ 정신을 칭송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군주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라에 헌신하는 위대한 신하의 가장 고귀한 표현으로 봅니다. 그것은 맞지만, 이야기의 표면에 불과하며,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고 찬양할 수 있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저는 수련인으로서의 제갈량이 이 연극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였다고 이해합니다. 그는 결말을 바꾸기 위해 산을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사명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삼국시대의 ‘의(義)’라는 글자를 더욱 찬란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후세에 충성, 군신간의 지기(知己)의 정,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의 헌신에 대한 불멸의 귀감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나라 부흥에 실패할 것임을 알았지만, 후세에 길이 남을

이야기, 수천 년 후에도 사람들이 되새겨야 할 교훈을 만드는 데에는 성공할 것이었습니다.

유비가 세 번 초려를 찾을 때부터 그가 오장원에서 죽을 때까지의 그의 인생은, 바로 가장 생생한 교훈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유비의 이야기는 그저 인자함은 있으나 무능한 황숙(皇叔)의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유-관-장 사이의 ‘의’는 빛을 발할 터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은 연극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핵심적인 정신적 가치를 정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와 같은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제갈량은 그 비극적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운명에 저항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연기하기 위해 운명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하고 고독한 역할이었습니다.

제갈량에 대한 일화들:

제갈량에 대한 신비로운 일화들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에게는 전혀 신비롭지 않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소설을 읽고 연극을 보며, 종종 놀라고 감탄하며, 그를 천지를 꿰

뛰는 법술을 가진 신선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수련인이 심성과 지혜가 일정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운용한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짚배로 화살 빌리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안개 자욱한 밤에 제갈량이 배 위에서 태연히 거문고를 뜯고 술을 마시며 조조의 화살 십만여 개를 얻어내어, 주유가 그를 해치려고 낸 어려움을 해결한 결과만을 봅니다. 그들은 그것을 절묘한 계책, 비범한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갈량에게 그것이 모험이 아니라, 확실한 계산이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며칠 전, 저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그가 단지 강물의 지형을 살피고, 조조의 의심 많은 심리를 분석하는 것만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매일 밤 조용히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들을 우러러보며, 두 손으로 손가락 마디를 쥐고, 평범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을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단지 평범한 방식으로 천문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수(術數)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응 능력과 결합하여, 하늘의 기운의 운행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셋째 날 밤 오경(五更)에, 장강(長江)에 전례 없이 짙은 안개가 깔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떨어져 서 있어도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 그것이 ‘천시(天時)’였습니다. 그는 또한 조조가 의심이 많아, 그런 안개 속에서는 감히 수군을 내보내 맞서 싸우지 못하고, 그저 궁수들에게 활을 쏘아 방어하게 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인화(人和)’—혹은 더 정확히는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 본 것—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강 구간의 지세가 배를 배치하고 후퇴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리(地利)’였습니다.

천시, 지리, 인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손에 쥐었을 때, 화살을 빌리는 것은 그저 실행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수련인이 도달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운용한 결과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신기묘산(神機妙算)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자연을 따라 일을 처리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적벽대전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칠성단(七星壇)을 세우고 사흘 밤낮으로 동풍을 빌었던 일에 가장 경악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가 비바람을 부르고 하늘과 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정교했습니다.

제갈량은 천상을 관찰하고 비전(祕傳)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그해 동짓날에 양기(陽氣)가 생겨나기 시작할 것임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장강과 같은 광활한 수역에서 기류의 교차와 특수한 지형이 결합하여, 기이한 기상 현상, 즉 북풍만 부는 겨울 한가운데에 며칠 동안 동남풍이 불 것이라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바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바람이 올 것을 ‘미리 알았을’ 뿐입니다.

바람을 비는 제단을 세운 것은, 본질적으로, 공들여 연출된 한 편의 연극이었습니다. 그것에는 여러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위상을 높여, 동오 진영, 특히 주유가 경외심을 갖고 감히 얕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의 눈을 속여, 화공(火攻)이 성공한 직후 자신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주유의 감시에서 벗어나 칠성단에 머물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미리 조운과 비밀리에 약속하여, 바람이 부는 날 남쪽 강가에서 배로 자신을 맞이하도록 세심하게 일러두었습니다.

전투가 임박한 날, 그곳에 있었던 수도인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다른 은거 도사들도 적벽 주변 지역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천의의 위대한 연극이 곧 상연될 것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관찰하기 위해 언덕 위나 외딴 강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우리는 제갈량의 칠성단 위 깃발이 서북쪽을 향해 펄럭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유의 자만심 가득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통이 그의 머릿속에 심어준 치명적인 실수인, 쇠사슬로 연결된 전함들을 보며 걱정하는 조조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부드럽다가 점점 강해졌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황개의 불타는 배들이 조조의 수군 진영을 향해 쏜살같이 돌진하는 것을. 하늘 높이 치솟는 불바다와 처절한 비명 소리를. 그리고 조운의 호위 아래, 주유가 알아채기 전에 작은 배 한 척이 조용히 강가를 떠나 제갈량을 데리고 사라지는 것을.

적벽대전 전체는 인간의 계책과 하늘의 안배가 완벽하게 조화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들의 행동이 하늘과 땅이 이미 정해놓은 ‘시기’와 ‘형세’에 순응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갈량, 주유, 방통, 황개… 그들은 모두 뛰어난 배우였지만, 이 연극의 극본을 쓰고 연출한 진짜 감독은, 바로 천의였습니다.

마지막 전투:

하지만 제갈량도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역할에 너무 깊이 몰입하면, 때로는 실수를 피할 수 없고, 세상의 투쟁심이 수도인의 평온함을 압도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의 생애 동안, 저는 그가 초월적인 지혜를 운용하여 군사를 지휘하고 건곤(乾坤)을 뒤바꾸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의 ‘투쟁심’이 마지막 전투인 상방곡에서처럼 뚜렷하고 강하게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제 경지 안에서, 저는 그 계곡 전체를 바둑판처럼 관찰했습니다. 저는 제갈량의 한 수 한 수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는 이 함정을 무서울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상방곡은 죽음의 주머니였고, 양쪽은 깎아지른 절벽이었으며, 입구는 좁고 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인부로 위장시켜, 매일 가짜 군량을 운반하게 하고, 일부러 사마의의 정탐군에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는 사마의가 늙은 여우처럼 의심이 많아 쉽게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 끈기 있게 그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연을 출전시켜, 몇 합을 겨루다 거짓으로 패하고, 깃발과 군장까지 버리고 상방곡으로 똑바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사마의는 며칠간의 관찰과 위연의 참패를 보고, 마침내 신중함이 탐욕에 가려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위연을 생포하고 대공을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쫓는 것이 바로 사신의 낚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사마의 부자(父子)가 위나라 대군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계곡으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적군이 주머니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갈량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시, 양쪽 절벽 위에서 큰 바위와 거대한 통나무들이 굴러 내려와 출구를 막았습니다. 동시에, 마른 땔감과 유황, 초석으로 가득 찬 수레들이 밀려 내려와 입구를 막았습니다. 계곡은 순식간에 불을 붙일 준비가 된 거대한 나무 상자로 변했습니다.

사마의는 자신이 계곡에 빠진 것을 깨달았을 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절벽 위를 올라다보았고, 제갈량이 네 바퀴 수레에 태연히 앉아 깃털 부채를 살랑이며 차가운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마의의 극도의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사냥만 하던 늙은 여우가, 이제는 탈출구 없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햇불이 던져져 마른 땔감과 초석에 불이 붙자, 끔찍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위나라 군사들의 처절한 비명 소리가 온 산림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갑옷을 활았고, 용맹한 전사들을 살아있는 햇불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마의 부자가 서로를 껴안고, 절망적으로 하늘을 보며 “오늘, 우리 부자는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 정상에서, 제갈량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긴장되어 있었고, 무언가 매우 고집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그가 승상으로서의 ‘국궁진취(鞠躬盡瘁)’ 역할을 너무 몰입하여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지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마의를 죽이고 싶어 했고, 이 경천동지할 화공으로 천의를 거스르고, 촉한(蜀漢)에 한 가닥 희망이라도 되찾으려 했습니다. 강하고 차가운 살념(殺念)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는데, 제가 그를 관찰한 세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살념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늘이 손을 쓴 때였습니다.

하늘의 운명은 사마의가 거기서 죽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晉)나라의 기업은 이 가문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하늘의 운명은 또한, 촉한이 자신의 역할을 끝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길이 가장 맹렬하게 타오를 때,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어디선가 몰려와 상방곡 계곡 바로 위에 모여들었습니다. 바람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폭포수처럼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빗방울은 굵고 무거웠으며, 불바다를 똑바로 후려쳐, 섬뚝한 ‘치익’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 기둥을 피워 올렸습니다. 비는 향 한 자루가 타는 시간 정도만 내렸지만, 그것은 마치 신령의 거대한 물바가지처럼, 제갈량의 야망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불은 꺼지고, 땀감은 젖었으며, 촉나라 군대의 무기 또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사지에서 돌아온 사마의 부자는 서둘러 남은 군사를 이끌고 피의 길을 열어 탈출했습니다.

저는 제갈량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레에 앉아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깃털 부채는 어느새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았는데, 본래 총명했던 눈은 이제 멍

하고 무력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비통하고 쓰라린 한숨이 터져 나왔는데, 그것은 수천수만 개의 화살이 살갗을 꿰뚫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한숨이었습니다.

“일은 사람이 꾸미고,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謀事在人, 成事在天).”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스를 수가 없구나!”

말을 마치자, 입에서 한 모금의 선혈이 뱀어져 나와 옷깃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깨달았다는 것을. 그 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뜻이었고, 가장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비록 연기 속에서였지만, 하늘을 거스르려 한 이 행동은, 그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생명을 살상한 것, 특히 맹획을 일곱 번 사로잡는 과정에서 등갑군(藤甲軍)을 불태워 죽인 것과 더불어, 그의 음덕(陰德)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수도인이었지만, 자신의 지혜와 학식을 사용하여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에 너무 깊이 관여하여 너무 많은 살업(殺業)을 지었습니다. 이 비는 계곡의 불길을 꺾을 뿐만 아니라, 그의 희미하게 타오르던 생명의 불꽃까지도 꺼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십이 년의 수명을 잃었고, 그 생에서는 도를 얻어 신선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늘이 후세에 남기고자 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늘의 뜻을 이길 수는 없다. 살업은 수련인에게조차도 지극히 무서운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 실패 덕분에, 제갈량은 승화할 수 있었습니다.

상방곡 전투 후, 건강이 쇠약해진 그는 모든 투쟁을 완전히 내려놓고 천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나날들의 심경(心境)은 거대한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투쟁하는 ‘자아’가 사라지고, 한나라 부흥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짊어지려 하지 않았을 때, 그의 천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졌습니다. 그는 이후 거의 이천 년간의 세상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오장원의 마지막 날들, 그의 육신이 점차 스러져갈 때,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육신으로가 아니라, 의식 속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근심 가득한 승상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마음이 통달하고 고요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의식의 공간에서, 우리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도우께서는 보셨겠지요?” 그의 염력(念力)이 제게 전해졌는데, 평온하고 한 점의 파동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교감의 순간, 저는 그의 전생인 손빈을 다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 위대한 흐름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영혼이 강가(渭水)의 강자아 시절부터, 전국시대 전쟁터의 손빈, 그리고 한나라의 제갈량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역사의 전환점마다 세상에 내려와 보좌 역할을 하며 건곤을 뒤바꾸도록 돕는, 사명을 띤 영혼이라는 하늘의 안배를 보았습니다.

“보았소.” 저는 생각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당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았소. 천여 년 후, 다른 이민족의 왕조가 쇠망할 무렵, 당신은 다시 한번 세상에 내려와, 유백온(劉伯溫)이라는 이름으로, 평민 출신의 명주(明主)를 보좌하여 새로운 기업을 세우게 될 것이오.”

제갈량은 의식 속에서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통찰과 수용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통달한 상태에서, 이 생의 모든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과거와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보았을 때,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정확한 예언서 중 하나인 『마전과(馬前課)』를 저술했습니다. 그것은 책략의 산물이 아니라, 천기를 명확히 본 자, 제갈량이라는 역할을 완수하고 다른 역할을 준비하기 전에 남긴 유훈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국시대는 후세 사람들에게 ‘의(義)’, 인과의 복잡성, 그리고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즉 인간은 매우 미약하여 하늘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큰 무대였습니다. 오직 수련하고, 운명을 이해하며, 도를 따르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 * *

제 5 장: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따르다

이번 기억은 저를 모래먼지와 태양의 땅, 신앙과 회의가 언제나 맹렬하게 공존하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고대 유대 땅으로, 바로 주 예수께서 나타나 복음을 전파 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생에서 제 이름은 **시몬** (Simon)이었습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었고, 권세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예루살렘의 평범한 목수였고, 가정이 있었으며, 제 삶은 나무토막을 깎고 다듬는 망치 소리와 톱 소리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목재가 흔하지 않아, 우리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수입해 온 목재나 레바논에서 가져온 귀한 백향목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나뭇결의 향기는 평생 동안 저와 함께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흔다섯이 넘어, 예수님보다 열다섯 살 정도 많았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사람은 온갖 영고성쇠를 겪게 되고, 당시 저의 믿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손안의 나뭇결, 그리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땀 흘려 번 돈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들과 이웃들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기이한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예언자라 칭하는 사람들, 사막을 스쳐 가는 바람

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산 남자로서,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친한 친구의 권유에 대한 체면 때문에, 저는 마침내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운 어느 날 오후, 언덕 비탈에 군중이 모여 있었고, 먼지가 자욱하게 날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팔짱을 낀 채, 관찰자의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왕이나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옷차림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목소리를 내셨을 때, 군중 전체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우렁차지 않았지만, 각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기이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생계와 세상의 이치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과 상반되는, 매우 이상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처음에는 참으로 역설적으로 들렸지만, 제 마음속 깊은 어딘가를 건드렸고, 제가 한 번도 이름 붙일 줄 몰랐던 질문들에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주위의 부유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저는 권력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명령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 마음의 평화는 명령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원한 물줄기 같았고, 여러 해 동안 제 마음속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던 속세의 먼지를 서서히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굴복시킨 것은 단지 설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분을 따라 예리코 성을 떠나는 길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이라면 모두 아는 바르티매오 (Bartimaeus)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고, 매일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우리 일행이 지나갈 때,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바르티매오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가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군중 속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 소리치며, 조용히 하라고, 스승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꾸짖을수록,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에는 어둠 속에서 보낸 한평생의 모든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분은 뒤돌아보시고는 간단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를 이리로 부르라.”

사람들이 바르티매오를 불렀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겹옷까지 내던지고 일어나, 더듬거리며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곳, 군중 속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스승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르티매오가 흐느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자비로 가득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분께서 말씀을 마치시는 바로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흐릿하고 생기 없던 바르티매오의 두 눈이 갑자기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고, 또다시 깜빡였습니다. 마치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리고 그는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군중을, 그리고 푸른 하늘을. 평생 처음으로, 그는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얼굴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절망에서 극도의 경이로움으로 변하더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에 복받쳐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지만, 간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자신의 구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조용히 일행에 합류하여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때 제 심장은 북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것은 제 안의 모든 회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같은 목수는 그저 나무토막 하나를 쓸모 있게 만들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한 인생에 빛을 가져다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련하는 사람이 되어, 저는 그것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의 마법이 아니었음을 이해합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각자의 운명과 업력의 빛이 있으며, 이는 각기 다른 차원의 신들에 의해 공정하게 안배됩니다. 바르티매오가 맹인이었던 것 또한 우연이 아니었고, 그의 업장을 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치유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다른 신들의 안배를 깨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그 빛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대신, 그분께서는 훨씬 더 위대하고 비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업력의 빛을 스스로 **짚어지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치유받은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영혼, 그들의 업력은 모두 그분께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자비로운 아버지가 자식이 빛더미에 앉은 것을 보고, 채권자들에게 ‘그의 모든 빛은, 내가 다 짚어지겠소.’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것처럼 거대한 업력 덩어리를 짚어진 대가는 바로 나중의 고난(苦難)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겪으셔야 했던, 육체에서 정신에 이르는 극도의 고통은, 바로 그분께서 신도들을 대신해 짚어지신 모든 빛을 자신의 생명과 고통으로 청산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시몬)

가 목격했던 치유의 기적들은 단지 그분의 자비심을 ‘미리 보여주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야말로 그 자비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때였습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선택하신 구도의 길이요, 지극한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만질 수 있는 것만을 믿는 목수 시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군중 속의 평범한 제자 시몬이 되어, 조용히 그분의 빛을 따르고, 모든 가르침을 경청하며, 제가 목격했던 자비와 위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는 열두 핵심 사도 중 한 명이 아니었고, 그저 믿는 이들의 대양 속 작은 물방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은 바다의 위대함을 목격했고, 결코 예전의 고인 물방울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 삶은 그때부터 완전히 변했습니다. 목공소는 여전히 그 곳에 있었고, 망치 소리와 톱 소리는 매일 울렸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나뭇결과 주문서 주위를 맴돌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곳을 찾아가, 조용히 군중 속에 서서 귀 기울이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점차, 그분을 중심으로 작지만 끈끈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온갖 계층에서 왔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순박한 어부들도 있었고, 사회에서 경멸받던 세리도 있었으며, 현숙한 여인들도, 그리고 저와 같은 평범한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웅장한 교회나 사원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스승님께서 멈추어 가르치시는 어느 곳이든, 언덕 비탈, 호숫가, 또는 신앙심 깊은 누군가의 집 마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왔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면, 남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왔습니다. 이전에는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 진실한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희망하며, 스승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함께 믿었습니다.

하지만 빛을 따르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곧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대형 회당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위협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의 겸손함에 대한, 신은 돌로 지은 사원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그분의 가르침은 그들의 권위와 지위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

이 신성모독을 하고, 참람된 말을 하며, 감히 스스로를 하
느님의 아들이라 칭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화를 입었습니다. 한때 친했던
이웃들이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미혹되어 사도(邪道)를 따른다고 수군거리고 이야
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제게 목공품을 사려 하
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자란 친구들과 의절했습
니다. 우리는 조롱당하고, 배척당했으며, 때로는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비록 유대인들의 종교적 논쟁에는 관심이 없
었지만,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
르는 군중이 정치적 반란으로 변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
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감시당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었습
니다. 그것은 하늘이 수련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시험(考驗)이었습니다. 하나의 정법(正法)이 전해
질 때, 마귀 또한 나타나 교란하며, 사람들의 신앙이 진정
으로 굳건한지 시험합니다. 그 시련들은 마치 체와 같아서,
최고의 신앙의 씨앗, 진정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들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 닥쳤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의 그 운명적인 주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스승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 한 명인 유다에게 배신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체포되었다는 소식. 제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군중 속에 서서, 그들이 그분을 거리를 통해 끌고 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맹인을 고치시고, 수천 명을 빵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것을 보았던 그분께서, 이제는 가시관을 쓰시고, 매 맞고, 모욕당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분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 골고타 언덕 위에서, 멀리서,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분의 손과 발에 투박한 쇠못을 박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십자가를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피와 땀이 온몸에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안의 고통과 슬픔

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믿음은 극한까지 시험받았습니다. 왜, 왜 전능하신 신께서 그토록 비참하고 치욕적인 결말을 맞으셔야만 하는가? 한순간, 회의가 다시 돌아와 제 마음을 갇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 말씀 속에는 한 점의 원망도 없이, 오직 절대적인 수용과 평온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성(完成)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설교를 통해 들었으나 한 번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지극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계셨습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신 후, 두려움이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뒤덮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문을 굳게 닫은 집에서 몰래 만나, 속삭이며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사이에 한 소식이 퍼졌는데, 마치 철흑 같은 밤의 번개와 같았습니다. 스승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다른 여인들이 무덤

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또한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감히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산산조각 난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증거가 아닌 기이한 내면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전례 없는 기쁨과 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솟구쳤습니다. 우리는 스승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더 대담하게,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탄압의 낮이 진정으로 내려온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와 열 명이 넘는 다른 사람들이 한 친구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을 때, 로마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체포했습니다. 많은 질문도, 긴 재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도(邪道)’를 따르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수갑을 채웠을 때,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스승님의 모습과 부활 소식이 제 마음 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형제들과 함께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공기는 악취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중 누구도 울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침묵하며, 때때로 우리가 기억하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기이한 평온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고문하거나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체포는 마치 우리 운동을 싹부터 짓밟기 위한 본보기 행동 같았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고 단호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다음 날, 한 간수가 와서 제 감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따라오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저는 제 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공감과 조용한 격려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병사를 따라 굳건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감옥 뒤 작은 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와, 돈처럼 차가운 얼굴을 한, 손에 큰 칼을 든 사형 집행인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참수당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간수가 제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의 스승님 모습, 처음으로 빛을 본 바르티매오의 얼굴, 수천 명을 위해 만들어진 빵 조각들… 모든 것이 제 마음속을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보았고, 믿었고, 진실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제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고, 부드러운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도전이나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온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집으로 돌아가, 더 이상 고통이나 눈물이 없는 곳에서 스승님을 다시 만날 것을 아는 사람의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킨 한 평범한 제자의 원만이었습니다.

간수는 제 미소를 보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듯이. 그는 사형 집행인에게 손짓했습니다.

그 생에서의 제 마지막 감각은 눈앞에서 번쩍이는 차가운 빛줄기와 목에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의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후, 제 영혼은 가볍게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제 육신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고, 제 눈앞에 찬란한 빛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목수 시몬으로서의 삶은 제게 믿음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믿음은 성인이나 비범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평범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싹틀 수 있으며, 한번 뿌리내리면 그 사람에게 미소로 죽음과 맞설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어떤 수련의 길이든, 항상 시련과 시험이 따른다는 것을. 거짓 속에서 사는 것과 진리를 위해 죽는 것 사이의 선택은, 역사 속 많은 시기의

수련인들이 마주해야 했던 시험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그들의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 * *

제 6 장: 피라미드의 메아리

(소년 리버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맑은 눈은 마치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낡은 필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먼 곳을 응시했다. 소년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는 장엄함을 띤 채 낮게 가라앉았다.)

...

이번 기억은 저를 더욱 아득한 시대로, 아마도 여러분의 시간 계산법으로 약 팔천만 년 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의 지구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거인들의 세계였습니다...

그 생에서 저는 **솔론** (Solon)이라는 이름의 장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솔론, 혹은 중천국(中天國), 모나, 칸라 같은 이름들은, 제가 현재의 언어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음역일 뿐입니다. 당시 우리의 언어는 완전히 달랐고, 더 단순하고 직접적이었으며, 문자보다는 소리의 에너지를 더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세계와 인간:

당시 우리의 세계는 한 폭의 웅장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즉 거인들은 보통 평균 신장이 5 미터가 넘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건장했지만, 영혼은 매우 순수하고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공룡은 괴물이 아니라 동반자였습니다. 크고 온순한 비행 공룡들은 우리가 도시 간을 이동하는 수단으로 길들여졌습니다. 다른 거대한 초식 공룡들은, 그 무한한 힘으로,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끄는 것을 도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매우 조화롭고 평화로웠으며, 모두가 신불(神佛)에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왕국은 중천국이라 불렸고, 말라 (Malla)라는 젊고 현명하며 자비로운 왕이 다스렸습니다.

솔론의 역할:

그 평화로운 시기에 저는 황실 경호대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매우 순박하여 큰 분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제 임무는 꽤 한가했습니다. 하지만 중천국의 군대는 항상 정예하게 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예함을 침

략에 사용하지 않고, 위엄과 덕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번은 이웃 왕국이 도발할 의도를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말라 왕과 **모나 (Mona)** 공주가 모두 어릴 때부터 불법(佛法)을 수련하여 비범한 기품과 위덕(威德)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다소 예상치 못한 결정에 따라, 두 남매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나타났을 때, 병사들의 강력함과 규율은 적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싸우려는 의지를 진정으로 와해시킨 것은 바로 말라 왕의 위엄이었습니다. 그 분께서는 전차 위에 앉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진정한 수행자이자 제왕으로서의 위엄 있고 올곧은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뿔어져 나와, 적들이 스스로 작게 느끼고 감히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세를 벗어난 아름다움과 평온한 기품을 지닌 모나 공주의 존재는 우리 군대의 신성함과 정의로움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 왕은, 하늘을 찌를 듯한 위엄에 직면하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군대 철수를 명령하고 서둘러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지도자들의 위덕으로 말입니다.

신성한 건축:

그 생에서 저는 위대한 피라미드가 건설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 건축물은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위대한 부처님(大佛)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신불과 연결되는 문이었고, 미래를 위한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건축물의 설계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왕국의 가장 뛰어난 ‘건축가들’이 꿈이나 깊은 명상 상태에서 신불로부터 직접적인 영감과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 비율, 내부의 배치… 모든 것에 천기(天機)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제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와 경호대의 임무는 단지 그 신성한 과정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실 경호대장의 자리에서,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목격하고 보호했습니다.

건설에 참여할 인부를 선발하는 것은 단순히 체력에만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중천국 전역에 조서가 내려졌는데, 미혼의 건장한 청년만을 선발하되, 무엇보다도 도덕적 품성이 뛰어나고 신불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여야 했습니다.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수도로 몰려들었고, 탑 건설에 힘을 보태는 것을 일생일대의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직접 건설에 선택된 사람들은 1000 명 가까이로 제한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로 요구에 따라 암석을 채굴하고 그것을 공사장으로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첫 번째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동안, 왕국 전체가 마치 하나의 심장 박동으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말라 왕께서는 모든 심혈을 기울여 공사를 지휘하셨습니다. 왕후께서는 왕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녀는 정성껏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왕공대신들과 모든 백성이 그 귀감을 따랐습니다. 당시 중천국의 분위기는 지극히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매우 순박했고, 남성들은 우아하고 예의 발랐으며, 여성들은 덕망

있고 단정했습니다. 다툼은 없었고, 오직 숭고한 목표를 향한 한마음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건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탑 건설은 전적으로 인력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의 계산법으로 2, 3 톤에 달하는 큰 돌덩이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댓 명 혹은 여섯 명의 건장한 장정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그런 돌덩이를 함께 들어 올리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들은 복잡한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협력과 일종의 정신적인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발밑에는 근처 산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풀로 매우 정교하고 단단하게 엮은 신발이 있었습니다. 이 짚신은 기이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돌덩이를 피라미드의 가파른 계단으로 운반할 때, 저는 그들의 발걸음이 매우 굳건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발을 가볍게 받쳐주어 발걸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구름 위를 걷는다(踏雲)’고 불렀고, 모두가 그것이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신령께서 돕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공사장의 분위기는 전혀 무겁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각지에서 가장 뛰어난 악사와 가수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끝없는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최고의 음악과 노래를 창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작품의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주제는 바로 신불의 위대함과 자비를 찬양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이 천의에 순응하여 이 건축물을 창조한 왕과 백성의 정성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춤도 선보였습니다. 그 춤사위는 우아하고 고상하면서도, 힘과 장엄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개별 악기의 유려하고 섬세한 선율이 조화롭게 결합되었습니다.

(소년이 문득 미소를 지었다. 아득하면서도 친근한 미소였다.)

그 광경들을 떠올리니, 제 현생의 한 이미지가 문득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부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선원 (Shen Yun)** 예술단 공연을 보러 가셨습니다. 저는 이 예술단이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전 세계를 순회 공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날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들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무대의 막이 오르는 순간부터,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의상, 무용, 그

리고 음악의 울림까지, 모든 것이 당시에는 이름 붙일 수 없었던 깊은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거인 시대의 중천국에서 보았던 춤과 노래들, 그것들은 오늘날 선원 예술단이 선보이는 것과 같은 풍격,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전(神傳) 문화라 불리는 것들은, 비록 수백만 년이 지났을지라도, 모두 같은 근원, 같은 영혼을 공유하는 듯합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다시 회상으로 돌아왔다.)

휴식 시간이 될 때마다, 시종들은 정성껏 달콤한 과일 바구니와 산 정상에서 길어온 시원한 샘물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맑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랫소리는 바람 소리에 섞여 모든 피로를 씻어냈고, 모두의 마음을 즐겁고 활기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하루의 노동이 끝나면, 시끄러운 오락은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부들이 다시 함께 앉아, 정적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들은 약 한 시간 동안 마음을 고요히 하고, 조용히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며, 잡다한 생각들을 씻어내고, 몸과 마음을 항상 맑고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돌덩이가 올려지던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뾰족한 꼭대기 돌이었습니다. 당시 아직 매우 젊으셨던 말라 왕께서 직접 왕포를 벗으시고, 가장 힘센 장정 네 명과 함께, 그 돌덩이를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곳으로 손수 올리셨습니다. 탑 아래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돌덩이가 완벽하게 놓였을 때, 온 백성이 함께 침묵 속에서 몸을 굽혀 절을 했습니다. 환호성 하나 없이, 오직 신불께 바치는 절대적인 경건함만이 있었습니다.

(소년 리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응시하다가, 현재의 화자로서 말을 이었다.)

현재, 천목을 사용하여 보니, 제가 당시 건설을 목격했던 건축물은 바로 오늘날 기자의 세 위대한 건축물 중 중앙에 위치한 두 번째로 큰 피라미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크기로는 두 번째로 큰 피라미드이지만, 그 전체 계획 안에서는 첫 번째로 건설된 건축물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나머지 피라미드들은 제가, 솔론이, 더 이상 세상에 없을 때 나중에 건설되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각 건축물은 약 십 년의 간격을 두고 착공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순수한 마음과 가장 높은 수준의 단결력으로 건설된 첫 번째 피라미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꼭대기 부분

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잊혀진 황금시대의 말없는 증인처럼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 전체 단지는 매우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신에 의해 미리 계획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어진 가장 큰 피라미드는 무한한 자비를 상징하는 다른 대불(大佛)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피라미드는 위엄을 상징하는 한 부처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단지 앞을 지키는 것은 바로 스팅크스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왕의 형상이 아니라, 피라미드와 이 성지를 모든 사악한 마귀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임무를 띤 천상의 무신(武神)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인연과 수호의 사명

피라미드 건설이 끝날 무렵, 저 술론의 인생은 운명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말라 왕에게는 모나라는 여동생,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셔서, 말라 왕은 오빠이면서도

아버지처럼 그녀를 극진히 사랑하고 보호했습니다. 이제 모나 공주는 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꽃과 풀도 고개를 숙이게 할 만큼 청순한 아름다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타고난 자비로운 마음과 덕성을 지녔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중천국뿐만 아니라 이웃 왕국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서쪽에는 서극국(西極國)이라는 강력한 왕국이 있었는데, 달락 (Dallak)이라는 젊은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달락 왕 또한 자비롭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항상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가는 사신들은 가장 뛰어난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달락 왕이 모나 공주의 초상화를 보았을 때, 그리고 모나 공주가 달락 왕의 모습을 보았을 때, 두 사람은 즉시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서로의 외모에 끌린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 서로의 영혼과 덕성을 본 듯했습니다.

그들의 좋은 인연은 단지 정치적인 안배가 아니라, 진심 어린 호감에서 비롯된 두 자비로운 마음의 조화였습니다.

모나 공주와 달락 왕의 혼인은 신속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사건이었고, 두 왕국 모두에게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중천국과 서극국 모두 축제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화려한 왕족의 예복

을 입은 모나 공주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얼굴에는 행복이 빛났지만, 사랑하는 오빠와 고향을 곧 떠나야 한다는 슬픔도 어렴풋이 서려 있었습니다.

공주가 떠나기 전날, 말라 왕께서는 저를 궁으로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신뢰와 엄격함, 그리고 오빠로서의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론, 장군들 중에서, 너는 충성심과 용맹함에 있어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모나는 나의 유일한 여동생이며, 중천국의 가장 귀한 보석이다. 이제, 그녀는 먼 땅으로 가서 빛을 발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 황궁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맡기겠다. 정예 부대를 이끌고 공주를 서극국까지 호위하고, 그곳에 남아 왕후의 경호대장으로서 그녀를 지켜라. 네 목숨을 다해 그녀를 보호하여라.”

저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신성한 위탁이며, 오빠가 여동생을 지키는 자에게 보내는 신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전쟁, 희생, 그리고 감화

서극국에서의 제 삶은 몇 년간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달락 왕과 모나 왕후는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며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전쟁의 기운이 일어났습니다.

호전적이고 잔인한 **칸라 (Kanla)** 왕이 이끄는 지북국(地北國)이 갑자기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홍수처럼 밀려와 성채를 파괴하고, 약탈하며, 살육을 저질렀습니다. 칸라의 최종 목표는 서극국의 수도였습니다.

군주의 용기를 지닌 달락 왕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초기 전투에서는 양측의 전력의 엇비슷했습니다. 달락 왕의 지휘 아래 서극국 군대는 끈질기게 싸워 적의 여러 차례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칸라 왕은 흥포할 뿐만 아니라 매우 교활하고 간사한 자였습니다. 힘으로는 빨리 이길 수 없음을 깨닫자, 그는 독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는 군대를 거짓으로 패배하게 하고, 군량을 버려둔 채 험준한 협곡으로 후퇴하게 했습니다. 달락 왕은 침략군을 소탕하려는 마음에 너무 조급했고, 몇 번의 승리 후에 다소 방심하여 그것이 함정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고, 전군이 협곡 깊숙이 들어갔을 때, 칸라의 군대가 양쪽 산비탈에서 매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전투에서, 달락 왕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우다 적진 한가운데서 영웅적으로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은 수도에 청천벽력처럼 전해졌습니다. 비보를 들은 모나 왕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이틀 밤낮을 울며 애도했습니다. 그녀의 슬프고 애절한 울음소리는 이미 비통에 잠긴 황궁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왕후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나왔는데,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떤 내면의 힘으로 승화시킨 듯했습니다.

그동안, 수도는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칸라의 군대가 수도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평소 충성을 외치던 많은 문무대신들이 이제는 재물을 챙겨 모든 것을 버리고 밤중에 도망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약간의 염치가 남은 몇몇 대신들은 궁으로 달려와, 이때는 완전히 평정을 되찾은 모나 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왕후마마, 대세는 이미 기울었나이다! 부디 비밀 통로를 통해 이곳을 떠나시어, 옥체를 보전하시옵소서! 적이 코앞에 닥쳤으니, 머무르시면 죽음뿐이옵니다!”

모나 왕후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고요했지만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그저 단호한 고갯짓으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비겁자들이 도망치는 동안, 저는 황궁 앞 큰 광장에서 또 다른 비장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은 서극국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남은 병사들을 다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병력은 천여 명 남짓이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결사의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수도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었습니다.

저는 돌아 서서 왕후께서 계신 정전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중천국에서 저를 따라온 제 경호대, 제 형제들은 이제 열 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한마디 말도 할 필요 없이,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수도 전체를 지키는 것이 아

니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곳, 이 계단에서, 왕후를 위한 마지막 방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말라 왕께 드렸던 약속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왕후께서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진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마지막 전투에 맞서기 위해 나왔을 때, 평생 칼과 창밖에 몰랐던 무장인 저 술론은, 그녀의 변화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왕후의 모든 기품이 마치 승화된 듯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평온함은 이제 무한한 위엄과 자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밝았으며, 제가 누구에게서도 본 적 없는 깊은 박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났지만, 그것은 속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치 옥처럼 투명하고, 성스럽고, 초탈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후광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경외심을 품게 하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발을 내디뎠을 때, 그 걸음걸이는 굳건하고 우아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험에 직면한 망국의 왕후가 아니라, 마치 속세에 강림한 신, 선녀 같았습니다. 저와 대전

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하여 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지극히 신성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더 이상 고통받는 모나 왕후가 아니라, 자비로우면서도 위엄 있는, 인간 세상에 현현한 한 보살(菩薩)의 신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적군의 함성이 매우 가까워서 들려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황궁으로 통하는 모든 길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와 제 작은 경호대는 정전 정문 앞에서 반석처럼 굳건히 섰습니다. 우리는 칸라의 전군과 맞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가장 정예한 선봉 부대들이 왕후를 생포하기 위해 이곳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싸웠고, 우리 몸으로 작지만 뚫을 수 없는 강철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피가 계단을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창 하나가 갑옷을 꿰뚫었을 때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저는 황궁의 문턱 바로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바로 근처에 떠 있었습니다. 저

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그저 기이한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복자 칸라 왕이 제 무감각한 육체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시, 본능적인 충동처럼, 제 영혼은 그를 따라 날아, 큰 문을 통과하여 궁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마지막 광경을 보았습니다. 피 묻은 칼을 든 칸라 왕이, 모나 왕후가 기다리고 있는 대전으로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자였고, 두려움과 울음, 애원을 보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모나 왕후와 마주했을 때, 그는 경악하여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모든 흥포함이 사라지고, 대신 경외감과 약간의 당혹감, 그리고 경외심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기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동자세로 서서,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조차 잊은 듯했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모나 왕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고, 원망도 없었으며, 마치 고요한 산사의 종소리처럼 맑고 평온했습니다.

“국왕께서 남쪽으로 줄곧 내려오시면서, 그대 군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소. 나는 알고 싶소, 그대는 또 무엇을 더 하려 하시오?”

그 단순한 질문은, 모나의 위엄 있고 자비로운 신성한 태도와 더불어, 칸라의 영혼에 얼마 남지 않은 양심을 정통으로 찢습니다. 그는 문득 손에 든 칼이 무겁게 느껴졌고, 자신이 저지른 죄악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더듬거리며 대답했는데,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오만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내 군대가 더 이상 백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장하겠소. 나는 왕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싶소.”

말을 마치자,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는 듯, 칸라 왕은 몸을 돌려 전군에 수도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우렁차게 내렸습니다.

침략군은 그들의 칸라 왕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지만, 여전히 명령에 복종하며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살육은 끝났습니다. 더 강력한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여인의 무한한 자비심과 신성한 위엄이 어우러진 힘에 의해서였습니다.

제 영혼, 술론은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완전한 충만감과 평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말라 왕께 드렸던 약속을 완수했습니다. 저는 왕후를 제 목숨으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어떤 칼보다도 위대한 힘을 목격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제 영혼은 서서히 사라지며, 한 장군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소년 리버는 이야기를 마친 후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는 여전히 그 순간의 충만함과 비장함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시선이 현실로 돌아와, 나를 보고 말을 이었다.)

과거로부터의 메아리

술론의 삶은 비록 짧았지만 제게 충성과 희생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 살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것, 지금까지도 제가 충격을 느끼는 것은 바로 모나 왕후의 힘입니다. 그 힘은 권력이나 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승화된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폭력과 증오까지도 감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목으로 보니, 그 후 거인 문명 또한 우주의 성(成)-주(住)-괴(壞)-멸(滅)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중천국의 말라 왕 시대 이후 약 열다섯 대의 왕이 지난 후, 마지막 한 왕이 타락하여 더 이상 신불을 믿지 않고, 심지어 신령을 모독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징벌처럼, 혹은 더 정확히는 종말을 예고하는 징조처럼, 어느 날 밤, 피라미드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지극히 위대한 대불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불께서는 스스로 신앙을 저버린 민족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황금시대가 끔찍한 지각 변동으로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위대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상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문명들은, 그것들의 신성한 본래 목적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그 안에 안치해달라는 유언을 남겨, 본래 제단이자 신불과 연결되는 문이었던 곳을 평범한 인간의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행동은 피라미드의 신성함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파라오들의 영혼이, 이 신성모독 죄로 인해, 죽은 후에 지극히 엄격한 징벌을 받아 깊은 지옥의 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말없는 건축물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인간과 신이 교감하던 시대의 휘황찬란한 기억을 품고, 쇠락한 문명의 슬픔을 안고, 여러 시대에 걸친 오해와 모독의 두터운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서서, 아득한 과거로부터의 메아리처럼, 언젠가 인간이 그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이해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

제 7 장: 아틀란티스의 황혼

(리버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복잡하고 무거운 기억을 정리하려는 듯했다. 마침내 소년은 입을 열었고, 그 목소리는 아련하고 회상에 잠긴 빛깔과 함께 은은한 슬픔을 띠고 있었다.)

이번 생의 기억은 저를 오늘날 여러분의 전설 속에서도 여전히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땅, **아틀란티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았던 시대의 아틀란티스는 더 이상 절정기에서 빛나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며, 길고 고통스러운 황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때였습니다.

제가 대사제 **리구스** (Lygus)로서 살았던 아틀란티스는 항상 통일된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고대 역사서 두루마리에에는, 이 대륙이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때로는 평화롭게 교류하고 때로는 충돌했던 시기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정치 체제 또한, 왕이 최고 권력을 가졌던 때도 있었고, 종교 평의회가 가장 강력했던 때도 있습니다. 많은 변고와 선조들의 노력을 거친 후에야, 아틀란티스는 저희 시대처럼 최고 평의회의 통치 아래 점차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일 속에서

도, 분열의 시대가 남긴 흔적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아틀란티스의 쇠락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서서히 스며든 독약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리구스는 바로 그 과정의 결정적인 단계에 있었습니다.

우리 땅이 받았던 은총에 대해 여러분께 설명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단지 대륙이 아니라, 행성의 에너지 중심지였고, 신불(神佛)의 특별한 축복을 받아 신력(神力)이 풍부하게 가피(加持)된 곳이었습니다. 이 신성한 에너지 덕분에 이곳의 모든 생명은 월등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 아틀란티스인들은 본래 높은 지혜를 가졌는데, 더욱 총명하고 건강하며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긴 수명을 누렸습니다. 나무는 이상할 정도로 무성했고, 과일은 풍성했으며, 순수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훨씬 더 크고 건장했습니다. 같은 품종의 말이라도, 아틀란티스 땅에서 자란 말은 키가 한 배 반은 더 컸고, 갈기는 윤기가 흘렀으며, 힘과 지능도 다른 대륙의 동족들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바로 이 은총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신불에 대한 깊은 신앙심과 존경심을 가졌고, 그것을 모든 번영의 근원으로 여

졌습니다. 우리의 과학 또한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는 기계나 연료를 태우는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우주 에너지 자체를 이해하고 운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크리스탈 기술을 통달했고, 그것을 사용하여 도시 전체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고, 공중을 가볍게 나는 이동 수단을 운행하며, 병을 고치고, 원거리 통신을 하는 등... 모든 것이 조화로웠고 인간과 신의 연결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아틀란티스 사회는 최고 평의회와 정예 귀족층, 저와 같은 대사제들이 정신적 역할을 맡고, ‘크리스탈 마스터’ 계층과 부유한 상인, 그리고 장인과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층위가 명확했습니다. 모두가 맑고 번영하는 환경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빛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후대 세대들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갖추게 되자, 기술이 주는 번영과 편리함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신불에 대한 초기의 감사와 존경심은 점차 식어갔습니다. 일부 민중과 엘리트 계층은 자신들의 우월함이 더 높은 세계의 은총이 아니라, 아틀란티스인 자신의 지혜 덕분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문명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은 교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기술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털 에너지를 조화롭게 생활에 봉사하도록 사용하는 대신, 그들은 점점 더 정교한 향락을 위한 편의 시설, 통제 도구,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그것을 착취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최고 평의회 내부에서조차, 분열이 암암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신에 대한 경외심과 전통 도덕을 유지하려는 우리 진영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에너지 기술의 대가인 마그누스 (Magnus)가 이끄는, 점점 더 ‘유물론적’이고 실용적인 경향을 보이는 진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틀란티스인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사제로서, 저는 이 사상의 변화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위험을 인식했습니다. 저는 아틀란티스가 신불에 대한 경외심과 연결을 잃는 순간, 그들 힘의 근원이자 보호막 자체를 잃게 될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은총은 주어질 수 있다면, 거두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평의회에서 자주 목소리를 높여, 영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교만과 물질적 향락에 빠지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며, 결국 이 땅이 더 이상 축복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주(主) 크리스털들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의식을 주관하고, 더 높은 정신적 힘과 다시 연결하려 노력했으며, 젊은 세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제 경고들은 마그누스 진영에 의해 묵살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불’이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일 뿐, 인간의 능력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진정한 힘은 과학자들의 손에, 에너지 크리스털에, 그들이 제작할 수 있는 기술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지위와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첨단 에너지 무기를 개발하고 싶어 했고, 아틀란티스인이 운명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고 암암리에 선전했습니다. 그것은 극도의 오만이었고, 자신의 근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명성과 정신적 영향력으로 인해, 그들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정면으로 맞서기를 꺼려, 더 정교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폭력이 아닌, 저를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저를 끌어내리기 위한 은밀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건강이 이상하게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예전처럼 맑지 않았고, 몸은 자주 피곤했으며,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의식을 주관할 때, 저는 제 영적인 연결이 뚜렷하게 약해지는 것을 느꼈고, 기도 또한 예전만큼 힘이 없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거나, 쇠퇴하는 아틀란티스 전체의 ‘공업(共業)’이 제게 영

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를 겨냥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나중에,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에서야, 저는 어렵
뜻이 깨달았습니다. 에너지와 특수 화합물에 대한 지식을
가진 마그누스 진영이 저를 은밀하게 ‘독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마도 교란 주파수를 방출하는 장치로 제 사무실의
에너지 환경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을 통해서였을 수도 있습
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 아니라, 정신과 신
체를 서서히 쇠약하게 만드는 화합물들이었습니다.

저의 쇠약한 모습이 날로 뚜렷해지자—때로는 말이 어눌
해지고, 때로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마
그누스 진영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엘리트 계층 사
이에 소문을 퍼뜨렸고, 리구스 대사제가 ‘더 이상 하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 ‘영험함을 잃었다’, 그리고 ‘아틀란티
스의 정신을 이끌 만큼 더 이상 총명하지 않다’고 서로에
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의회 회의에서 무력해 보
이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교묘
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제 명성은 점차 훼손되었습니다. 저를 존경했던 사람들조
차도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의회에

서 제 제안들은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했고, 쉽게 무시되거나 거부되었습니다. 제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가끔은 가벼운 뇌졸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 말이 조금 어려워지고 움직임이 굼뻐졌습니다.

마침내,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되자, 실용주의 진영은 평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많은 공헌을 한 대사제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정은 거짓된 애도의 말과, 이미 동요된 다수의 무관심 속에서 쉽게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강요받았고, 실질적으로는 제 저택에 연금되어 어떠한 권력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가장 고통스러운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타격, 저를 안에서부터 진정으로 파괴한 것은,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제게는 엘라라 (Elara)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희망이었고, 제가 모든 사랑과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며 언젠가 제 정신적인 길을 계승하기를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하지만 그는 아직 너무 어렸고, 아마도 바깥세상은 너무나 유혹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직 자리에 있었지만 쇠약의 징후를 보일 때부터, 마그누스 진영은 엘라라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엘리트들의 모임, 기이한 음식과 음료가 있는 호화로운 파티, 그리고 모든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빛과 소리로 된 오락의 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권력과 향락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유’라는 명목 아래, 부유한 지역에 퇴폐적인 유흥업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에너지 기술을 사용하여 환영과 자극적인 소리, 그리고 현실을 잊게 만드는 마약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여전히 충성스러운 하인들을 통해, 저는 제 아들 엘라라가 그곳에 한 두 번만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길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라이라 (Lyra)라는 미녀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아름다웠고, 똑똑했으며, 항상 엘라라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엘라라의 재능을 숭배했고, 그의 ‘답답함’에 공감했으며, 그가 새로운 질서에서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미래를

그러주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젊은이였던 엘라라는 사랑과 명예의 취기에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실각했을 때, 엘라라는 라이라와 마그누스 진영의 ‘후원’을 받아 과학기술 평의회의 한 직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일을 결정할 권한은 없는 명목상의 자리였지만, 그가 호화로운 장소에 나타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엘라라는 공개적으로 마그누스 진영을 지지했고, 심지어 아버지의 ‘시대에 뒤떨어진’ 관점을 던지시 비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인들을 통해 전해 듣고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했습니다.

바로 라이라가 제게 에너지 대가들에게서 받은 ‘보약’이라는 것들을 자주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녀는 엘라라에게 그것들이 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건강을 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라라는, 순진함과 다른 방식으로 효자임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들을 직접 제게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것들, 그 약초 차와 작은 에너지 크리스털들이 바로 제 정신과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것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가 ‘약’을 가져오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비틀리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폭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무너뜨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엘라라가 ‘중용’되던 시기는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권력의 환상 속에서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저를 찾아올 때마다 그의 영혼 속 불안과 공허함을 여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를 피했고, 아틀란티스의 ‘발전’에 대한 공허한 이야기를 하다가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제 명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제가 그저 병든 노인으로 근근이 살아가게 되었을 때, 엘라라 또한 이용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마그누스 진영은 그를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경험이 아직 미숙하다’, ‘이 자리는 더 전략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라 또한 점차 냉담해졌고, 결국 그를 떠나 다른 권력자를 따라갔습니다.

엘라라는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던 자리에서 비참하고 무정하게 밀려났습니다. 그는 명예와 사랑을 모두 잃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밤, 그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달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바둑판 위 줄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저

는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화나면서도 가없고,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른 그 순진함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비극은 바로 저의 비극이었고, 화려한 약속에 속았던 아틀란티스 한 세대 전체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와 여전히 굳건한 신앙을 지키고 있던 나머지 대사제들은 완전히 앓아서 죽기만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고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틀란티스’라는 배는 방향을 바꾸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명분으로 위장한 비밀 회합에서, 우리는 마지막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신을 등진 사회 전체를 구원할 희망을 갖지 않았고, 단지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씨앗들을 보존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피를 위한 준비 계획을 비밀리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에는 우리가 아직 보유하고 있는 가장 진보된 기술을 사용하여 거대한 배를 건조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배들은 거친 대양을 건너고 우리가 곧 닥칠 것이라고 예감한 재앙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거대한 작업이었고 절대적

인 비밀 속에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마그누스 진영이 발견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파괴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연금 상태이고 건강이 쇠약했기 때문에, 단지 조연과 기도로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엘라라의 몰락 이후, 저는 저택에 더욱 칩거했지만,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변화들을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마그누스 진영이 시작한 도덕적 침식 과정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 아틀란티스의 영혼을 뿌리부터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술의 변질을 통해 보았습니다.

(소년 리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 케이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기이하게 날카로워졌다.)

아세요, 이것은 저로 하여금 우리 지금 시대를 생각하게 해요. 제가 아틀란티스의 기괴한 추상화들을 돌이켜볼 때, 저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며 뒤틀리고 혼란스러운 형상에 수억 달러의 값을 매기는 피카소나 반 고흐의 작품들을 떠올립니다. 심지어, 저는 신문에서 진짜 바나나 한 개를 접착테이프로 벽에 붙여놓은 것뿐인 ‘예술 작품’이 수백만 달러에 팔렸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당시 아틀란티스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스꽝스럽고 비합리적인 것들을 칭송하며, 그것을 ‘창조’라고 여겼습니다. 일부 화가들은 더 나아가, 마귀의 형상이나 끔찍한 광경까지

그렸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유로운 자아’의 예술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 안에서 지극히 부정적인 에너지와 신성한 것에 대한 조롱만을 보았습니다.

(소년은 마치 중요한 비밀을 나누고 싶은 듯,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아세요, 그것들은 단지 그림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그것들을 만든 자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날 ‘현대’나 ‘추상’ 미술관에 들어가서, 그 그림들을 보고, 그것들이 정말로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며, 심지어 수억 달러의 가치를 느낀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주파수가 그 그림들과 공명하고 있다는 뜻이고, 즉 그 그림들 뒤에 있는 혼란스럽고 변이된, 심지어 마성(魔性)의 에너지와 공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마귀와 공감하게 되면, 우주의 마지막 심판에서 그 또한 그들의 일부로 간주될 것이고, 신에 의해 도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 그림들을 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불편하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거나, 혹은 ‘이것들은 정말 기괴하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징조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여전히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으며,

신께서 인간에게 정해 주신 원초적인 선악의 기준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수함이 재앙이 닥쳤을 때 신불의 보호를 받을 희망의 티켓이 될 것입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다시 아틀란티스에 대한 회상으로 돌아왔다.)

음악 또한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지금과 매우 비슷하지 않나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괴한 옷차림을 하고 무대에서 무의미한 가사를 외쳐대는 가수 그룹에 열광하는 지금 말입니다. 당시 아틀란티스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려하고 고상한 선율, 우아한 전통 춤은 점점 더 밀려났습니다. 대신, 유흥업소들은 강하고, 몰아치며, 귀가 찢어질 듯한 리듬의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름다운 춤을 추지 않고, 기괴하고 선정적인 동작의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에너지를 해방’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단지 인간의 가장 저급한 욕망을 자극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리구스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두 시대 모두 매우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전(神傳) 문화가 버려지고,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변이되고 추악한 것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

다. 인간을 신께서 정해놓은 도덕 기준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여, 인간이 더 이상 참과 거짓, 선과 악,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신과의 연결을 완전히 잃었을 때, 재앙은 매우 빠르게 닥쳐올 것입니다.

(리버는 마치 두 시대의 슬픔을 어깨에 짊어진 듯 한숨을 쉬고는, 미처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것처럼 문화와 도덕이 썩어버린 사회의 기반 위에서, 아틀란티스의 그 유물론자들은 그들의 가장 어두운 야망을 현실화했습니다.

그들은 ‘빛의 신장(神杖)’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휴대용 무기를 만들었지만, 우리, 남은 사제들은 그것을 그것의 진짜 이름인 ‘파괴의 신장’으로 불렀습니다. 그것은 짧은 지팡이 모양이었고, 특별한 크리스털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조준하고 활성화시키면, 그것은 분자 결합을 파괴하는 에너지 흐름을 방출하여, 목표물을 거의 즉시, 흔적도 없이 먼지로 분해시켰습니다.

이 무기의 생산은 극도로 비용이 많이 들었고, 가장 희귀한 크리스털을 필요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보편적인 무기가 아니라, 초호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 가격은 오늘

날 초부유층이 개인 섬 하나를 소유하는 것과 맞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론자 진영은 막대한 이윤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생산하고 판매하여, 절대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돈만 충분하다면—주로 타락한 엘리트나 대규모 범죄 조직—누구나 다른 사람을 지워버릴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법은 무의미해졌고, 생명의 가치는 극도로 경시되었습니다.

저와 남은 진정한 사제들은 그 ‘파괴의 신장’들을 공포와 비통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극도의 타락의 징표였습니다. 수행자의 손은 돕기 위해 있는 것이지,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버의 목소리가 메이는 듯했다. 그는 당시 리구스의 감정을 다시 살고 있었다.)

리구스로서의 제 영혼은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짓밟히는 것을 보며 무력감과 고통을 뚜렷이 느꼈고, 사랑하는 아들 자신이 무심코 악인에게 손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욱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몸은 날로 쇠약해지고, 정신도 더 이상 맑지 않아, 저는 그저 제가 경고하려 애썼던 길로 미끄러져 가는 아틀란티스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

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순식간에 먼지로 만들 수 있는
끔찍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아무나 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마치 전 재산처럼 희귀하고 비
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모두가 배후에는 건드릴 수 없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묵
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돈만 충분하면 당신
을 지워버릴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만
연한 두려움, 무력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도덕의 부패, 가장 사
랑하는 사람들에게서의 배신에서 시작된 한 문명 전체의
서서히 스러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전’, ‘자유’라고 환호했다는 점입
니다.

비록 리구스는 자신의 시대에 아틀란티스의 쇠락을 막는
데 실패했지만, 그의 노력과 굳건함은 무의미하지 않았습
니다. 그것은 비록 후대의 생애에서일지라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
고 제 영혼은 한 문명의 붕괴가 항상 칼과 창, 불꽃으로 요
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그
것은 사람들이 도덕 기준을 버리고, 욕망과 무절제한 자유

를 좇으며, 자신을 중심으로 여기고 신불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리구스 시대 이후 두세 세대가 지나면서, 아틀란티스 사회는 점점 더 타락했고, 한때 예외적이었던 악습들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인간은 신과의 연결을 잃고, 이기적인 과학 기술과 자신들이 만든 파괴적인 무기만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내부로부터의 부패, 인간이 신을 모독하고 스스로 은총을 저버리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거대한 압력 이야말로, 나중에 대륙 전체를 가라앉힌 대재앙의 깊은 원인이었습니다. 완전히 붕괴된 도덕적 기반 위에서, 실용주의 진영과 그 후손들이 펼친 이기적인 정책, 점점 더 끔찍해지는 에너지 무기의 개발과 자연 통제 기술의 남용은, 마침내 아틀란티스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것은 오만과 신을 등진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 * *

제 8 장: 나폴레옹의 부원신

(이번에 리버는 이전처럼 먼 곳을 응시하지 않았다. 소년은 나, 케이시를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매우 가깝고 개인적인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낯선 것을 담고 있어 이상하리만치 복잡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고 느려졌다.)

어떤 생에서는 제 영혼이 독립적인 생명체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 생에서는, 제 존재가 다른 운명, 전 세계를 뒤흔든 운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동행한 한 부원신(副元神)이었습니다.

(기록자 케이시 베일의 주석: 리버가 언급한 ‘부원신’이라는 개념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한 인간의 생명이 단 하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 영혼이 하나의 육체에 함께 거주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중 하나가 주인이 되는 영혼을 ‘주원신(主元神)’이라 하고, 다른 영혼들을 ‘부원신’이라 부른다. 그것들은 독립적인 의식이자, 별개의 영혼 부분들이다. 부원신은 관찰하고, 느끼며, 심지어 제안을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없다. 그 권한은 주원신에게 있다. 많은 경우, 주원신은 심지어 이러한 부원신들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한다. 리버는 그 생에서 자신이 바로 그러한 동행 의식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제가 나폴레옹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 의식의 일부가 그의 영혼의 그림자처럼 그와 함께하도록 안배되어, 야망이 넘치면서도 비극으로 가득 찬 한 영혼의

업력과 선택을 목격하고, 깊이 생각하며, 아마도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이 생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저는 유일한 부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미세한 세계 속에는, 위력 넘치는 주원신 외에, 저와 다른 부원신들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관찰자들과 같았고, 각자 별개의 의식 흐름을 가졌지만 하나의 큰 운명에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뭇잎의 감지와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야망의 거센 흐름 앞에서 무력했고, 제가 나중에 깨달았듯이, 외래의 조종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젊었을 때부터, 저는 그의 강렬한 에너지와 비범한 의지, 그리고 그를 재촉하는 어떤 ‘사명’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것을 바꿔버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때는 1794 년 7 월경이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약 25 세로, 젊지만 이미 뛰어난 재능을 드러낸 포병 장교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막사나 어떤 한적한 곳에 혼자 있을 때, 저는 갑자기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침입’을 느꼈습니다. 낮설고, 차가우며, 전혀 인간의 것이 아닌 에너지 흐름

이 나폴레옹의 의식을 뒤덮어, 그를 깊은 혼수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인간이 아닌 생명체—외계인—의 존재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 의식 속에서 명확한 형체를 가지지 않았고, 단지 고도로 발달했지만 감정이 없는 기술의 존재라는 개념뿐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주원신만 제압된 것이 아니라, 저와 다른 부원신들 또한 보이지 않는 압력을 느꼈습니다. 제 감응 능력은 마치 짙은 안개에 가려진 듯했고, 비록 주원신처럼 완전히 혼미하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보거나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을 통해, 저는 그들이 나폴레옹을 데려갔고, 아마도 그들의 비행선으로 데려갔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의식이 어느 정도 억제된 틈을 타, 그들은 그의 뇌에 초소형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작업을 실행했습니다. 전 과정은 수술처럼 신속하고, 정확하며, 냉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깨어났을 때, 그는 약간의 어지러움과 머리가 조금 멍한 느낌만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며칠간의 긴장으로 인한 피로나 가벼운 열병 탓으로 스스로 설명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의도적으로 교란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원신으로서의 저는, 그 ‘혼미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끔찍한 사건의 본질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후, 저는 나폴레옹의 뇌 속에 있는 ‘이물질’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조종하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이미 존재하던 것들, 즉 야망, 교만,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더 약한 목소리들, 즉 측은지심, 망설임, 양심을 침묵시켰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수련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나폴레옹의 주원신이, 그 증폭된 흐름을 완전히 따라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칩이 가져다주는 냉정한 결단력과 목표에 대한 높은 집중력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수련인이 아니었기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저와 다른 영혼 일부가 그에게 약간의 선한 생각을 심어주려 애쓸 때, 칩에 의해 자극받은 다른 영혼 일부는 대담한 계획에 심취해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모든 내면의 전쟁은, 그에게는

아마도 지도자의 전략적 숙고와 계산으로만 겉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의 군 경력은 이탈리아 원정에서 화려하게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장군도 생각해내기 어려울 듯한 군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사고의 날카로움과 비범한 논리는 저를 경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수반된 것은 무서운 냉정함이었습니다. 수천 명 병사들의 목숨은, 그에게는 마치 전략 지도 위의 숫자에 불과했고, 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그다음은 1798 년의 이집트 원정이었습니다. 저는 전략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고대 유적, 위대한 피라미드에 대한 기이한 호기심과 탐험의 열정, 거의 본능에 가까운 강한 충동이 그를 이 고대 땅으로 이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발치에서 거닐며, 사색에 잠긴 눈빛으로,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잊힌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인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 보이지 않는 연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과거의 위대한 문명에 대한 한 정복자의 존경심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이집트에서 혁혁한 명성을 안고 돌아온 후, 그의 야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브뤼메르 18 일의 쿠데타에서, 저는 그가 권력을 장악할 때의 결단력, 대담함, 그리고 극도의 무

모함까지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의 뇌 속 칩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신감을 극단까지 증폭시켜, 그가 통치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만의 절정은 1804 년 황제 대관식 날에 이르렀습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로마를 떠나 이곳까지 와야 했던 교황 비오 7 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나폴레옹은 교황이 자신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에 썼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원신의 극도의 만족감과 칩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내 재능으로 이 권력을 쟁취했다. 이 영광은 나의 것이다.”

대관식 이후, 나폴레옹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적인 의심 또한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칩은 그 두려움을 증폭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직후 당기앵(d'Enghien) 공작 처형 사건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왕당파의 음모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나폴레옹은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이 공작을 의심했습니다.

공작을 납치하여 재판하려는 결정이 형성될 때, 저는 온갖 방법으로 막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에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회의, 공정한 재판의 이미지, 그리고 왕족을 억울하게 처형할 경우 역사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분노, 암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마이크로칩으로부터의 강력한 ‘활성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절대적으로 단호하게 행동’하고, 본보기로 ‘위협을 싹부터 잘라버려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결정은 냉정하게 내려졌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공작은 총살당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후, 저는 칩으로부터 섬뜩한 ‘정적’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포를 통해 숙주의 권력을 공고히 한 것에 만족하는 듯했습니다.

국내의 위협을 철권으로 잠재운 후, 나폴레옹은 다시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아우스터리츠, 예나에서의 혁혁한 승리는 유럽 전체를 굴복시켰고,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진정으로 무적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부에 있던 저는, 점점 더 커지는 슬픔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권력에 취해갔고, 사람의 목숨을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저의 만류 노력은 점점 더 약해졌고, 승

리의 환호성과 칩에 의해 끊임없이 증폭되는 자만심에 문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맹목적인 자신감이 첫 번째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 즉 1807 년의 스페인 침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그곳의 왕조를 전복시키고 자기 형을 왕위에 앉혔으며, 모든 일이 다른 국가에서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계획이 싹틀 때, 저는 그에게 경고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고 신앙심 깊은 민족이 결코 외국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험준한 산악 지대, 조잡한 무기를 들었지만 증오에 찬 눈빛을 한 농민들—어떤 정규군도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인민 전쟁—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만의 절정에 있던 나폴레옹은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그 불안한 예감을 소심함으로 여겼습니다. 칩은 다시 그를 재촉하여, 보나파르트 가문이 유럽 전체를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그는 그 결정이 피비린내 나는 유격전을 촉발하고, 이후 수년간 그의 제국을 끊임없이 피 흘리게 하며, 무수한 생명과 재산을 소모시킬 ‘스페인의 종양’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스페인의 종양’은 제국을 끊임없이 피 흘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의 한계에 대한 교훈을 얻는 대신, 칩에 의해 부추겨진 나폴레옹의 오만은, 자신의 절대 권위를 다시 한번 확립하기 위해 더욱 위대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고 그를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가 러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 때였습니다.

(부원신의 이야기는 더욱 무거운 색채를 띠며 계속된다.)

가장 큰 비극, 한 제국 전체의 붕괴의 시작점을 알린 사건은, 바로 1812 년의 러시아 침공 결정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나폴레옹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을 때, 저는 끔찍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모든 올바른 생각, 그리고 아마도 저 연약한 측은지심을 가진 영혼의 부분까지도, 모두가 만류를 외쳤습니다. 그의 얇은 잠 속에서, 저는 가능한 한 가장 현실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려 애썼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 눈보라 속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군대, 그리고 하얀 눈 위에 묻은 짙은 붉은 피. 저는 그에게 러시아의 절망적인 광활함, 그곳 사람들의 극도의 끈기, 그리고 의지마저 얼려버릴 수 있는 추위를 느끼게 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의 오만은 이때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군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칩, 저는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위대한 무모함’을 부추겼고, 유럽 전체를 자기 발아래 둘 마지막 휘황찬란한 승리의 이미지를 그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현실의 장군들로부터의 만류든, 저와 같은 내면의 조용한 목소리로부터의 만류든, 모든 것은 소심함, 비관주의로 치부되어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은 제가 예견했던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의 강력한 대군은 러시아의 겨울과 그곳 사람들의 용맹함에 삼켜졌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통해 충성스러운 병사들이 퇴각 길에 얼어 죽는 광경, 말들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는 광경, 그리고 생존자들의 얼굴에 드리운 극도의 절망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조차도, 그의 오만은 그가 실수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의 패배는 그의 제국의 기반을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피지배 국가들이 봉기하기 시작했고, 옛 적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비록 그가 그 후에도 재치 있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바닥에 구멍이 난 배를 구하려는 마지막 노력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패배하여 엘바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이 시기, 권력과 영광을 잃었을 때, 저는 마이크로칩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 외래 세력은 ‘나폴레옹 실험’이 끝났다고, 더 이상 개입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칩의 ‘침묵’은 희귀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 나폴레옹의 사색은 더 ‘맑고’ 진실해졌습니다. 강력한 교란이 없자, 우리의 양심의 목소리가 그와 더 쉽게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실수와 결정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야망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다시 번쩍었습니다. 그는 엘바를 탈출하여, 휘황찬란했지만 짧았던 백일천하를 위해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칩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고, 전쟁 기계가 다시 한번 가동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빛일 뿐이었습니다. 워털루 전투가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양 한가운데 외딴 섬, 세인트헬레나로의 두 번째 유배가 진정으로 그의 인생의 종착점이었습니다. 그곳,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더 이상 전장도, 군대도, 환호성도 없는 곳에서, 칩은 거의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무생물체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제가 그의 주원신과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말이 아니라, 깊은 사색의 흐름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파란만장했던 한평생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운명에 대해, 비록 그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삶을 이끈 듯한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해 막연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후회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날, 저는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곤하고, 업력에 무겁게 짓눌렸지만, 마침내 야망과 갈등, 그리고 쇠진한 육체의 족쇄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과 남은 다른 부원신들의 분리 또한 느꼈습니다. 우리의 동행 사명은 끝났습니다. 비극으로 가득 찬 한 위인의 그림자로 살았던 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리버는 부원신으로서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멈추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고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열 살 소년의 맑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나이를 뛰어넘는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것이 제 부원신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련하고 천목으로 다시 보니, 당시 부원신조차도 몰랐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주원신은, 아주 먼 옛날의 한 생에서, 바로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거인 문명, 중천국의 네 번째 대사제였습니다. 아마도 이 예정된 인연이 그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이집트 원정을 감행하도록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정에는 숨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머물던 중 드문 꿈속에서, 그는 한 신의 점화(點化)를 받았습니다. 그 신은 그에게 후대 문명의 한 사악한 사제가 스텝핑크스의 인당에 부적을 걸어, 그 무신(武神)의 보호 에너지를 봉쇄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신의 인도에 따라, 나폴레옹은 포병에게 바로 그 위치를 향해 발포하라고 명령했고, 성공적으로 부적을 해제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신성한 사명을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 나폴레옹 정복 전쟁의 진정한 천의는, 넓고 부패한 유럽의 봉건 질서를 타파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정신 문화유산을 파괴로부터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의 계획을 정확히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극은, 칩에 의해 교만심이 증폭되어,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전공이 신의 안배나 은총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 덕분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 이기적이고 오만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무수한 업력을 만들게 했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케이시, 제가 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하고 지혜의 일부를 열면서, 우리 모두—나폴레옹의 주원신과 부원신들—가 이 시대에 함께 사는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는 미국 소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사람은, 제가 느끼기에, 지구상의 각기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번 생에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만, 그들이 그 휘황찬란하면서도 죄로 가득 찼던 과거를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모두가 따파가 널리 전해지는 시기에 함께 나타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심었던 업장을 진정

으로 씻어내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되찾으며, 완전히 다른 길—진선인(眞善忍)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기회일 것입니다.

* * *

제 9 장: 먼지의 증인

(리버는 한숨을 나직이 내쉬었고, 그의 눈빛은 맞은편 벽의 한 점을 무심히 응시했다. 마치 매번의 이야기가 시간의 먼지를 한 겹씩 뒤집어쓰는 것 같았고, 이번의 그 먼지는 황량함의 붉은빛과 수백만 년에 걸친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한 황금 세계의 황혼

한 생에서는, 저는 오늘날 여러분이 아는 지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 4 천만 년 전의 다른 문명 주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거의 30 세의 여성이자, 전통 도예가였습니다. 당시 제 이름은, 현대 언어로 발음하면, **아리아(Aria)**와 비슷하게 들렸습니다. 당시 우리의 언어 또한 매우 달랐고, 문자보다는 소리의 주파수와 공명에 더 많이 의존했습니다.

당시 제 세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의 정점이었습니다. 도시들은 반짝이는 합금으로 지어져, 햇빛을 반사하며 움직이는 무지갯빛 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음 없는 비행선들이 마천루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류는 이미 태양계 밖으로 쉽게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무서울 정도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분위기는 차갑고 무감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기술이 만들어낸 쾌락에 빠져, 자연과 영적인 가치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저, 아리아는 그 세계 속에서 오아시스처럼 살았습니다. 제 도예 공방은 아직 돌로 지은 건물들이 남아있는 오래된 거리에 있었습니다. 매일, 저는 제 두 손이 진흙으로 더러워질 때 평온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저는 흙 한 줌 한 줌에서 영혼을 느낄 수 있었고, 물과 불이 어우러질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세상은 더 이상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계로 대량 생산된 ‘완벽한’ 제품, 산업적으로 아름답지만 완전히 영혼이 없는 것들을 선호했습니다. 도예 공방의 매출은 날로 줄어들었고, 저는 그저 옛것을 그리워하는 소수의 사람들, 사람의 손길이 담긴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 여전히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도예 공방의 정적 속에서, 저는 소외감과 회의를 느꼈고,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세계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국제 연합 평화회의로부터 긴급 공지가 행성 전역에 발송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지구상의 약 50 개 국가 대표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오늘날의 유엔과 유사하게 전 지구적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평의회 의장의 차갑고 무감각한 목소리가 모든 화면에서 울려 퍼지며, 먼 성계에서의 ‘외교적 사건’에 대해 알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정보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 새어 나오기 시작했고, 공황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담한 공격이었습니다. 바로 국제 연합 평의회가 승인한 야심 찬 프로젝트였던 지구의 자원 탐사 함대가, 다른 종족의 영토를 침범했다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우리보다 몇 배나 더 진보된 문명을 가진 그 외계 종족이, 보복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끝까지 추격하여 파괴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란과 공포가 만연했습니다. 평의회 회원국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해 항상 자부심을 갖고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유물론자 지도자들은, 이제 처음으로 완전한 무력감에 직면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긴장되고 논쟁적인 회의 끝에, 국제 연합 평의회는 ‘씨앗 보존’이라는 이름의 절망적인 마지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종족을 보존할 희망으로, 각 회원국에서 여러 분야의 우수한 개인들을

선발하여 거대한 비행선에 태워, 태양계 내 다른 행성의 비밀 기지로 대피시킬 것이었습니다.

제가 선택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제 나라가 제시하고 평의회가 승인한 이유는, 제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숙련된 전통 예술가 중 한 명이자,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의 대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기며 거의 잊어버렸던 예술이, 이제는 탈출에 가져가야 할 귀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떠나는 날, 저는 제 도예 공방 앞에 마지막으로 섰습니다. 가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몇몇 미완성 작품들이 물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했습니다. 제 평생과 심혈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저는 단지 작은 도구 상자 하나, 제가 기술을 배울 때부터 함께했던 물건들만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제 영혼이었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붉은 행성의 비밀

화성으로의 여정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거대한 비행선 안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동자세로 앉아,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평소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한 유명한 과학자가 이제는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던 한 부유한 가족이 이제는 서로를 꺼안고 흐느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교만, 명예, 돈은 곧 닥칠 파멸 앞에서 무의미해졌습니다. 모두가 창문에 눈을 고정하고, 아름다운 푸른 행성이 점점 작아지고 흐려져, 마침내 광활한 우주 속 한 점의 빛으로 남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우리 비행선은 공개적으로 표면에 착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고 황량한 협곡으로 날아 들어갔고, 이내 절벽처럼 완벽하게 위장된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며, 땅속 깊이 이어지는 터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비행선에서 내렸을 때, 저와 같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지하 도시가 있었고, 높이 솟은 돔 천장의 인공 태양에 의해 밝혀져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푸른 식물 숲과 졸졸 흐르는 맑은 지하 강이 있었

습니다. 공기는 맑고 쾌적했습니다. 이 기지는 수백만 명을 쉽게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놀라워하는 동안, 저는 일행 중 과학자들과 관리들의 표정이 꽤 평온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중이야 알게 되었지만, 그들은 이미 수년 전 우주 탐사를 통해 이 기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비밀의 문을 찾아 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성이 대피 장소 중 하나로 선택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이 위대한 건축물이 우리 문명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래되었고, 건축 양식과 운영 기술은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잊혀진 누군가의 유산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을 뿐, 그것을 해독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행 중 과학자들이 우리를 기지의 중앙 기록 보관소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탐사에서 이곳을 발견했지만, 정보원에 접근하는 데는 완전히 무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의 정보는 어떤 형태의 문자나 디지털 데이터로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크고 투명한 크리스털 덩어리 안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모든 기술적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아마도 그것이 영적인 상호작용, 즉 의식의 연결을 요구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저와, 민감한 영혼을 가진 몇몇 다른 사람들, 즉 예술가들과 시인들을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운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큰 크리스털 덩어리에 손을 얹자, 즉시 정보, 이미지, 소리, 그리고 감정의 폭포가 폭풍처럼 제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문명, 제 시대보다 9 천만 년이나 앞서 존재했던 한 문명의 삶을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모든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우리 문명보다 몇 배나 더 진보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태양계 밖으로 걸음마를 떴었다면, 그들은 이미 이 은하수 전체를 자신들의 뒷마당처럼 여겼습니다. 저는 양자 에너지 엔진을 사용하여 공간을 왜곡시켜 거의 즉각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대한 비행선 함대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은하계 전체의 3 분의 2 에 달하는 성계들을 정복, 통치하거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항성 간 제국’은 단지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주를 아우르는 권력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휘황찬란한 이미지들은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혐오스러운 광경들로 바뀌었습니다. 대적할 자 없는 권력으로, 그들은 극도의 타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자신이 호화로운 대연회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전자가 변형된 귀족들이 직접적으로 감정을 조종할 수 있는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몸에서 나는 장미 향기가 공간 전체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하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구석에서는, 에너지로 만든 새장 안에 다른 행성에서 온 기이한 형태의 생명체가 갇혀 있었고, 군중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동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은하계의 3분의2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무수한 죄악을 저질렀고, 무수한 종족을 노예로 잡았습니다.

저는 혐오감을 느꼈지만, 그 타락의 핵심에서 무서운 유사점 또한 인식했습니다. 극도의 교만,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병적인 쾌락을 찾아 채워야 하는 극도의 공허함. 것처럼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그들의 도덕은 안에서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은하계의 나머지 3분의1을 정복하려 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조차

도 대항할 수 없는 세력, 즉 염소자리 성단에서 온 반인반수(半人半獸) 종족을 건드렸습니다. 붕괴는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때 우주를 지배했던 제국이 단기간에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기억의 흐름이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반복과 각성

저는 제가 목격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 애썼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중앙 통제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비명 소리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 천만 년 전 한 문명의 비극이, 바로 우리 자신의 운명을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잔인하게 반복되었습니다. 기지의 경보 시스템이 울렸습니다. 거대한 함대가 지구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주 화면에서, 우리, 화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우리 고향 행성의 심판의 날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끔찍한 에너지 무기가 지구를 향해 발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행성은 소리 없는 폭발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구는 생명력 넘치는 푸른 구슬에서, 검게 타버린 음울한 구슬로 변했습니다.

고통과 절망은 이때 극에 달했습니다. 사방을 누비며 싸웠던 한 늙은 장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장 자신감 넘쳤던 한 과학자가 이제는 아이처럼 머리를 감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차가운 공허함을 느꼈을 뿐입니다. 고대 문명의 기억을 통해 이 결말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황 속에서, 기지의 모든 입구를 봉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땅속 더 깊이 숨어들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기지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식량은 엄격한 배급제로 나뉘었습니다. 침묵이 만연했고, 아이들조차 더 이상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하지만 셋째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적의 함대가, 화성 주위를 몇 바퀴 더 돈 후에, 다시 모여들더니…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존재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깊은 허공 속으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기지는 망연자실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공동의 인식이 각자의 마음속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힘에 의해 보호받았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신불(神佛)에 의해 구원받았다.

이 기적적인 사건은, 제가 목격한 반복되는 역사 이야기와 더불어, 공동체 전체에 충격적인 각성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기지의 가장 큰 대강당에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평범한 예술가였던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역사를 다시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과 법칙, 교만의 위험성, 그리고 유물론적 길에 대한 제 성찰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진심 어린 말은, 모든 사람이 방금 겪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과 더불어, 강력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과학자들, 지도자들은, 극도의 무력감을 겪은 후, 우리 문명이 선택했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중대한 결정이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 내려졌습니다.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버리고, 전통적인 가치로 돌아가며, 소박한 삶을 살고, 손으로 하는 노동에 의지하며, 내면의 발전에 집중하고, 신과의 연결을 되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혁명 속에서, 저, 아리아, 거의 잊혀졌던 도예가는, 갑자기 중심인물이 되었습니다. 제 예술은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수공예들과 함께, 영혼이 있는 사회를 재건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술가의 사명

화성의 땅속에서 보낸 수십 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를 게으르고 소원하게 만들었던 자동 기계 대부분을 켜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공 정원에서 우리 손으로 땅을 경작하는 법, 식물의 섬유로 천을 짜는 법, 간단한 도구로 집을 짓고 수리하는 법.

제 도예 공방은 공동체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흙의 영혼을 느끼는 법, 인내와 사랑으로 무심한 진흙덩이를 그릇이나 병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한때 많은 상을 받았던 한 과학자가, 비록 비뚤어지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손수 첫 번째 컵을 성공적으로 빚었을 때 그의 눈에서 반짝이는 기쁨

을 보았습니다. 그 기쁨은 그들이 이전에 이루었던 어떤 기술적 성취보다도 더 진실했습니다.

지구가 파괴된 지 약 수십 년 후, 관측 시스템은 우리 행성이 점차 스스로 치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기는 점차 맑아졌고, 몇몇 곳에서는 식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돌아가야 하는가, 아닌가?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화성이 유일하게 안전한 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우리가 돌아가 잿더미에서 고향을 재건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동체의 절반은 지구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화성에 남아, 이 기지를 예비 방안이자 과거에 대한 상기(想起)로서 유지할 것입니다. 이번의 작별에는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굳은 포옹과 약속,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구로 돌아왔을 때, 저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고, 새로운 문명의 도예 산업을 이끌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 사명이 이제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남은 평생 동안 계속될 위대한 프로젝트, 조용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련의 도자기 걸작들을 제작했는데, 각 작품은 저와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억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그 위에 ‘항성 간 제국’의 위대한 비행선들, 그들의 호화롭고 퇴폐적인 연회 장면들을 새겼습니다. 저는 또한 흥포한 염소자리 종족의 모습과 은하계의 3 분의 2 를 지배했던 제국의 붕괴도 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 즉 교만, 징벌, 대피, 그리고 화성의 땅속에서의 각성도 다시 새겼습니다.

각 작품은 깊은 명상의 과정이었고, 제가 모든 비통한 기억과 뼈아픈 교훈을 다시 살아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두 손은 진흙을 빚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미래를 위한 경고를 빚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후, 이 작품들은 어디에도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장엄한 의식을 통해 특별한 천으로 싸여, 돌로 만든 상자에 담겨, 전 세계 각지의 외딴 장소에 묻혔습니다. 흙을 덮기 전에, 우리는 함께 상자에 손을 얹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미래 문명의 사람들이, 만약 인연이 있어 이 ‘증인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

지를 이해할 충분한 지혜와 선한 마음을 가져, 파멸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말년에는 더 이상 도자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법(佛法) 수련과, 제 모든 기술과 경험, 그리고 성찰을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데 온전히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 겸손함, 그리고 신불에 대한 경외심도 배웠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 저는 여든이 넘었습니다. 저는 제 임종의 순간을 미리 알았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기술과 도덕의 불꽃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시작했던 낡은 도예 공방에서 좌선 자세로 앉았습니다. 진흙 냄새와 은은한 향 연기 속에서, 저는 티베트의 일부 고승들이 좌화(坐化)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은 황금빛 후광이 잠시 제 몸을 감쌌고, 맑고 기이한 향기가 방 전체에 퍼졌으며, 옷을 포함한 제 몸 전체가 오색 빛줄기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리아의 삶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회의 속에서 시작되어, 상실과 절망을 겪었지만, 마침내 역사의 조용한 증인이자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서 사명과 원만을 찾은 삶이었습니다.

* * *

제 10 장: 당나라 시대의 환생

(이번에 리버의 목소리는 사라진 문명의 비장함이나 환상적인 분위기를 띠지 않았다. 그것은 어느 날 저녁의 사찰 종소리처럼 고요하고 부드러웠다. 소년은 마치 아주 평범하지만 비범한 끈기를 지닌 오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한 생에서는, 저는 그리 멀지 않은 시대로, 중국 역사상 황금기이자 불법(佛法), 특히 선종(禪宗)이 찬란하게 발전했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당나라 시대였습니다.

그 생에서 저는 왕이나 사제, 혹은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진강(陳康)이라는 이름의 무장이었고, 황제가 되기 전의 진왕(秦王) 이세민(李世民) 휘하에서 복무했습니다. 그 생에서의 제 삶은 전장의 칼소리에서 선문(禪門)의 고요함으로 향하는 거대한 전환이었습니다.

권력 다툼 속의 군인

저는 수나라 말년, 혼란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들판에는 흰 빠가 가득했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굶주린 나날, 약탈과 살육의 광경,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이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당공(唐公) 이연(李淵)이 수나라에 맞서기 위해 태원(太原)에서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열정 넘치는 젊은이였던 저는 제가 목격했던 고통의 현실을 끝내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 하나로 주저 없이 그곳으로 달려가 입대했습니다.

당시 저를 직접 모집하고 면접했던 사람은 바로 그의 둘째 아들, 진왕 이세민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저는 그의 비범한 기개, 별처럼 빛나는 눈빛, 그리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비록 거병은 명분상 당공의 것이었지만, 당시 제 마음속에서는 진왕이야말로 혼란을 쓸어버리고 백성에게 진정한 태평성대를 가져다줄 수 있는 명주(明主)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명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깃발 아래 제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전장에서 저는 뛰어난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싸웠고, 위험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여러 번 생사

를 넘나들었습니다. 한번은 매우 어려운 공성전에서, 우리 군대가 적의 불화살에 막혀 사상자가 늘어나고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때, 진왕께서는 안전한 지휘 막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직접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최전선으로 돌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공허한 구호를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 자신의 위엄과 용맹함으로 전군의 사기를 북돋우셨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저와 다른 병사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을 얻은 듯,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돌진하여 마침내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분을 따르면 반드시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다져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품은 매우 순박하고 솔직했습니다. 저는 계책을 쓸 줄도 몰랐고, 상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말을 교묘하게 할 재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과 제 이상에 충성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공을 세웠음에도, 저는 중간급 무장인 교위(校尉) 직책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게 직위는 매일 당나라의 강산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가 건국된 후, 태평성대가 온 듯했지만, 또 다른 전쟁, 더 무서운 전쟁이 바로 수도 장안(長安)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맏아들인 태자 이건성(李建成)이 왕위를 계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인 진왕 이세민이 천하를 평정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분의 공이 너무나 크고 위엄이 너무나 높아, 태자의 지위가 흔들렸습니다. 두 파벌 간의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었습니다. 넷째 동생인 제왕(齊王) 이원길(李元吉)과 함께, 태자 이건성은 여러 차례 진왕을 해치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당시 수도의 정치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진왕부의 우리 장군들과 병사들은 모두 폭풍이 곧 닥쳐올 것임을 느꼈습니다. 매일,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위험에 익숙한 군인의 예민함으로, 저 또한 만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하급 무장이어서, 궁궐의 깊은 계략과 음모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소박한 소망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디 왕자들이 강산 사직을 위해 서로 화해하여, 형제간의 참극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순진한 바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제 상관, 진왕의 측근 장군 한 분이 긴급 회의를 위해 부(府)로 소집되었습니다. 호위 역할로서, 저는 그분을 수행하여 서재 밖에서 경비를 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공기는 질게 가라앉아,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살짝 닫힌 나무 문틈으로, 저는 안에서 들려오는 낮고 계산적인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태자 이견성의 이름, 제왕 이원길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복’, ‘현무문(玄武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와 같은 단어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왕의 단호한 목소리, 장손무기(長孫無忌)와 다른 이들의 격렬한 지지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잔인한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형제들을 매복하여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제 세상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숭배하던 명주, 정의로써 태평성대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던 그분이, 형제 학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모든 이상이 순식간에 우스꽝스럽고 거짓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계획뿐만 아니라, 이 기계의 일부가 된 제 자신에게도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참여하

고 싶지 않았고, 그런 부도덕한 일로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 후,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용기를 내어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그날 성 밖에서 다른 임무를 맡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본래 긴장하고 계획에 온 정신이 쏠려 있던 상관은, 저를 차갑게 쳐다보더니 일축했습니다. “이것은 진왕 전하와 우리 모두의 생사가 걸린 순간이다. 나약함을 보일 자리는 없다. 너는 진왕부의 군인이니,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의 변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군인의 신분, 상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제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번고가 일어난 날, 현무문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저와 제 부대는 태자 측의 원군이 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곽 경비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직접 손을 쓴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말의 울음소리, 끔찍한 비명 소리, 짧고 잔혹하게 부딪히는 병장기 소리, 그리고… 죽음 같은 침묵. 그 침묵은 어떤 소리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잠시 후, 진왕 이세민이 현무문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옛날 전장에서의 영웅적인 명주의 모습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공허하며, 한 점의 온기도, 한 가닥의 감정의 파동도 없는 눈빛. 그것은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혈육의 정을 버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제 마음속의 ‘명주’ 이미지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이세민이 황위에 올라 당태종(唐太宗)이라는 시호를 받은 후, 온 천하가 새로운 역사의 장을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상은 죽었습니다. 형제의 피 위에 세워진 새로운 왕조의 영광은, 저에게는 단지 치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몸의 군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허리에 찬 검 또한 낯설어졌습니다. 저, 진강은, 이때 거의 마흔 살이었고, 피곤하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의 전쟁으로 건강이 쇠약해졌다는 핑계로 제대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내내 함께했던 군복과 검을 버리고, 변화한 도시를 떠나, 제 부서진 영혼을 꿰맬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정처 없는 방랑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조(五祖)의 발아래서 보낸 삼십 년의 침묵

방랑의 여정은 저를 동선사(東禪寺)가 있는 황매산(黃梅山)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자비로우면서도 꿰뚫어 보는 눈빛을 가진 선사, 오조 홍인(五祖 弘忍)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그분께 안락을 내려달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의지할 곳, 나아갈 길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마흔 가까운 나이에, 여전히 전장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장한 체구의 저를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머리를 깎고, 갈색 승복을 입었으며, 스승님으로부터 **현묵**(玄默)이라는 법명을 받았습니다.

선문에서의 첫 나날들은 제가 겪었던 어떤 전투보다도 더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육신과 마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움직임에 익숙한 무장의 육신은 이제 몇 시간씩 부동자세로 앓도록 강요당하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매번의 좌선은 극형이었습니다. 가죽 장화를 신고 쇠 등자를 밟는 데 익숙했던 다리는 이제 포개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부좌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만 지나도 수천 개의 바늘이 뺏속을 찌르는 듯한 통증, 불길이 등줄기를 따라 치솟는 듯

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말안장에서 곳곳이 펴는 데 익숙했던 허리는 이제 녹아내릴 듯 아팠습니다. 저는 다른 사형제들이 돌부처처럼 굳건하게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 동안, 끊임없이 몸을 뒤척이며 이마에 땀을 흘렸습니다.

몇몇 동문의 조언에 따라, 저는 자신을 틀에 맞추기 위해 혹독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작고 평평한 돌들을 양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무게가 다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 다른 때는, 밧줄로 두 다리를 결가부좌 자세로 꽁꽁 묶고, 뼈를 에는 고통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더욱더 야생마 같았습니다. 제가 고요해지려 애쓸 때마다, 전장의 피비린내 나는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얼굴들을 보았고, 다시 비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제가 현무문에 있는데, 제가 베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와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옛 동료인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목구멍에 막힌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고, 두 손은 여전히 칼자루를 쥔 듯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킁킁거리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것 봐, 전장의 육신

을 그대로 불문에 가져왔군.” 혹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어.” 저는 다 들었습니다. 무장의 자존심이 저를 화나게 했지만, 저는 그것을 재빨리 억누르고, 대신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조 홍인께서 지나가시다가, 제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고 두 돌덩이를 다리에 얹은 채 명상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멈추어 서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살며시 고개를 저으신 뒤 걸어가셨습니다. 다음 날, 그분께서는 저를 따로 부르셔서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돌로 다리를 누르고 밧줄로 몸을 묶어 결가부좌를 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 너는 이 육신을 야생마를 길들이듯 굴복시키려 하느냐? 네 이 육신은 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살업(殺業)을 지었느냐. 이제 조금 아픈 것이 무엇이 대수냐? 너는 만 개의 화살이 심장을 꿰뚫는 것도 견뎌오면서, 두 다리의 약간의 통증은 견디지 못하느냐? 이 고통이 바로 네 업을 소멸시켜주는 것이다. 너는 돌로 다리를 누르고 있지만, 네 마음은 여전히 고통과 싸우고 있다. 수행이란 마음을 닦는 것이지, 다리를 닦는 것이 아니다. 네 마

음이 더 이상 그것과 싸우지 않을 때, 돌이 있든 없든,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겠느냐?”

스승님의 엄격하지만 지혜로운 말씀은 제게 찬물을 끼얹는 듯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돌덩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제 집착심에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스스로 돌들을 치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기계적으로 명상에 억지로 앉지 않았습다. 저는 절에서 가장 힘든 일, 즉 장작 패기, 물 길기, 쌀 찹기를 자청했습니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물을 지고 언덕을 오를 때마다, 저는 온 마음을 그곳에 집중했습니다. 점차, 과거의 이미지들은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가라앉았습니다. 거의 십 년이 지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굳건하게 결가부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십 년, 마음이 안정되자, 저는 경전을 배우는 데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동선사에서는, 박식함에 있어서 신수(神秀) 대사형을 따를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교수사(敎授師)이자, 승려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저는 종종 대사형의 법문을 들으러 갔고, 그의 깊은 지식, 경전을

줄줄 인용하는 능력, 그리고 유창한 웅변술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저는 그를 등대, 제가 따라야 할 밝은 귀감으로 여겼습니다. 저 또한 신수가 했던 방식처럼, 많은 경전을 읽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해석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스승님께서 저를 점화(點化)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서재에서 경전을 베끼고 있을 때, 오조께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경전의 내용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단지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네가 이 글들을 베끼니, 네 마음이 평안하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더 아는 것이 많아진다고 느끼지만, 마음은 때때로 여전히 흔들립니다.”

오조께서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시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현목아, 네 근기는 문자에 있지 않다. 신수에게는 신수의 길이 있고, 너에게는 너의 길이 있다. 너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따라 배워서 안 된다.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네가 계속 손가락만 쳐다보면 어찌 달을 볼 수 있겠느냐? 네게 필요한 것은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불에 단련된 네 마음을 가라앉혀, 지혜가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책 읽는 것을 줄여라. 그저 장작을
패고, 물을 길고, 좌선을 하거라. 내가 네게 전수한
법문에 전념하여, 스스로 참오(參悟)하도록 하라.”

그 점화의 말씀은 제가 제 길을 다시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의 형식을 좇지 않고, 오로지
내면을 닦는 데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평온은
책 속의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 속의 정적
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의 마지막 몇 년은 혜능(慧能)이 나타났을 때였습
니다. 그때, 홍인 스승님은 연로하셨습니다. 오백 명이 넘
는 전체 승려들 사이에 큰 질문 하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
다. 누가 의발(衣鉢)을 계승하여 선종의 육조(六祖)가 될
자격이 있는가?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서, 대답은 이미 너
무나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신수 대사
형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교수사이자 승려들의 우두머
리였고, 종종 스승님을 대신하여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분
의 법문인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하
라”는 가장 정통하고 심오한 수행의 길로 여겨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절의 대부분의 스님들은 그분을 지극히 존경
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계승자로 생각
했습니다. 절의 분위기는 장엄하면서도 기대감에 차 있었

고, 모두가 스승님께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발표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선종의 운명이 그 박식한 교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온 글 모르는 나무꾼, 곧 절 문을 넘어서게 될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혜능이 절에 와서 부엌에서 쌀 찌는 일을 맡았을 때, 이때는 이미 연로한 스님이 된 저도 가끔 그 구역에서 잡다한 일을 맡곤 했습니다. 저는 노 행자(盧行者, 당시 혜능의 이름)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고 작은 사람을 보았지만, 쌀을 찌를 때, 매번 내리치는 절굿공이는 굳건하고 규칙적이었으며, 한 점의 원망이나 피곤함도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기이한 평온과 안온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쉬는 것을 보고, 저는 그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다주며 물었습니다.

“이처럼 힘든 일을, 매일 반복하는데, 행자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혜능은 그저 미소 지으며,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게 강한 충

격을 주었고, 저는 이 글 모르는 나무꾼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기반이 있었기에, 게(偈)를 짓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아시고, 어느 날 오조께서는 승려들을 모아 과제를 내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사의 일이란 큰일이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지혜를 살피, 만약 본성을 본 자가 있다면, 게송 하나를 지어 내게 보여라. 만약 대의(大意)를 깨달은 자가 있다면, 내가 의발을 전하여 육대조로 삼겠다.”

절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게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수 대사형이 많이 고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방 안을 서성였는데, 게송을 올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경지가 스승님의 심인(心印)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웠고, 올리지 않자니 스승님의 마음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그는 몰래 주 복도 벽에 자신의 게송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절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모두가 벽 앞에 모여 감탄했습니다. 스승님조차도 보시고는

칭찬하시며, 모두에게 이 계송에 향을 피우고 절하며 독송하면 악도(惡道)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대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하라.”

「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勿使惹塵埃。」

이 계송을 읽었을 때, 저는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과 대부분의 다른 형제들이 노력하여 따르고 있는 수행의 길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또한 ‘몸’을 보리수처럼 청정하게 유지하고, ‘마음’을 밝은 거울대처럼 깨끗하게 유지하려 애쓰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미진한 느낌, 그 ‘부지런함’ 자체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우리는 몰랐지만, 부엌에서, 쌀 찹던 행자는 이 계송을 듣고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래 글을 몰랐던 혜능은 다른 스님에게 부탁하여 신수의 계송 바로 옆 벽에 자신의 계송 하나를 썼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을 바꾸어 놓은 계송이었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티끌이 끼리오?”

「菩提本無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

그 네 구절의 계송을 들었을 때,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년간 공들여 닦아온 ‘거울대’를 산산조각 내는 벼락 망치와 같았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렇다, 만약 본성이 본래 공(空)이라면, 닦을 먼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제 이전의 모든 노력은 ‘있음(有)’에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혜능의 계송은 진정한 해탈의 길을 바로 가리켰습니다. 오랫동안 제 마음속 가장 큰 걸림돌이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저는 도를 얻지는 못했지만, 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쌀 찢던 그 행자야말로 진정으로 ‘견성(見性)’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조께서 혜능에게 비밀리에 의발을 전수하시고 그 날 밤 바로 떠나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조금도 놀라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절 전체가 떠들썩하고, 일부 승려들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질투심을 품고 의발을 되찾으려 뒤쫓아갈 때, 저는 그저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좌선에 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때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정적 속의 원만

의발 전수의 폭풍이 지나간 후, 동선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뒷말이 있었으며, 신수 대사형에 대한 아쉬움과 남쪽에서 온 계승자에 대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제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비 온 뒤의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저는 절을 떠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제 수행의 길을 계속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애써 ‘닭으려’ 하지 않고, 그저 ‘본래 한 물건도 없음’ 속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저는 신통을 구하지도, 초월적인 경험을 겪지도 않았으며, 단지 날마다 내면의 정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일흔이 넘었을 때, 저는 대중과의 인연이 다했음을 느꼈습니다. 선문의 소란조차도, 제게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주지 스님께 허락을 구하고, 절을 떠나 근처 외딴 산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오롯이 수행하며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냇가, 고송 아래에 손수 소박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제 삶은 그때부터 지극히 단순해졌습니다. 제 벗은 구름과 산바람이었습니다. 시냇물 소리는 법문이었고, 소나무 노

래는 경전이었습니다. 매일, 저는 단 두 가지 일만 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육체노동과 좌선.

이십 년의 고독한 은거 수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한평생만큼이나 길었습니다.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저는 마지막 남은 집착들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장 진강의 모습, 진왕 이세민의 모습, 현무문 변고의 모습,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삼십 년 고행을 한 선사 현묵의 모습조차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볍고, 텅 비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는 날, 저는 아흔이 넘었습니다. 저는 제 임종의 순간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몸이 가볍고, 마음이 수정처럼 투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시냇가에 나가 얼굴을 아주 깨끗이 씻고, 가장 성한 승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초막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정갈하게 정리한 뒤, 오조 홍인 스승님께 마지막 감사의 인사를 올리듯, 황매산을 향해 좌선 자세로 앉았습니다.

저는 이상을 좇던 한 무장에서부터, 평온을 찾던 한 선사에 이르기까지의 한평생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냇물 소리와 소나무 노래 속에서, 저는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찬란한 후광도, 다채

로운 사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정한 평온을 찾은 한 늙은 군인, 자신만의 길을 완수한 한 무명 선사의 평온한 떠남만이 있었습니다.

(소년 리버는 이야기를 마치자,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빛났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기이한 것을 막 발견한 듯 말을 이었다.)

현목이 혜능의 계송을 들었을 때,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생에서 따파를 수련하면서, 저는 신수와 혜능의 두 계송에 대해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전혀 모순되지 않으며,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각기 다른 경지의 법리와 같습니다.

첫 번째 경지에서, 막 수행을 시작한 사람에게, 그들의 마음은 온갖 생각, 욕망, 업력으로 가득 차, 마치 먼지 낀 거울과 같습니다. 이때, 신수의 계송은 완전히 옳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닦아야’ 하고,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유위(有爲)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수련이 일정한 경지에 이르면, 그들은 갑자기 자신의 본성이 본래 깨끗하고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먼지’는 본래 가상(假相)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이때, 그들은 두 번째 경지로 돌파하며, 혜능의 계송(‘본래 한 물건도 없다’)이 그들에게 진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오(頓悟)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면, 저는 신수의 계송이 다시 올바르게 되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미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더 높은 차원에서, 모든 것이 그 층의 법(法)과 완전히 동화되었을 때, 혜능의 계송이 다시 올바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과정은 각기 다른 대경계(大境界)에서 그렇게 반복됩니다.

그것은 마치 수련의 사다리의 각 단과 같습니다. 어떤 단도 틀리지 않았고, 단지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맞는 단이 있을 뿐입니다.

(소년은 미소를 지었고, 자신의 발견에 매우 만족하는 듯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저는 현묵의 여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다리 단을 끈기 있게 걸어

올라갔고, 마침내 평온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천동지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깨달음은 현묵이 목격했던 육조 혜능처럼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조사(祖師)들과 같은 대지대혜(大智大慧)를 얻지 못하더라도, 한평생 끈기 있게 심성을 닦고, 진정한 해탈을 구하는 것 또한 매우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법륜대법 책을 읽고 연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인내에 대해, 그리고 내면을 닦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때로는, 가장 큰 진보는 내면의 조용한 변화 속에 있습니다.

* * *

제 11 장: 이름 없는 군사

(이번에 리버의 목소리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을 띠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그림 두루마리를 펼치는 듯했다. 두루마리의 전반부는 불길과 연기, 피로 새긴 맹세의 고통과

증오였다. 후반부는 선문(禪門)의 구름과 안개, 한 진정한 수행자의 고요함과 지혜였다. 소년은 곧 하나의 악연이 가장 기적적인 방식으로 선하게 풀리는 이야기를 하려 했다.)

이번 기억은 저를 한 인연의 빛으로 데려갔습니다. 피와 눈물로 쓰인 빛, 제 영혼이 13 세기 베트남, 당시 대월(大越)이라 불리던 이 땅에 오기 전의 한 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은거 선사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평범한 한 남자, 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이강(李剛)**이라는 사람의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일은 남송(南宋) 말기, 죽어가던 왕조의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사방에 만연했습니다. 하지만 북쪽 변방, 금(金)나라와 접경한 작은 마을에서 이강의 삶은 비교적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리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목수였고, 매일 끝과 대패를 쥐어 손은 거칠고 굳은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이자 온 세상은 소박한 초가집 안에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현명한 아내와, 한창 자랄 나이의 아들딸 두 아이.

저는 당시 이강의 감정, 소박하고 굳건한 행복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멀리서 아이들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저녁 연기가 갓 지은 밥의 구수한 냄새와 어우러지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 온 가족이 그가 직접 만든 나무 식탁에 둘러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강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 평범한 나날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랄 뿐, 더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방의 평온함이란 본래 매우 허약한 것이었습니다. 몽골 기병의 말발굽 소리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군대가 마치 홍수처럼, 휩쓸고 지나간 곳에는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금나라 침략 작전을 시작했고, 이강의 마을과 같은 접경 지역의 마을들은 전쟁의 숨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작은 부대들이 지나가며 식량을 약탈하고,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걱정이 집집마다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재앙이 곧 지나갈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에 여전히 매달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이강은 집에서 약 20 킬로미터 떨어진 이웃 마을에 집을 다시 짓는 것을 도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일은 하루면 끝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보았고, 그녀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주먹밥 꾸러미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일하던 도중, 그는 갑자기 큰길 쪽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허둥지둥 옷차림이 헝클어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을 쪽으로 달려오며, 달리면서 외쳤습니다.

“몽골군이다! 몽골군이 강변 마을들을 약탈하며 학살하고 있다!”

이강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의 마을은 바로 강변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이강은 급히 연장 꾸러미를 내던지고, 나무에 매어둔 말에게 달려가 올라타, 집을 향해 질주하도록 채찍질했습니다. 익숙한 길은 이제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지만, 그는 가슴속에서 터질 듯이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다. 말발굽이 땅을 울리는 소리 하나하나는 제시간에 도착하기를, 가족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그의 절망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는 말을 무자비하게 채찍질하며, 당장 집으로 날아갈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마을에서 몇 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매캐한 연기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습니다.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을 쪽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사람 소리도, 가축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불타다 만 초가 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이강은 말이 채 멈추기도 전에 뛰어내려, 비틀거리며 자신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나무 문은 부서져 한쪽 구석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으로 뛰어들며,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그 주위의 하늘과 땅을 무너뜨렸습니다. 집 안의 모든 것이 부서지고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땅바닥 위, 깨진 그릇과 가구 조각들 사이에, 익숙한 세 구의 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어린 두 아이… 그들은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몸에는 이미 마른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

다. 그들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여전히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강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그의 심장과 함께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차가운 얼굴을, 그리고 두 아이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가 한때 껴안았던 따스함은 이제 소름 끼치는 냉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 그가 존재했던 모든 이유가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고통, 무력감, 제때 돌아오지 못한 자책감, 모든 것이 뒤섞여, 맹렬하고 어두운 증오의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거기, 폐허 속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차가운 시신들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목적만이 남았습니다. 복수. 그는 더 이상 온화한 목수 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증오로 움직이는 한 대의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묻은 후, 이강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서 금나라 군대가 몽골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치열한 전투 소식을 들었습니

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몇 가지 간단한 물건을 챙기고, 나무 베는 도끼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는 남송 군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의 증오는 국가를 가리지 않았고, 오직 단 하나의 적만을 겨냥했습니다.

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금나라 군대는 잘 무장하고 경험이 풍부한 몽골 기병의 맹렬한 공격 앞에서 방어선을 힘겹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령도, 전술도 없이, 이강은 말不成聲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모든 고통과 증오를 담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적군이나 전장을 보지 않았고, 그의 가족을 빼앗아간 유령들만을 보았습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몽골군의 정예 진형으로 돌진한 그는, 마치 사냥꾼에게 미친 듯이 공격하는 부상당한 짐승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경험을 대신할 수 없었고, 증오는 날카로운 칼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은 긴 창으로 그의 몸을 냉정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전투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숨이 점차 약해질 때,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고통과 증오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이강은 피로 흐려진 눈으로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싼 낯선 적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그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맹세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존재에 깊이 새겨진, 올려 퍼지는 맹세였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반드시 너희를 찾아, 내 처자식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것이 그가 어둠 속으로 잠기기 전 마지막 염원이었습니다. 그 맹세는 원한으로 무겁게 짓눌려,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고, 그의 영혼을 따라 윤회의 수레바퀴 속으로 들어가, 언젠가 청산될 날을 기다리는 인과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빛이, 하늘의 안배에 따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른 땅에서, 다른 신분으로, 이강의 영혼이 대월의 쯔(陳) 왕조로 환생했을 때 해결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대월에서의 환생 – 병서를 품은 승려

무거운 원한의 맹세를 품은 이강의 영혼은 윤회의 수레바퀴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마음 때문에 어두운 경계로 떨어지는 대신, 어떤 자비로운 안배가 개입한 듯했습니다. 빛은 갇아야 했지만, 살업에 더 깊이 빠지는 길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은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되었는데, 바로 불법(佛法)이 숭상되던 융성기의 땅, 찢 왕조의 대월이었습니다.

저는 평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뛰어노는 것을 좋아할 때, 저는 종종 혼자 몇 시간씩 앉아, 조용히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거나, 개미 떼가 먹이를 집으로 나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기이한 공감과, 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고통에 대한 막연한 고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나무 아래 앉아 시들어가는 꽃 한 송이를 유심히 보고 있을 때, 한 연로한 선사께서 마을을 지나며 탁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제게 멈추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한참 동안

조용히 관찰하시다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후, 그분께서는 제 부모님을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시주께서는 참으로 특별한 심성을 가진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아이에게는 보기 드문 정적인 기운과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씨앗이니, 올바른 곳에 심으면 장차 많은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거목이 될 것입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선사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빈승은 마을 끝 언덕 위 작은 절의 주지입니다. 두 분 시주께서 껴보시다면, 아이를 절에 보내 동자승으로 삼아, 경전을 가까이하고 그 선량한 마음을 키우도록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길일 것입니다.”

본래 인연을 믿으셨던 제 부모님께서는 선사의 말씀을 듣고 매우 감동하여 공손히 동의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열 살 되던 해, 저는 가족과 작별하고 그 선사를 따라 절에 올라갔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제 첫 스승님이셨고, 제게 **명정(明淨)**이라는 법명을 주셨습니다.

절에서의 첫 몇 년 동안, 저는 주로 선문의 규율을 배우고, 경전을 외우며, 좌선을 익혔습니다. 당시 제 어린 마음은 심오한 교리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타고난 정적인 기운과 다른 동자승들보다 뛰어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제게 복잡한 철학을 서둘러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께서는 빗자루질, 물 길기 같은 일상적인 일을 통해 제 심성을 다듬고, 제 마음에 첫 불법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열세 살이 되어, 마음이 가지를 뺏고 잎을 피우기 시작했을 때, 그 씨앗들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전을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 고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생의 고통, 생사의 윤회,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것들이 갑자기 생생하게 다가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을 제 안에서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시기, 대략 열세 살에서 열여섯 살 사이에, 절의 장경각은 제 세계가 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제가 충분히 성숙해졌다고 보시고, 불경 외에 다른 책들도 자유롭게 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와 천지의 운행 이치를 더 이해하고자 유가와 도가의 서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역사 기록, 왕조들의 흥망 성쇠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해 읽을 때, 저는 호전적인 자의 흥분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깊은 비애를 느꼈습니다. 마치 핏속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기억이 있어, 저를 병란의 참혹함에 특히 민감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고대의 병서들을 찾아 읽도록 재촉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병법은 살인의 기술이 아니라, 살육을 멈추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전쟁이 단지 칼과 창만이 아니라, 지혜와 민심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불법의 도리와 병법 사이의 기묘한 상응을 보았습니다. 훌륭한 장군은 함부로 살생하지 않기 위해 자비심을 가져야 하고, 적과 나를 알기 위해 지혜를 가져야 하며, 변고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정적인 기운을 가져야 한다는 것, 마치 수행인처럼 말입니다.

불법의 지혜, 유도(儒道)의 깊이, 그리고 병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정통함의 결합은 제 안에 세상사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만들어냈습니다. 절의 사형제들은 저의 정진과 불학 지식을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스님이 몇 시간이고 바둑판을 벌여놓고, 마치 진법을 계산하듯 수순을 중얼거

리는 것을 보며 저를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수도 탕룡(昇龍)의 서쪽 외곽에 위치한 작고 청정한 절의 주지로 임명되었습니다. 절은 낮은 언덕 위에 있었고, 푸른 대나무 숲 사이에 숨겨져 있어, 속세의 먼지를 씻어내고 싶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미 오십에 접어들었고, 마음은 거의 파문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이 그 평온 속에서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제가 절 마당 보리수 아래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서생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모습과 기품에서는 기이한 고귀함과 현명함이 풍겨 나왔습니다. 비록 그 젊은이가 숨기려 애썼지만, 저는 그 안에 잠재된 제왕의 진정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온 시위는 단 한 명뿐이었고, 그 또한 평민처럼 차려입고 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손님은 지극히 겸손하게 합장하고 예를 올렸습니다. 그는 순행길에 절의 청정한 경치를 보고 향 한 자루를 올

리고, 스님께 불법에 대해 몇 가지 가르침을 청하고 싶어 들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태자 편캄(陳), 훗날 현명한 왕 편년똥(陳仁宗)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를 선방으로 초대하여 연꽃차 한 주전자를 우렸습니다. 분위기는 고요했고, 오직 밖에서 나뭇잎을 부드럽게 흔드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마음(心)’에 대한, 중생의 고통에 대한, 그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대한 태자의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젊은이는 비록 어렸지만, 던지는 질문들은 매우 깊이가 있었고, 민족과 인간의 운명에 대한 큰 고뇌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왕의 육신 속에 있는 미래의 보살(菩薩)이었습니다. 그의 근기와 자비로운 마음을 보고, 저는 제가 깨달은 바를 주저 없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불가의 해탈의 도에서 유가의 치국안민(治國安民)의 도로 옮겨갔습니다. 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찌하면 백성이 풍요롭고 나라가 태평하며, 병란의 참화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젊은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태평하려면, 그 뿌리는 민심에 있어야 합니다. 민심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굳건해집니다. 민심을 안정시키려면, 지도자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백성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앞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仁)’입니다. 하지만 인자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평화를 외침으로부터 지키려면, 지도자는 지혜와 결단력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智)’와 ‘용(勇)’입니다.”

태자 찢카은 말없이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를 지휘하고 사직을 보호하는 데 있어 ‘지’와 ‘용’의 핵심은, 스님 보시기에, 무엇입니까?”

이때, 저는 인연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전술에 대해 말하지 않고, 단지 몇 가지 큰 도리를 짚어주었습니다.

“병법에는 무수한 묘계가 있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알고 적을 아

는 것이요. 둘째는 군사들의 마음을 얻어 상하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며. 셋째는 약함으로 강함을 제압하고, 적은 수로 많은 수를 대적하며, 시기와 지리를 이용하여 인력을 보충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용병술의 최고 경지는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즉 위엄과 덕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만약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양측 모두에게 최소한의 손실로 가장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자(仁者)의 ‘용’입니다.”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태자는 주의 깊게 들었고, 그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책에 대해 더 묻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군사를 지휘하는 정신, 핵심적인 도리를 파악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황혼이 질 무렵 끝났습니다. 태자 찐캄은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가득 담아 제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찾아와 가르침을 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젊은 태자의 모습이 대나무 숲 뒤로 사라졌을 때, 저는 절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거대한 인연이 연결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은거 선사와 미래의 왕. 저는 제가 수년간 쌓아온 병법 지식이, 아마도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막연히 느꼈습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올바른 사람, 올바른 시기를 기다려, 더 큰일, 이 땅의 수백만 생명의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일에 쓰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옛날 이강의 증오는, 운명에 의해 당시 저 자신도 결코 다 알 수 없었던 방식으로 풀리도록 안배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름 없는 군사 – 강산에 힘을 보태다

약속대로, 첫 만남 이후, 태자 찢캄, 그리고 나중에는 황제 찢년똥은 여전히 가끔씩 제 작은 절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방문은 항상 비밀리에, 요란한 의식 없이, 단지 몇몇 측근 시위만을 대동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군주의 자격이 아니라, 도를 배우고, 청정함과 가르침을 구하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담론은 주로 불법(佛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젊은 왕은 세상사에 대한 근심,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쥔자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서, 무상(無常)과 자비, 그리고 해탈의 길에 대한 교리 속에서 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황제의 용포 뒤에 불문을 향한 강한 영혼이 숨겨져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대화할 때마다, 저는 경전을 강해할 뿐만 아니라, 그분 마음에 깨달음의 씨앗, 더 숭고한 출세간(出世間)의 길의 씨앗을 심으려 노력했습니다.

원몽(元蒙) 제국의 위협이 점점 커지자, 우리의 대화에는 국책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기 시작했습니다. 왕께서는 제게 어느 전투를 치러야 하는지, 어디에 함정을 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께서는 더 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한번은, 그분께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스님, 적은 호랑이처럼 강하고, 우리 군사는 더 적으니, 어찌하면 사직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답하지 않고, 그분께 차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차 향기가 퍼지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폐하, 가장 굳건한 성곽은 흙과 돌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심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적은 성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백성의 의지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백성의 힘을 쉬게 하여, 백성

들이 조정이 진정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백성이 나랏일을 집안일처럼 여기게 되면, 모든 백성이 한 명의 군인이 되고, 모든 마을이 하나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힘은 밀물처럼 솟아올라, 어떤 적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때, 왕께서 파벌과 황족 내의 반목 속에서 인재 등용에 대해 고심하실 때,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큰 바다라야 큰 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제왕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 백 개의 강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인재가 부족하지 않으나, 그들이 나서서 나라를 도울지 여부는 지도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부디 사소한 반목을 버리시고, 오직 그들의 재능과 충의를 보고 중용하소서. 특히, 병권을 쥔 자들에게는, 폐하께서 완전히 신뢰하고 중책을 맡기시어,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장수가 후방을 걱정하지 않고 전장에 나설 때, 비로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적과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조정에 흥다오 대왕 쩌꾸옥뚜언이라는, 비범한 재능을 가졌으나 황족과 암암리에 불화가 있는 장수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들은, 비록 지명하지는 않았

지만, 찌년똥과 같은 현명한 왕이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중에 왕께서 흥다오 대왕을 완전히 신뢰하고 군 지휘권을 전적으로 위임한 것은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이자, 위대한 승리로 이끈 열쇠였습니다.

저는 결코 제 자신을 군사(軍師)라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한 명의 승려로서, 제가 읽고 깊이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큰 도리에 대한 조언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술(術)’에 대해 논하지 않고, 오직 ‘도(道)’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왕께 장기적인 항전을 준비해야 하고, 전 국민의 힘에 의지해야 하며, 수토(水土)에 익숙하지 않은 침략군의 생명력을 고갈시키기 위해 ‘청야(淸野) 전술’을 실행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 일깨워드리려 노력했습니다.

왕께서 오셨다가 다시 가시면, 저는 다시 제 청정한 삶으로 돌아와, 매일 경을 읽고 좌선을 했습니다. 저는 전황에 대해 묻지도, 공을 세우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단지 민족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젊은 왕의 말을 들어주고, 길을 열어주며, 조용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미미한 기여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찌 왕조 군민 전체의 애국심과 불굴의 의지라는 큰 바다에 섞인 한 방울의 물과 같았을 뿐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 백성을 이끌고 두 차례 원몽군을 격파하고 태평성대의 나라를 세운 후, 찌년똥 왕께서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 그분께서는 나랏일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르익은 결심을 표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시 왕께서는 아직 매우 젊으셔서, 막 서른다섯에 접어들었지만, 그분의 눈에는 더 이상 세상사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평온함과 위대한 갈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산하와 조상에 대한 책임을 다했고, 이제는 자신의 길—출가 수행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제자로 받아들여, 해탈의 길로 이끌어달라는 뜻을 비치셨습니다.

저는 왕의 위대한 서원에 깊이 감복했습니다. 명예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겸손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제 도행이 아직 얕아, 그분처럼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는 제왕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뜻이 굳건함을 보고, 저는 정성껏 제 몇 가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폐하, 폐하께서 속세를 벗어날 큰 서원을 가지셨으니, 실로 큰 복입니다. 중국으로 건너가 선종의 조사를 찾거나, 천축의 불국토로 순례를 떠나 원시 교법을 배우는 것 모두, 지극히 고귀한 대원입니다.”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빈승의 얄은 생각으로는, 만법(萬法)을 수행함에, 핵심은 단지 ‘마음(心)’ 한 글자로 돌아갑니다. 몸이 어디에 있는가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국토는 먼 천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속에 바로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머리 위 석 자에 신령이 계시다’ 하였으니, 우리가 정성껏 수양하고 계율을 지키기만 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서 모두 꿰뚫어 보시고 가피(加持)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빈승이 이곳에서 은거하며 수년 동안 마음으로 품고 따라온 길이옵니다. 빈승은, 폐하께서 남국의 신성한 엔뜨산에 가시거나,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시든, 폐하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폐하께서 정진하여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그곳

이 바로 폐하의 도량(道場)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길 이든, 폐하께서는 인연에 맡기시옵소서.”

쩐년똥 왕께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계셨고, 그분의 눈에는 깊은 깨달음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합장 하고 감사 인사를 하셨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 셴지만, 저는 그분께서 자신만의 답을 찾으셨다는 것을 알 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께서는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시 고 태상왕(太上皇)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조정의 일이 안정되자, 그분께서는 진정으로 옌뜨산에 올라 위대 한 수련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죽림선파(竹林禪派)를 창 시하시어, 베트남 불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이자 영원한 상징이 되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왕-부처님의 여정을 목격하고 아주 작 은 부분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복된 인연이었습 니다. 저는 한 은거 선사의 조언이 강산을 지키는 데 기여 하고, 그 후에는 한 왕이 부처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안 내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운 명의 안배인 듯했습니다.

도를 얻고 인연을 깨닫다

쩨년똥 왕께서 엔뜨로 떠나신 후, 제 삶은 다시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가 대사에 대한 담론은 더 이상 없었고, 대신 수행에 전념하는 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대의 온갖 영고성쇠를 겪고, 거대한 변고들을 목격하면서, 제 마음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법이나 세상사에 대한 지식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그 통찰을 사용하여 고통과 생사, 그리고 윤회의 본질을 더 깊이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수행의 길을 계속했습니다. 매일, 저는 여전히 경을 읽고, 좌선하며, 노동했습니다. 저는 신통을 구하지도, 기이한 능력이 열리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제 유일한 목표는 의식 속에 남은 먼지들을 완전히 씻어내어, 절대적인 맑음과 고요함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머리카락은 서리처럼 하얗게 세었습니다. 거의 일흔 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제 도행이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음을 느꼈습니다. 몸은 비록 늙고 쇠약해졌지만 정신은 지극히 총명했습니다.

고요한 어느 날 밤, 제가 깊은 정(定)에 들어 있을 때, 천목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생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옛날 전사 이강의 복수 맹세가 바로 선사 명정이 지혜를 사용하여 한 민족이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것을 도울 기회를 갖게 된 인연이었습니다. 증오의 빛은 칼과 창으로 갇혀진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길로 선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무량한 겁(劫) 동안의 모든 원한과 업장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제 마음은 완전히 텅 비고, 평온하며, 자유로워졌습니다.

말년의 세월, 저는 절대적인 평온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지막 경을 다 읽은 후, 저는 제자들을 불러 몇 마디를 당부하고, 결가부좌 자세로 앉아 평안히 입적(入寂)했습니다.

이강의 맹세는 완수되었습니다. 켜 왕조와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사 명정의 여정 또한 막을 내릴 때가 되어, 윤회 속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 *

제 12 장: 미국 국무부 고문

(이번에 리버의 기억은 더 이상 선문(禪門)의 구름과 안개
나 사라진 문명의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색채, 즉 권
력의 회랑, 전략 지도, 그리고 시가 연기의 차가운 잿빛을

떠고 있었다. 이곳은 이성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 지정학적 계산에 의해 작동하는 세계, 영적인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듯 보이지만, 인연과 업보는 여전히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조용히 운행되는 세계였다.)

이번 생은 아주 가까워서, 20 세기 중반 워싱턴 D.C.의 밀실 회의실 공기의 숨 막히는 느낌까지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생에서 저는 **프레더 레인 (Freder Rein)**, 외교관이자 미국 국무부의 정책 고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떤 법문(法門)도 수련하지 않았던 한 생이었습니다. 저는 정치 분석가였고, 제 생각과 결정은 전적으로 제가 배운 것, 제가 쌓은 경험에 기반했으며, 당시 정치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학문적 기반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국제문제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명문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1930 년대 후반에 국무부에 들어갔습니다. 제 경력의 초반 몇 년 동안 저는 유럽 전역을 다니며, 파시즘의 부상, 제 2 차 세계대전의 참혹함, 그리고 새로운 대결을 암시하는 첫 계산들을 목격했습니다. 전후 비엔나와 모스크

바에서 근무했던 세월은 제게 공산권의 사고방식과 전략을 깊이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냉전의 불길이 아시아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주남베트남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전으로 가득 찬 임기였습니다. 저는 **사이공** (Saigon)에서 살았고, 그 덥고 습한 공기를 마셨으며, 수십 년간의 전쟁 끝에 겨우 모습을 갖추려 애쓰는 사회의 복잡성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정치가들, 장군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과도 접촉했습니다. 바로 그 직접적인 경험들이 제게 다른 시각, 즉 워싱턴으로 보내지는 건조한 보고서들이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는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대사 임기를 마친 후, 저는 돌아와 국무부의 고위 고문직을 맡아 외교 정책 문제를 전담했습니다.

그때는 1950년대, 1960년대였고, 워싱턴 전체가 ‘도미노 이론’의 그림자에 덮여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실재했고, 그것은 거의 모든 정책 결정을 좌우했습니다.

저는 그 위협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몽상가나 정치적으로 순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특히 베트남에서의 경험은, 이 이론을 베트남처럼 복잡한 문

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고위급 회의에서, ‘매파’ 장군들과 정치가들의 호전적인 목소리들 사이에서, 저는 종종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무력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국민으로부터 굳건한 지지를 아직 얻지 못한 정부를 지탱하기 위해 우리의 돈과 무기, 심지어 미군 병사들의 목숨까지 쏟아붓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전쟁은, 만약 일어난다면, 단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이념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어떤 강대국도 끈질긴 민족의 민족주의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베트남을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서는 특별한 고뇌,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이 일었다는 점입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단지 한 외교관이 자신이 근무했던 땅에 대한 애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왜 폭탄이 그 땅을 더 파괴하고, 그곳 사람들이 더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아픈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분석가의 직관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막연한 느낌으

로, 베트남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 개입은 모든 당사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호전적인 폭풍 속에서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해 그러한 경고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파의 폭풍 속 다른 목소리

미국이 동남아시아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을 때, 국무부의 제 사무실은 제가 주류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을 아는 분석과 보고서들이 탄생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교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이성이 승리하기를 바라며, 내부 회의와 공식 문서를 통해 제 평가를 끈기 있게 제시했습니다.

저는 베트남과 그 이전의 한반도 모두, 우리와 소련 간의 전 지구적 대결을 위한 ‘대리 전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로 우리와 그들이 그 나라들을 체스판으로 만들고, 현지 주민들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졸(卒)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 개입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며, 이념적 색채를 띤 내전을 외세에 대항하는 전쟁으로 변질시켜, 우리 상대방의 힘과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켜 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분석 보고서에서, 저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갈등의 두 중심인물, 즉 남쪽의 응오딘지엠과 북쪽의 호찌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냉전이라는 대립적인 렌즈를 걷어내고, 저는 그들을 민족 지도자로 보려 애썼습니다.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서 독립적이고 통일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위상을 가진 베트남에 대한 공통된 열망을 보았습니다. 치명적인 차이점은 그들이 선택한 길에 있었습니다. 한쪽은 친서방 민족주의, 다른 한쪽은 공산주의.

그리고 이 상황을 더욱 쓰라리게 아이러니하게 만든 것은, 우리가 항상 적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제 보고서에서, CIA 의 전신인 OSS 의 전문가들이 제 2 차 세계대전 중 일본 파시스트에 대항하여 호찌민과 그의 세력과 협력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한때 베트민 지도부가 미국인에게 호감을 갖고, 우리를 자유의 상징,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존재로 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1945 년 이후, 호찌민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미국이 독립을 인

정하고 협력 관계를 수립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들은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냉전의 배경과,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의 핵심 동맹국으로 프랑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워싱턴은 그 제안들을 무시하고 프랑스 편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긴 밤들 동안, 저는 종종 답 없는 질문들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제 메모에, 역사는 아마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었다고 썼습니다. 만약 1945 년에서 1954 년 사이, 미국이 프랑스 편에 서는 대신, 중립적인 역할을 유지하거나, 더 나아가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의 중재자로 나섰다면? 만약 우리가 일본이나 한국에 했던 것처럼, 마셜 플랜의 비전을 사용하여 베트남이 재건하고 자유 경제를 건설하도록 도왔다면, 오늘날의 국면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제 동료들은 입증의 부담이 호찌민 측에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반대의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길이 순전히 민족 해방이며, 공산진영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만큼 현명했다면, 워싱턴은 그를 믿었을까? 아니면 당시 공산주의에 대한 망상과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모스크바나 베이

징과 표면적으로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용납할 수 없는 적으로 간주했을까?

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교의 문을 꽁 닫아버렸고, 이제 그들이 이미 열려 있던 다른 문, 즉 중국과 소련의 품으로 들어갔을 때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의 평범한 군인이나 농부의 눈에는, 미국의 이미지가 프랑스 제국의 이미지와 완전히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단지 신식민주의 세력일 뿐이라고 선전받고 그렇게 믿었으며, 도미노 이론이나 전 지구적 힘의 균형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계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디엔비엔푸에서의 승리는 민족적 자긍심을 극도로 고조시켰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군사 강국을 물리쳤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당의 영도 아래 어떤 적도 이길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다소 주관적이기까지 한 자신감 있는 심리가 그들로 하여금 미국의 힘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초강대국을 바라보는 작은 나라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침략자'를 이긴 경험이 있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준비가 된 민족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민족주의와 이념이 하나로 융합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미군을 투입하는 것은 그들의 선전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가 친구가 될 수도 있었던 한 민족 전체의 눈에 우리를 직접적인 적으로 만들 뿐일 것입니다.

수렁에 빠짐을 목격하며, 지치지 않는 노력을 하다

시간이 흘렀고, 제 분석, 밀실 회의에서 묵살되었던 경고들은, 매일 저녁 뉴스 속보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미국은 전쟁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한때 종이 위에 예측했던 숫자들은 이제 신문 지면의 차가운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주둔 미군 수가 십만을 넘고, 삼십만, 그리고 오십만. 사상자 수 또한 거의 수직에 가까운 그래프를 그리며 증가했습니다.

케산, 땃 공세, 혹은 햄버거 힐과 같은 낯선 이름들이 갑자기 모든 미국 가정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시작된 반전 운동은 수만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시위로 번졌습니다. 미국 사회의 분열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모

든 것이 제가 경고했던 대로, 심지어 그보다 더 나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성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극이었습니다. 무거운 자책감이 제 경력의 마지막 몇 년을 뒤덮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전쟁 기계가 일단 가동되자, 모든 외교적 노력과 화해의 가능성을 무참히 짓밟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사상자 보고서를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 남편, 아버지의 이름을 보는 한 인간으로서 읽었습니다.

폭격당한 마을에 대한 뉴스 하나하나, 텔레비전에 비친 지친 젊은 군인의 모습 하나하나가 제 양심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막을 힘과 영향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일말의 책임을 느꼈습니다. 제가 베트남 땅에 대해 느끼던 그 특별한 괴로움은 더욱 뚜렷해졌지만, 여전히 그 이유를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조차,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비밀 연락 채널을 추진하며, 협상 해결을 위한 희미한 희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장에서 이길 수는 없더라도, 명예로운 퇴각

을 해야 하며, 그것은 오직 외교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68 년, 정부 조직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 저는 공식적으로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퇴직이 관심을 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외교계에서 일했던 습관, 전쟁에 대한 고뇌는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3 년, 1968 년부터 1971 년까지, 저는 여전히 제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며, 국무부에 현직으로 남아있는 옛 동료들에게 편지와 개인적인 분석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제안하고, 세계 정치 국면의 변화를 분석하며, 전쟁의 값비싼 대가에 대해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 노력들은 아마도 큰 강에 던져진 조약돌과 같아서, 몇 개의 파문을 일으키고는 가라앉아,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프레더 레인은 1971 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트남의 평화와 미국의 명예로운 철수에 대한 그의 소망은 여전히 멀고, 미완성인 채로 남았습니다.

...

그 생은 정치적 계산, 긴장, 그리고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저는, 프레더 레인의 신분으로,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려 애썼고, 많은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했던 전쟁을 막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힘은 이미 가동된 전쟁 기계 앞에서, 한 시대 전체의 편견과 두려움 앞에서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여전히 당시 워싱턴 D.C.의 숨 막히는 분위기와, 떠나야 했던 젊은 군인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저는 항상 베트남에 대해 특별한 관심, 당시에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던 애트함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단지 그 땅에서 더 이상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 단순한 정치적 분석을 넘어선 강렬한 감정이라는 것만을 알았습니다.

이제, 대월(大越)에서 명정(明淨) 선사로 살았던 생과 같은 전생들을 알고, 또한 그곳에 대사로 ‘우연히’ 파견되었던 일을 알게 되자, 저는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주 먼 옛날의 감정과 인연들이 저에게 조용히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프레더 레인의 생에서는 수련인이 아니었지만, 아마도 이전 생들에서 남은 약간의 자비심이 양심의 고뇌,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충동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어떤 역할에 있든, 은거
선사이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정치 고문이든, 양심을 지키
고 선을 행하려 노력하는 것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파
룬따파는 제게,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든 상황에서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행동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 * *

제 13 장: 한 천국(天國)의 왕

(이번에 리버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선사의 침묵도, 외교관의 고뇌도 아니었다. 소년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마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한 위엄과 찬란함을 담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의 이야기이자,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었다.)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생애들은, 돌이켜보면, 단지 연극과 같았고, 단편적인 여정과 같았습니다. 신이든, 장군이든, 예술가든, 동물이든, 각각의 역할과 경험은 모두 더 깊은 목적, 제 진정한 근원과 연결된 사명을 위한 준비이자 단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 대한 진실, 제가 보게 된 그것은, 바로 제가 왜 이 비범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윤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각입니다.

저는 한때 인간 세상과는 물질이 완전히 다른, 지극히 높은 차원에 위치한, 지극히 광대하고 아름다운 한 천국(天國)의 왕주(王主)였습니다. 제가 본 그 경지에서, 제 칭호는 ****천경왕(天境王)****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이곳처럼 태양이 없었습니다. 제 세계 전체는 바로 저 자신—왕주—에게서 발산되는 후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순수하며, 만물을 양육했습니다.

궁전과 사원의 건축물은 인간의 언어로 묘사하자면, 아마도 귀한 보석이나 수정이라고 잠시 부를 수 있을 뿐,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른 것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생명과 에너지를 품고 있는 고차원 물질이었고, 제 생각 하나 하나에 따라 무수한 색채로 변화하며 기묘한 빛을 스스로 발산했습니다.

그곳의 나무와 꽃과 풀은 속세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한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푸르거나, 붉거나, 노란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스스로 변하고 서로 어우러지는 색채의 띠였습니다. 그것들은 영지(靈智)가 있어, 잎사귀 하나, 꽃 한 송이가 모두 바람결에 따라 미묘한 음악을 느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영물들 또한 지극히 아름답고 온화했으며, 다른 생명체들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위나 산들조차도 무생물이 아니었고, 그들 역시 생명이 있어, 우주의 메아리처럼 웅장한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 천국의 중생들은 무량무변하게 많았고, 신(神), 선(仙), 보살(菩薩), 나한(羅漢),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형태의 무수한 생명체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저의 인도와 보호 아래, 그 우주 층의 법리(法理)를 따르며 절대적인 조화와 안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도 성(成)-주(住)-괴(壞)-멸(滅)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긴 세월이 흐른 후, 저는 제 천국뿐만 아니라 이웃 세계들에서도 쇠락의 징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은 태초처럼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고, 물질은 변이되기 시작했으며, 낡은 우주의 법리는 종말에 이르렀습니다. 제 세계가 점차 파멸로 향하는 것을 보고, 제가 보호할 책임이 있는 무수한 중생들이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지극히 비통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 한 지고하신 주불(主佛), 창세주(創世主)께서 우주의 여러 층 사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희망의 빛과 전례 없는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말법(末法) 시기에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어 우주 전체의 법(法)을 바로잡고(正法), 모든 것을 재창조하며 중생을 구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천국의 많은 왕주들과 함께, 만고의 기연을 얻어 창세주를 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세계와 중생들을 위한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분께 경건하게 신성한 서약을 세웠습니다. 그 서약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왕주의 자리를 버리고, 당신을 따라 속세로 내려가기를 서원합니다. 저는 사람으로 환생하여, 당신께서 공식적으로 우주 정법(正法)의 따파(大法)를 널리 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법을 찾아 수련하며, 사부님을 도와 법을 바로잡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제 천국 중심에 제 원신(元神)과 보이지 않게 연결된 기묘한 빛의 구슬을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선한 일을 하면 그 구슬은 밝아지고, 악한 일을 하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자, 제 세계의 중생들이 제가 서약을 완수할 날을 기다리며 바라볼 등대였습니다.

그 신성한 서약은 모든 신들의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운명은 다시 정해졌고, 정법 시기 우주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희망의 구슬은, 고난으로 가득 찬 하세(下世)의 길로 들어서는 자신의 왕주를 따라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기나긴 하세(下世)의 여정

왕주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자신의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목적이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왕관을 벗는 것과 같지 않고, 마치 한 가장이 휘황찬란한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잠시 떠나, 오직 모두를 구원할 약방문을 찾아, 미혹과 고난으로 가득 찬 낯선 세상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내려오는 여정은 길고 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천목으로 다시 보니, 비로소 그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여정이 아니라, 지혜로 가득 찬 일련의 안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매우 명확하게 보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의 각 단계에서, 저는 ‘맡기거나’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깨어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한 층으로 내려가면, 제 원신은 더 높은 층의 신들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안배되었습니다. 제가 맺었던 선연과 악연, 우주의 구속적인 법칙, 그리고 서약의 궁극적인 사명에 근거하여, 바로 그분들께서 저를 새로운 ‘역할’에 배치하셨습니다. 물론, 그 역할 속에 있을 때, 저는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제가 이제야 비로소 깊이 깨달은 우주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더 높은 경지에 대한 지혜와 기억은 봉인됩니다. 저는 더

이상 위를 볼 수 없고, 오직 저와 같거나 낮은 경지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주 높은 층에서 한 신의 경지로 내려가면, 저는 정말로 그곳의 한 신이 되어, 그 층의 다른 신들과 동등한 힘과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제 인식 속에서, 저는 그 층의 다른 신들과 함께 우리 세계가 위대하다고 믿고, 심지어 그것이 이미 최고 경지라고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봉인과 약화는 제가 그 층의 법칙 속에서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존재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혹의 옷을 겹겹이 입고, 제 진정한 근원을 잊어버린 채, 오직 옛 서약과 가장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만을 간직하며, 인간 세상에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왔습니다.

하세의 여정 속 그 생애들에서, 저는 선연과 악연을 포함하여 많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만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된 생명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해를 입혀, 갇아야 할 빛을 지게 된 생명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관계들은 기록되어, 나중에 제가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제 관계들을 지배할 인과의 끈이 되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저 또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세계의 왕주들, 주(主)들, 즉 창세주와 비슷한 서약을 세우고

역시 하세의 길에 있던 분들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명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많이 봉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원신은 여전히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저 눈빛이 마주치는 것, 형언할 수 없는 친숙함, 위대한 사명을 함께하는 이들의 조용한 공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에서 다시 만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세계와 수많은 하늘의 층을 지난 후, 제 원신은 우주의 가장 낮은 층—삼계(三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문, 인간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때가 바로 봉인이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왕의 남은 모든 것, 천국에 대한 모든 기억, 서약에 대한 모든 기억이 단단히 잠겼습니다. 저는 완전히 미혹 속의 한 생명이 되어, 다른 모든 중생처럼 생로병사와 고통스러운 윤회의 법칙에 지배받으며, 삼계에서의 ‘역할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구에서의 제 첫 인간 생은 1 억 년 전 선사 시대 문명기였습니다. 저는 권력 넘치는 장군 아리온이 되었고, 명리의 미혹 속에서, 당시 전해지던 따파를 반대하며 하늘에 사무치는 죄업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의 제 수천 번 윤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윤회와 이 생의 좋은 인연

인간 세상에서 수천 번이 넘는 환생을 거치며, 저는 무수한 옷을 입었고, 무수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푸른 바다의 왕자였고, 장백산 정상의 산신이었으며, 제왕들 뒤에 숨은 군사였고, 먼 행성의 여성 예술가였으며, 현대 세계의 외교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열두 생애는, 끝없는 영화 속 몇몇 스쳐 지나가는 장면에 불과하며, 천리만리 길 위의 몇몇 발자국일 뿐입니다.

어떤 생애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음은 욕망과 권력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어떤 생애에서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선량함과 인내를 지켰습니다. 저는 남성이었던 적도, 여성이었던 적도, 백인, 황인, 흑인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재회의 기쁨과 이별의 고통을 겪었고, 선대(善待)의 달콤함과 배신의 씁쓸함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생애, 모든 역할은, 모두 하나의 안배이자, 제가 중생과 인연을 맺고, 심성을 단련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릴

기회였습니다. 옛 서약이 실현될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고성쇠 끝에, 이번 생에서, 서약은 응답받았습니다.

사부님의 안배에 따라, 저는 미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법률태법 수련자인 가정에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5 년에 태어났고, 올해(2025 년) 막 열 살이 되었습니다. 이 안배는 우연이 아닙니다. 천목으로 보니, 우리를 이전부터 연결해 준 깊은 인연들이 보였습니다. 이번 생의 제 어머니는, 제가 하세의 여정 중 한 생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불과 세 생애 전쯤에 함께 환난을 겪었던 친한 형제였습니다. 바로 이전생의 인연의 끈들이 우리를 다시 함께하게 하여, 이번 생에 함께 따파를 얻도록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법(法) 강의를 듣고 그분들과 함께 공법을 연마했습니다. 따파의 순정한 에너지는 제 몸과 마음을 씻어내었고, 무수한 생 동안 제 지혜를 단단히 잠갔던 봉인들을 점차 깨뜨렸습니다. 제가 다섯 살이 되던 해, 한번은 명상 중에, 제 천목이 갑자기 매우 명확하게 열렸습니다. 이전 생애들에 대한 기억, 다른

공간의 광경들이 마치 생생한 영화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그리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단지, 보이는 것은 제 자신이 수련에 대해 더 믿음을 갖기 위한 것이지, 과시하거나 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온화하게 타일러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른 공간을 보는 능력이 수련 층차의 높고 낮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선인(眞善忍)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실질적으로 닦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제가 제 책임을 깨닫고, 제가 본 것을 사용하여 제 자신을 더욱 정진하도록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혜견(慧見)과 전하는 말

천목으로 보니, 창세주께서 정법(正法)을 실행하시는 과정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제가 법륜대법을 진정으로 수련하기 시작했을 때, 휘황찬란한 광경이 정(定) 중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멀리 있는 제 천국을 보았고, 제가 옛날 그 세계의 중심에 남겨두었던 빛의 구슬이, 온갖 영고성쇠 끝

에, 희미해질 뻔했던 순간들을 지나, 이제는 이전에는 본적 없는 찬란한 빛으로 갑자기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따파의 에너지를 품고, 찬란하고 순정하며, 제천국 전체를 비추어, 괴(壞)-멸(滅) 시기의 어두운 구름들을 걷어냈습니다. 제 세계의 중생들, 무수한 세월 동안 기다려온 그들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주가 돌아올 길을 찾았고, 옛 서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또한, 옛날 저와 함께 서약을 세웠던 많은 왕주들이, 이제 이 세상에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 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모두 현재 법률탉법 제자로서, 세계 각지에서 조용히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 있으며, 신앙을 지키고 중생을 구도하기 위해 지극히 혹독한 시련에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신들의 인식 속에서, 삼계는 본래 우주에서 가장 낮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사로(死路)’—내려오기만 할 뿐인 외길—라는 점입니다. 무수한 겁(劫) 동안, 스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던 생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이곳에 떨어지면, 그들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윤회의 미혹 속에서 헤매며, 끊임없이 업을 지었습니다. 낡은 우주의 법칙

에 따르면, 한 개인의 업력이 갚을 수 없는 수준까지 쌓이면, 그 생명은 파멸되고, 결국에는 형신전멸(形神全滅)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삼십여 년 동안, 우주 전체를 뒤흔든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로’에서, 창세주께서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따파를 널리 전하시어, 자격 있는 생명들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선(法船)—구도의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곳에서 전례 없는 희망을 보았기에, 아주 높은 공간 차원의 무수한 생명들이 그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어,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스스로 수련에 들어갈 기회를 얻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표하는 무수한 중생들까지도 구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세 과정 또한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생명은 더 높은 층의 신들에 의해 자신의 역할이 안배됩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일부 신들이 직접 내려와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일단 이 미혹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들 또한 빠르게 봉인되고 모든 법력을 잃어, 다른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인간 세상의 육신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 세상에서 미혹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사람으로 태어날 충분한 기연이 없었기에, 동물이나 초목으로 환생하기를 기꺼이 원했습니다. 그들은 동식물이 수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따파의 무변한 자비가 만물을 아우를 것이며, 그들 또한 정법의 장(場)에서 동화되고 구도될 기회가 있을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비록 낮은 신분을 받아들이더라도, 따파 제자들이 있는 곳 가까이에 있어, 부처님의 빛이 널리 비추는 속에 몸을 담그기를 원했던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목격하면서, 저는 이 정법 시기에 사람이 되어 따파를 수련할 수 있는 기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급한지를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동수 여러분, 특히 가장 힘든 환경에 있는 분들께, 우리는 정말로 더욱 정진하여, 사부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일을 잘 해내고, 이 만고의 기연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세웠던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미혹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귀 기울여, 하루빨리 맑게 깨어나, 진실을 인식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 마음속의 선량함을 소중히 여기고, 법륜대법에 대해 알아보려 노력해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겁난을 넘어설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선사 시대 장군에서부터, 푸른 바다의 왕자, 산 정상의 선사, 그리고 현대의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모든 생애는… 모두가 안배였고, 필요한 조각들이었습니다. 고통스럽든 영광스럽든, 모든 경험, 모든 교훈은, 제가 옛 서약을 굳건히 지키고, 따파를 다시 찾았을 때 제 사명을 완수할 충분한 지혜와 의지, 그리고 심성을 갖추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모든 역할은 단 하나의 역할,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법 시기에 법륜대법 제자가 되어, 자신을 잘 수련하고, 제가 한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세계의 중생들이 구도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때, 리버의 목소리는 평범하고, 맑고, 진솔한 열 살 소년의 것으로 돌아왔다. 한 왕의 위엄 있는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순수함과 고요함만이 남았다.)

이 이야기들은… – 소년은 기록하고 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다시 앞의 허공을 바라보았다 – 무언가를 과시

하거나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단지 기억, 근원을 찾아가는 아주 긴 여정 위의 발자국일 뿐이에요.

이제 저는 이해해요. 1 억 년 전 아리온의 비극은 단순히 징벌이 아니라, 바로 우주의 위대한 여행연습 속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앞길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제 저는 가장 올바른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어요.

저는 단지 열 살 소년, 평범한 법륜대법 수련생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 안에 한 왕의 서약을 품고 있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소년은 평온한 미소로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다. 맑은 두 눈은 앞을 향해 있었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의 굳건함과 평온만이 있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갔지만, 이제 침묵만이 남았다.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 수천 번의 생애를 거친 여정을 마무리하는 침묵이었다.)

* * *

맷음말

마지막 테이프가 멈췄다. 방 안은 고요해졌고, 벽시계의 희미한 째깍거리는 소리와 나무 바닥 위에서 춤추는 따스한 황금빛 햇살만이 남았다. 맑은 눈을 가진 열 살 소년 리버는, 방금 온 우주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졌다가, 어느새 조용히 앉아 평범한 아이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수천 번의 생애 이야기가 막을 내렸다.

2 주 동안, 제 일은 단지 듣고 기록하는 것이 전부였다. 저는 리버와 함께 휘황찬란했던 왕조들, 사라진 문명들을 지나, 선사 시대의 장군에서부터 푸른 바다의 왕자, 화성의 여성 예술가, 그리고 현대의 고뇌에 찬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여행했다. 처음에는 그저 기이한 이야기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기록하고 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전체를 돌이켜보니, 그것들은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정교하게 배열된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이었음을 깨닫는다.

리버가 1 억 년 전 아리온의 첫 생애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지 개인적인 비극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을 듣고 나서야, 저는 그것이 우주의 첫 번째 여행연습 속 뼈아픈 교훈이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알고 보니, 아무것도 우연은 없었다. 아득한 선사 시대 한 장군의 실수가 바로 오늘날 한 열 살 소년의 굳건함의 첫 초석이 되어, 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그가 길을 잘못 들지 않도록 보장해 준 것이었다.

저는 리버가 아주 높은 하늘의 층에 있는 신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생명들이, 따파(大法)의 에너지장(場) 가까이에 있기 위해 인간 세상에 환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며, 심지어 풀 한 포기, 동물 한 마리가 되기를 받아들인다고 했던 대목을 떠올린다. 이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서는 문득 제가 예전에 읽었던 경전 속의 한 고대 구절이 울려 퍼졌다. “인신난득(人身難得), 중토난생(中土難生), 정법난문(正法難聞), 명사난우(明師難遇).” (사람 몸 얻기 어렵고, 중국 땅에 태어나기 어려우며, 정법(正法)을 듣기 어렵고, 밝은 스승 만나기 어렵다).

이전에는, 저는 이 구절을 단지 글자 표면적으로만 이해했다. 하지만 리버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비로소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 ‘어려운’ 일 하나하나가, 실은 우주의 무량한 신들이 간절히 구해도 얻지 못하는 위대한 기연이었던 것이다. 그 사실은 저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기록자로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리버의 이야기들은 기록되었지만, 이 시대 각 생명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각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희망한다.

신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케이지 베일 (Casey Vale)

THE LIVES MEDIA

* * *

저자 및 THE LIVES MEDIA 프로젝트에 대하여

저자 소개

케이시 베일(Casey Vale)은 독립 작가이자 탐사 보도 전문 기자이며, 영적인 이야기꾼입니다. 그녀는 진리, 양심, 인류의 운명이라는 주제를 추구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종종 실제 인터뷰에서 시작되며, 정직하고 감정이 풍부하며 깨달음을 주는 방식으로 기록됩니다.

프로젝트 소개

이 책은 THE LIVES MEDIA 에서 출판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THE LIVES MEDIA 는 시대를 초월하는 메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글로벌 비전의 독립 출판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매일의 뉴스를 쫓기보다는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는 책을 지향합니다.

연락처

- ✧ Website: www.thelivesmedia.com
- ✧ Email: editor@thelivesmedia.com
- ✧ QR Code:



같은 프로젝트의 다른 작품들

THE LIVES MEDIA 의 다른 출판물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홍진 · 금광 (Red Dust, Golden Light)
- 권력 그 후: 유산 (After Power: The Legacy)
- 과학의 황혼과 여명 (Sunset and Sunrise of Science)

- 붉은 베일 (The Red Veil)
 - 시간 이전의 울림 (Echoes Before Time)
 - 속세로 (Entering The World)
 - 마지막 종소리 (The Last Bells)
 - 우리 이전 (Before Us)
 - 천 개의 삶 (Thousand Lives) → 바로 이 책입니다
-

**이 책을 읽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를 탐험하는 당신의 여정에 신과 부처님의 가호가 있
기를 빕니다.**